조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22호 11월30일

평양 로동신문사발행 1949

조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북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기관잡지.

제22호 (44)

1949년 11월30일

내 용

산업부문 경제 및 직맹 열성자 대회에서 진술한

김일성 수상의 총결 연설

(만장 총기립, 우렁찬 박수 속에 등단)

여러분!

이 회의는 인민경제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산업부문의 우수한 일군들인 공장 지배인, 기사장, 기사, 기수, 모범 로동자, 직맹 및 기타 사회단체 열성자들이 二개년 인민경제 계획의 첫 一년간 예정숫자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선진적 사업방법과 경험을 호상 교환하며, 제결점들을 급속히 퇴치하고, 앞으로 인민경제 계획 실행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대책을 강구하는 데 도움이 될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하여 모인 회합입니다.

인민경제 부흥 발전에 있어서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큽니다. 그러므로 국가와 전체 인민으로부터 당신들의 두 어깨에 부과된 커다란 과업과 임무는 가장 신성한 것이며, 또한 가장 심중한 것입니다. 이 과업과 임무를 완수하는 것은 조국의 륭성과 부흥 발전을 촉진하는 담보로 되는 것입니다.

공화국 북반부의 산업은 일체 주권이 인민의 손에 있고, 기본 생산수단이 전체 인민의 소유인 국가의 소유로 된, 즉 산업이 국유화된 조건 하에서 위대한 쏘련의 성의있는 원조와 우리 근로대중의 열성적인 노력의 결과로 비약적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일본놈들이 파괴한 공장 기업소들이 어느 정도 복구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장, 기업소, 탄광들이 많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공업품의 생산은 一九四六년에 비하여 四七년에는 八九%로 증가되었으며, 四八년에는 四七년에 비하여 四四%가 증가되었습니다.

• 많은 기업소들에서는 • 우수한 모범을 보이며, 창의성을 발휘하는 선진 로동자들의 수가 장성되고 있으며, 로동 전선에 헌신한 로동자와 지도간부들은 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흥 발전에 기본적 핵심으로 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의 산업발전에 있어서,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는, 엄중한 결점들이 주재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금년도 산업방면에서 실행한 생산 계획은 아주 복잡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부문들의 생산은, 금년 九개월 동안의 생산 실적이 작년에 비하여 증산된 것이 五〇% 내지 六〇%에 달한 부문도 있으며, 그 반면에 예견된 증산 계획보다 二〇% 내지 三〇%밖에 달하지 못한 부문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산업부문에서는 一% 내지 六%의 증산을 겨우 보게 된 부문도 있습니다。

그 실례로서는, 석탄부문에는 계획 숫자에 예견된 三·三%의 증산에 대하여 一%밖에 되지 않았으며, 야금부문에서는 五二%의 증산 계획 숫자에 대하여 六·五%라는 가장 락후한 성적을 보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엄중한 복잡성을 나타내게 한 것은 무엇을 말하여 주는 것이며, 또 이와 같이 일부 생산부문들이 락후된 그 원인들을 무엇에서 구명하여야 하겠습니까?

산업발전의 모든 조건들이 변경되었으며, 새 환경이 조성된 데 의하여 새로운 지도방법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업 발전의 새 환경과 새 조건에서, 새롭게 사업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부 경제일군들은 자기의 사업을 개조하지 않고, 계속하여 낡은 방식으로 사업하며, 어떤 지도자들은 아수 용인할 수 없이 굼뜨게 생산 지도방법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산업부문이 락후하게 된 기본적 원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로동력 보충문제를 가지고 봅시다。 과거 수十년 간의 실업과 빈궁 기아는, 많은 실업 로동자들과 많은 농민들이 농촌으로부터 도시에 몰려가서, 어떠한 직업이든지 얻으려고 자원하여, 공장, 광산, 기업소에도 로동자로 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은 것으로만 과거에는 로력을 보충한 것이 아니라, 일본놈들은 강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일터에 몰아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일본놈들은 우리

조선 사람들을 악독하게 착취할 수 있었으며, 자기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값싼 로동력을 자용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건과 환경은, 오늘에 와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쏘베트 군대가 일본놈들을 우리 강토에서 몰아낸 후, 인민민주제도가 수립된 결과에, 우리 농민들은 백만여정보의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자기의 토지로 분여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생산한 식량을 아무에게도 탈취당하지 않고, 적은 현물세를 국가에 납부하고는, 그 나머지 식량은 다 자기의 소유로 확보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벌써 기아의 위협이 없어진지 오랬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농촌으로부터 저절로 로동력이 류입되는 것은 극히 적어졌으며, 이로써 발전되는 생산의 요구는 만족시킬 수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실업자에 대하여서도 과거에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하여 어떠한 일이든지 가리지 않고 로동시장으로 몰리어 다니는 도시에서 굶주리는 실업자들이, 지금 남조선 현상과 같이 많이 있었다고 하면, 오늘 공화국 북반부 도시들에서는 벌써 실업자가 없어진지 이미 오래 되었으며, 매시마다 어떠한 직업이든지 구하는 굶주린 로동자는 벌써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촌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경되고 도시의 실업자가 없는 환경에서 공장 기업소로 로동력이 저절로 류입하여 올 것을 절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저절로 류입되는 로동력이 없느니만큼 조직적으로 로동력을 보충하는 문제와, 아미 있는 로동력을 고착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기술을 소유하고 기계에 능숙한 인재들을 확보하는데서만이 산업의 성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번이 로동자들을 새로 배워주어야 하며, 이 사업에서 많은 시간과 재정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소들에는 로동력이 고착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우리 기업소들에서는 많은 로동자들이 류동되고 있습니다。 례를 들면, 야금공장들에서 금년 九개월 동안에 새로 받은 로동자 수가 적지 않은데, 동일한 기간내에 직장을 떠

난 로동자 수효도 역시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용서할 수 없는 현상은 황해제철소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황해제철소에서는 금년 八월에 공장에 새로 받은 로동자가 七백명이었는데, 공장 지배인이 새로운 로동자들에게 주택을 주지 않고 식사를 조직하여 주지 않은 결과, 그 로동자들이 二, 三일이 못지나서 四백여명이나 공장을 버리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공장지배인의 잘못인가? 로동자의 잘못인가? 로동자의 잘못은 여기 없습니다。이것은 순전히 사람을 대하는 관계에서 아주 무관심한 공장 지배인과, 그 공장 사회단체 일꾼들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장 지배인은 간곳마다「로동력이 부족하다」고 떠들며, 애원하고 있습니다。기업소에서 로동력의 류동성을 방임하는 것은, 우리 산업을 와해하는 것이며, 생산 계획 실행에 대한 가능성을 말살하는 것이며, 생산품의 품질 향상과 원가 저하를 조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소들이 요구하는 로동력을 확보하며, 로동력의 류동성을 감소하며, 로동인계를 고착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로동임금제를 정확히 조직하며, 기업소들에서 생산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자극을 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기능 로동자와 일반 로동자, 또 경로동과 중로동에 대한 로력 보수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며, 임금에 대한 평균제와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기본 부문 로동자에게 대하여서는, 가장 현대식 보수 형태인 도급제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로동능률을 제고함에 있어서 도급제의 우월성에 대하여서는 많은 실례들을 들 수 있습니다。성진제강소 전기과 에-루로의 용해 시간이 아홉시간이었던 것이, 도급임금제를 적용한 후에는, 그 용해 시간이 급격히 단축되어, 우수한 작업반들에서는 용해 시간을 四시간 반까지 단축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좋은 실례들이, 우리 각공장에서 많지 못한 것이 매우 유감됩니다。임금은 소비된 로력

에 엄격히 해당되어야 할 것이며, 산품을 많이 생산한 자가 임금을 더 많이 받아야 할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많은 기업소들에서는 도급제에 대한 임금제도가 철저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형식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급제를 로동자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로동자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 자기가 고대하여 작업한 자기의 책임량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자기가 받아야 할 로동임금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많은 기업소들의 지도자들과 기술 책임일꾼들은 로동임금 조직에 대하여 자업을 잘 조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급제에 의한 로동임금 계산은 책임량 실행에 대확한 정한 통계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책임일꾼들은 통계사업을 불필요한듯이 생각하고, 여기에 주의를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물론 로동자들이 작업한 일자에 의하여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작업량 통계를 조직하며, 임금지불을 개별적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쉬운 것입니다。이러한 쉬운 방법을 취하려고 론의하며, 행동하는 것은 국가와 산업에 커다란 해독을 주는 엄중한 사실로 되는 것입니다。

로동임금에 대한 정당한 조절은 로동능률을 제고하며, 임금을 향상하게 함으로써 로동자들의 로동의욕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이와 같이 사업을 조직하는 때에는 각계 각층 인민들로부터 기업소로 더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며, 로동력이 더 보충될 것입니다。일제가 패망한 직후, 우리 산업이 채욕되지 못하였던 관계로, 우리는 로동자 전체를 다 리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그러므로 일부 기술공들이 생산기업소로부터 다른 경제부문으로 넘어간 사실도 있으며, 또한 정치적으로 락후한 일부 로동자들은 쉬운 일로써 생계를 유지하겠다는 생각으로 장사꾼으로 변한 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로동자로부터 장사꾼으로 변한 자들은 자기의 신성한 로동기술과 무산계급 성분의 고귀성을 잃어버리고, 국가의 부강을 위하여 물질적 생산에 참가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와 같이 잘못 인식하고 로동전선을 떠나간 사람들을, 다시 우리의 조국과 인민의 행복을 창조

하는 영예스러운 로동으로 다시 돌아올 필요성에 대하여 선전 해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

로동력의 류동성을 방지하려면, 로동자들의 로동조건을 상당히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경제 지도일군들과 기술 일군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아주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수공업적 로동이 이전과 같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경제 지도일군들은 힘든 로동을 쉽게 할 수 있는 기계를 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로동을 기계화하는 사업에 많은 주의를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소들에서는 석탄을 운반하는 일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리용하지 않고, 석탄을 사람의 등으로 운반하고 있으며, 많은 건축 공사에서는 세멘트를 혼합하는 기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손으로 혼합하는 것을 보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실례는 그만두고, 이와 같은 조그마한 로동이라도 기계화한다면, 많은 로동력을 얻을 수 있으며, 또, 그 로동력을 기본 생산부문으로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생산 직장에서 힘든 로동을 기계화하는 것은 로동행정을 쉽게 할 뿐만 아니라, 적은 로동력을 가지고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소의 로동력을 고정화하기 위하여서는 정상적인 주택 생활조건을 만들어 놓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주택과 문화시설 기관 건축 공사가 지연되는 데 대하여 용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산, 기업소 로동자들을 일제 시대와 같은 주택 정형 조건에 방임하여 둘 수 없습니다. 국가는 주택 및 문화 기관을 건축하기 위하여 충족한 자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제 지도일군들의 과업은 건축 공사 계획 실행을 보장하는 데 있으며, 상업 기관들은 상업을 개선함으로 써 산업로동자들에게 상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생산기업소에서 로동보호 조건을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일제 시대에는, 로동행정에서 로동자들이 사망하는 것과 로동능력을 상실하는 사실들은, 광범한 현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illegible]나 국가 주권이 인민의

손에 장악되고 있는 조건 하에서는, 사람에게 대한 관계와, 생산 직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로동보호 문제가 응당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생산직장을 물론하고, 로동보호에 대한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야 하겠습니다. 로동보호에 대한 모든 조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국가는 자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생산기업소 지도자들은 이것을 실행하여야 할 것이며, 직업동맹 단체들은 이에 대한 검열사업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생산기업소의 로동력의 류동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동력의 류동성을 퇴치하는 것으로써만은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은, 생산 기업소에 응당히 있어야 할 일정한 질서와, 자기가 맡은 사업에 대한 책임감과 엄격한 규률이 확립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소들에서는, 질서가 정연하고 책운 사업이 진행될 대신에, 무질서와 개인적 책임 회피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많은 사업에 대하여 책임을 질 대신에, 무책임하고 등한시하는 경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책임성과 개인적 책임 회피성은 유일관리제의 원칙을 아직도 경제기관 및 사회단체의 일부 지도일군들이 인식하지 못한데서 기인되는 것입니다.

유일관리제라함은 상(相)으로 부터 기능공에 이르기까지, 계획의 량적 및 질적 실행을 보장하는 전 사업행정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부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을 유말없이 제 기한에 실행하는 사업 작풍을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도자들은 아래 일군들과 협의하며, 그들의 요망과 제의를 참작하며, 그들의 창의성을 고무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로부터 일단 결정을 내릴 때에는, 그 결정은 아무런 지체도 없이 그대로 실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유일관리제를 옳지 못하게 리용하여, 옳지 못한 명령, 비법적 행사를 강행하는 것을 그냥 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공장 지배인이 옳지 못한 명령을 할 때에는, 그들 상부에 반영시키며, 옳지못하다는 것을 그에게 지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illegible]개 지시나 명

명서는, 그의 실행 여부에 대한 일상적인 검열을 실시하는 때에야만, 그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일관리제는 각생산기업소와 기관의 사업을 개선시키며, 계획실행을 보장하며, 원가를 저하시키며, 로동능률을 제고시키며, 불합격품 생산과 생산기업소의 작업 휴전을 적게 하며, 원료 자재를 절약하며, 시설품을 애호하며, 정당한 로동조직과 임금 조절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실시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과업들을 실행하기 위하여서는, 전체 로동자들과 기술일군들을 동원하며, 그들의 창발성을 리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유일관리제는 전체 기술지도일군들과 전체 로동자들의 엄격한 로동규률이 확립되는 때에야만 완전히 실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일군들은 우선 자기 자신의 엄격한 규률과 행동으로써 전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그 실례로서 흥남비료공장 지배인이 상부의 四만톤 증산 명령을 위하여 노력하듯이 명령 집행에 충실하며, 또한 수풍발전부 지배인과 기자장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국가 재산을 사랑하는 희생적 정신으로써 솔선하여 우수한 로동자들과 같이 곤난을 무릅쓰고 물에 뛰어들어가서 「페루마 호스」 공사를 완성한 사실들은, 다 지배인이 규률과 모범을 보인 좋은 실례들입니다.

유일관리제와 엄격한 규률은 인민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인민경제의 성과적 발전, 특히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산업 발전은 유일관리제 원칙과 엄격한 로동규률을 준수함으로써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국가는 지도일군들에게 막대한 국가자원을 맡겨 주었으며, 이와 동시에 국가는 큰 지도일군이나, 적은 지도일군을 물론하고, 그들에게 맡긴 자원을 보호하며, 국가와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자원을 최대한도로 리용할 것을 법령 그대로 엄격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감과 거대하고 복잡한 과업은 각생산기업소와 기관에 유일관리제 원칙과 엄격한 로동규률이 확립되는 때에야만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의 식민지 통치 三十六년 동안에 조선 사람은 기술로동에 참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사, 기수, 기능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 우리에게 첫과업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복구된 산

업과 새로 건설된 기업소들은 거대한 잠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위력을 우리는 원만히 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건설하여 놓은 고귀한 시설과 기계, 아그레가트의 최대의 실효를 얻기 위하여서는, 현대 과학과 기술 수준에서 생산행정을 조직할 수 있는 기능공들과 기사 기수들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로동자 기술일군들은 부단히 생산 기술 행정을 학리적으로나, 실습적으로 연구하며, 우수한 기업소의 사업과 부리가다 및 로동자들의 경험을 광범히 보급시켜야 하겠습니다.

산업성은 경리 재정 생산기술에 대한 광범한 지식을 공장 지배인, 기사장, 공장장, 기술공들에게 배양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는 최단기간에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수준을 비약적으로 제고시켜야 하겠습니다. 국가 산업부문우, 이 중요한 과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산업의 발전과 기업소들의 성과적 사업은 지도일군들에게 많이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옳게 지도하기 위하여서는 자기 사업에 능수가 되며, 주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업소 지도일군들은 비단 로동자들과 기술일군들 속에서만 학습을 조직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꾸준히 학습하여야 하겠으며, 과학기술을 습득하는 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국가의 리익에 충실하며, 진보를 지향하며, 창발성을 발휘하는 젊은 인재들을 용감히 지도사업에 등용하며, 그들의 발전을 전적으로 방조하여 주어야 하겠습니다. 결국, 사업의 성과는 생산 기술을 소유한 인재가 해결할 것입니다.

여러분! 산업의 장래 발전은 원료 자재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엄격한 절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지도일군들은 아직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국가 자원을 중요시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매개 기업소에서 적은 수량의 자재와 금액이 절약되는 것은, 전국가적으로 보면 거대한 로동자원을 이룬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겠습니다. 례를 들면 一%의 생산품 원가 저하가 많지 않은것 같지만, 산

업성 전체적으로 타산하여 본다면, 약 二억원에 달합니다.

우리는 모든것에 있어서 절약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원료, 자재, 연료, 전력, 도구 등의 소비를 절약하며, 고가의 물자를 렴가의 물자로 교대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원료와 물자에 대한 소비기준을 제정하며, 그의 효과적인 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통계사업을 조직하여야 하겠습니다. 소비경향은 비단 지도일군들과 기술일군들만 아니라, 직접 집행하는 자들도 이를 정확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장 시설 및 아그레가트의 휴전과 많은 불합격품 생산은 도저히 용허할 수 없으며, 기계 사고는 생산의 큰 타격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생산을 제고하며, 원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므로 기계 사고를 방지하며, 불합격품 생산을 적게 하며, 휴전률을 적게 하는 투쟁을 과감하게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기 위하여서는 사고를 초래하게 한 원인을 자세히 알며, 그것을 앎으로써 사고를 퇴치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사고와 불합격품 생산을 내게 한 책임자들은 사회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재산과 시설 및 귀중한 물질에 대하여 모든 일군들로 하여금 자기의 개인 재산과 같이 애호할 것이며, 그를 파손 방화 략취로부터 보호해야 할 것이며, 이 사업은 경제 기관과 사회단체 및 모든 기관에서 일하는 일군들의 중대한 임무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문제가 제기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과거 일본놈들의 소유이던 공장 기업소와, 오늘에 와서는 전인민의 소유로 된 공장 기업소에 대한 근본적 차이를 리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과거에 조선 로동자가 일본놈 주인 앞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비능률적으로 일하면서 기계시설들을 파괴하며, 불합격품과 사고를 많이 내었다면, 그것은 생산수단이 로동자의 것이 아니고 일본 제국주의의 소유로서, 착취와 억압을 더욱 강행하는 데 리용되는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가장 옳았으며, 우리는

이것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공장 기업소들이 전인민의 소유로 된 오늘에 와서는, 소유와 로동에 대한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였습니다. 국영 기업소에서 일하는 로동자는 자기와 저 조선 인민을 위하여 로동하는 것이며, 기업소에서 로동자들이 생산하는 모든것은 일본 자본가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데 소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장들에서 생산품을 더 많이 생산할수록 인민들의 물질적 생활 수준은 급격히 향상될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인민의 소유로 된 공장 기업소들을 잘 경리하지 못하며, 그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갖는 것을, 우리는 참을 수 없습니다. 공장 기업소에서 일하는 전체 일군들에게 이 사실을 쉴 사이 없이 해석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약에 있어서 더 알아야 할 것은, 생산행정에서 생산품을 만들고 남긴 잔여물(폐물)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것도, 역시 절약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생활 필수품 소비에 있어서 많은 곤난을 느끼고 있으나, 생산기업소들에서는 이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극히 적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면에 생활 필수품들을 생산하는 데 능히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잔여물들이 매 공장마다 가득가득 남아 있습니다.

국가계획위원회는 산업성과 함께 매 기업소에서 남긴 잔여물들로써 생활필수품을 만들 제품의 목록과 그의 수량을 정하고, 래년 一·四분기부터 그 제품생산을 조직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의 자연적 기후 조건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부단한 노력에 의하여 농촌 경리는 인민들에게 식료품을 공급하며, 산업에 원료를 공급하는 과업들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필요한 비상미곡들을 저축하게 하였으며, 부분적 종별 로동자들에게 대하여서는 배급량을 높인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실례로 용광로에서 일하는 조강부문의 로동자들의 배급을 일급으로 올려놓도록 할 수 있으며, 기타 종별에서도 급수를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성에서는 앞으로, 로동자들의 공급을 더욱 높이기 위한 새로풍을 확보하는 주요 대책의 하나로서 물일간 기업소들의 부속경리를 포함한 로동공급부를 설치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기업소마다 로동자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속경리(채소업 목축업 등)를 가지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기업소들에서 공동식당들을 많이 확장하며, 그것을 질적으로 향상하여야 하겠습니다.

산업은 농촌경리에 대하여·빚을 지고 있지 말고 농민들에게 요구되는 농구와 비로를 공급함으로써 그들의 로동을 헐케 하며, 농산물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생산 잔여물들을 대량적으로 리용하면서 보섭, 삽, 파종기, 비료 등 기타 제품들을 대량적으로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업소 사업 향상에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되고 있는 증산경쟁 운동을 대중적으로 조직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직, 어떤 기업소 책임자들은 이 사업에 무관심합니다.

그들은 이런 증산경쟁 운동은 직업동맹에서만 하는 일인 줄 알고, 기업소 책임자들은 아직, 이에 주의를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소 책임일군들은 직맹단체와 협력하며, 증산경쟁을 조직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각기업소, 각직장, 각 부리가다, 및 매개 로동자들 간에 증산경쟁이 광범히 전개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쟁은 형식적이 아니고, 그 서약이 구체적이어야 하며, 일상적으로 서약의 실행 여부를 검열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회의에서 토의하는 때에야 효과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수한 로동자와 부리가다들은 각 직장과 공장들에서 널리 찬양되어야 하며, 공장 및 도시의 출판물에 그들을 널리 선전하며, 그들의 사업 경험을 각부문에 널리 소개하여야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 직맹단체에게 큰 역할이 부담됩니다. 주권이 인민에게 있고 공장 기업소들이 인민의 소유로 된 우리 공화국에 있어서, 직맹단체의 사업은 국가와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새롭게 조직되어야 하겠습니다.

직맹단체들은 군중을 국가 계획 실행에 동원하는 사업을 강화하며, 군중들을 국가재산과 귀중한 물자를 애호하는 사상으로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 직맹단체들은 로동 및 생산규률을 강화하며, 유일관리제를 강화하는 데 협조하여야 하겠습니다. 직맹단체들은, 지금 군중의 증산경쟁을 광범히 전개하며, 우수한 일군들을 출판물 라디오 등 기타 방법을 통하여 소개하는 사업을 조직하여, 공장과 각 직장들에서 생산협의회를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우수한 기업소와 우수한 직장과 부리가다와 로도자들을 물질적으로 표창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불할 것입니다. 직맹단체들은 기업소 책임자들과 함께, 앞으로, 기업소의 사업을 향상시키는 주요한 방법으로 되는 표창사업에 이 자금을 옳게 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업동맹단체들은 로동자들의 주택 문화 생활 수준 제고에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로동법령과 로동보호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준수하는가를 감독하여야 하겠습니다. 직업동맹단체들은 사업의 결점에 대한 전전한 비판과 자아비판을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권이 인민에게 장악되어 있는 조건 하에 있어서, 경제기관과 직맹단체들의 과업은, 물론 한가지 목적인 공화국을 공고 부강케 하며, 전인민의 물질적 복리와 문화 수준을 개선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상술한 바로부터 출발하여 산업의 모든 사업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가까운 장래에 다음의 과업들을 실천하여야 하겠습니다.

一、새로운 사업 환경에 비추어 기업소들에서 로동자들을 확보함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로동자들이 저절로 들어오리라는 생각을 버리고, 정확한 도급제를 실시하며, 주택 생활 조건을 개선하며, 상품들을 로동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로동력이 기업소에 류입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놓으며, 이미 들어왔던 로동자들을 류동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二、기업소에서의 로동조직을 개선하며、각부문에서 유일관리제를 강화하며、로동규률과 생산규률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三、산업에 요구되는 항구적인 기능공들과 기사 기수들을 확보하며、경제 지도일군들로 하여금 자기 사업을 현대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적 교양을 그들에게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

四、대중의 창의성과 창발성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며、대중의 창조와 인재들을 육성시켜야 하겠습니다。

五、국가의 보충적 자원의 원천으로서、또는 생산품의 원가를 저하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엄격한 절약을 도처에서、모든 사업에서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

六、기업소에서 생활 필수품 생산을 조직하며、또한 농민에 필요한 경작기구、농구、잡화 등 생산을 대대적으로 증가하여야 하겠습니다。

七、산업 발전 속도를 더욱 급속히 보장하는 사업에 광범한 대중을 참가시킴에 필요한 조건으로 되는 생산경쟁을 널리 전개할 것이며、직맹단체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시켜야 하겠습니다。

八、사업에서의 관료주의와 해이성과 책임회피와 무책임성을 근절하며、인민대중을 우리 국가의 리익을 보호하는 사상으로 교양하는 방법으로 되는 비판과 자아비판을 광범히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九、우리 나라에는 인민적 국가에 대하여 적대적 경향을 가진 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산업 발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그와 반대로 남조선 반동파에 의거하여 적대 분자들은 싸보따쥬 및 파괴 등 갖은 수단을 다하여 산업 발전과 인민 국가의 공고화를 방해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각성을 가일층 높이어、적이 어떻게 가장한다 할지라도 그를 적발할 줄 알며、또 인민정권을 통하여 적을 근절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민적 국가의 원수에게 대한 증오심을 인민들에게 꾸준히 배양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훨씬 훌륭히 일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례를 들면 철도운수 종업원들은 매달 국가계획을 실행하고 있는데、산업일군들은 그보다 못하게 일할 수 없으며、또한 못하게 일할 근거가 없습니다。

산업은 인민경제의 주도적 부문입니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의 성공적 발전은 산업발전에 달려 있습니다。 전체 산업일군들은 인민과 국가 앞에서 자기가 지는 책임을 깊이 인식하며、자기의 사업을 상당히 개선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또 그를 실현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과업은 실로 중대하여졌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면서、어떤 조건을 물론하고 二개년 국가 계획 실행을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들의 주구 리승만 도당들은 남조선의 민족경제를 파괴하고、남조선을 미국인의 상품시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실업자는 수백만으로 초과하고、남반부 인민들은 빈궁과 기아에서 매일 같이 비참에로 헤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나라의 전도와 장래를 결정하는 우리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함으로써만이 북반부 인민들의 물질생활을 더욱 향상할 수 있으며、남반부 인민들을 구원하고 파괴된 경제를 급속히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일층 노력하여、새 환경과 새 조건 하에서 우리의 사업을 일신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국가와 정권이 인민들의 손에 있고、전체 인민들과 조국전선에서 당신들을 받들어 주고 있으며、우수한 선진적 과학과 기술을 가진 우리의 해방자 쏘련이 우리를 원조하여 주고 있는 모든 유리한 조건 하에서 어떠한 곤난이 있더라도 그를 다 극복할 수 있으며、승리를 꼭 쟁취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갑시다。

(일동 총기립、우뢰와 같은 박수、오래 계속)

수개국 공산당 보도국 회의에 대한 콤뮤니케

十一월 하순에 항가리에서 보도국 회의가 진행되었는바 거기에는 불가리야 공산당 대표 브·체르웬꼬브, 브·뽑또모브동무들, 루마니아 로동당 대표 게오르기우·데스, 이·끼시넵쓰끼, 아·모기오로스동무들, 항가리 근로자당 대표 므·라꼬시, 예·게레, 이·레와이, 야·까다르프동무들, 파란 통일 로동당 대표 야·베르만, 아·자와드쓰끼동무들, 쏘련 공산당(볼쉐위끼)대표 므·쑤쓸로브, 쁘·유진동무들, 불란서 공산당 대표 스·쥬클로, 예·파쇼크, 스·꼰니오동무들, 체코슬로바키야 공산당 대표 르·쓸란쓰끼, 스·바스따왈쓰끼, 르·꼬쁘르시위, 브·게민데르동무들, 이태리 공산당 대표 쁘·똘리야치, 예·도노프리오, 아·치깔리니동무들이 참석하였다.

동회의에서는『평화옹호와 전쟁 방화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이라고 제목한 므·쑤쓸로브의 보고와『로동계급의 통일과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과업』이라고 제목한 쁘·똘리야치의 보고와『도살자 및 간첩들의 정권 하의 유고슬라비야 공산당』이라고 제목한 그·게오르기우·데스동무의 보고를 청취하였다.

회의 참가자들은 청취한 보고들에 의하여 의견을 교환한 결과, 견해의 완전한 합의를 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결정을 만장 일치로 채택하였다.

평화 옹호와 전쟁 방화자들을 반대하는 투쟁 (보도국의 결의문)

불가리야 공산당, 루마니야 로동당, 항가리 근로자당, 파란 통일 로동당, 쏘련 공산당(볼쉐위끼), 불란서, 공산당, 이태리 공산당, 및 체코슬로바키야 공산당은 평화 옹호와 전쟁 방화자들을 반대하는 투쟁 문제를 토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서 일치 합의를 보았다.

최근 二년 간 정세는 一九四七년도 九월 공산당 및 로동당 보도국 제一차 회의에서 판정한바 국제정

세에 대한 분석의 정당성을 완전히 립증하였다.

이 기간 세계 정책에서 쏘련을 수반으로 한 민주주의적 반제국주의 진영, 즉 인민들 간의 평화를 위하여, 민주주의를 위하여 시종일관한 투쟁을 강력하게 진행하는 진영과 미국 지배층을 수반으로 한 제국주의적 반민주주의 진영, 즉 영 미국의 세계 패권을 강제적으로 확립시키며, 다른 국가 및 인민들을 예속시키며, 민주주의를 말살하며, 새 전쟁을 도발할 것을 자기의 기본 목표로 하는 진영 등 두가지 로선은 더욱 명백하게 로골적으로 표명되었다. 여기에서 제국주의 진영의 침략성은 계속 강화되고 있다. 영 미국 지배층은 침략 및 새 전쟁 준비 정책을 로골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제국주의와 전쟁 진영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평화와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력량이 장성 강화되었다. 쏘련의 위력의 금후 장성, 인민민주 제국의 정치 및 경제적 확고와 사회주의 건설 착수, 국내 반동과 미 제국주의의 공동 세력에 대한 중국 인민 혁명의 력사적 승리, 독일 민주공화국 수립, 자본주의 제국에서 공산당의 강화와 민주주의 운동 장성, 평화 옹호 운동의 대규모 발전 ―― 이 모든 사실들은 반제국주의적 민주 진영의 확장 강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 반면에 제국주의적 반민주주의 진영은 약화되어 가고 있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력량의 장성, 박두하여 오는 경제공황, 자본주의 체계에 있어 전반적 위기의 금후 첨예화, 그 체계의 내부적 또는 외부적 모순의 첨예화 등은 제국주의가 점점 더 쇠약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국제 무대에서 二개 력량의 비례가 평화와 민주주의 진영에 유리하게 변경된 사실은 제국주의적 전쟁 방화자들의 발광적 발악을 일으키고 있다.

영 미 제국주의자들은 전쟁 방도로써 력사발전 행정을 변경하며, 자국의 내부적 또는 외부적 모순과 난관을 해결하려고 하며, 독점 자본의 진지를 확보하며, 세계의 패권을 잡으려고 예산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세월이 저들에게 불리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각오하면서 자기의 침략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각종 반동 뿔럭과 동맹을 하누바삐 조작하기에 광분하고 있다.

영 미 제국주의의 뿔럭의 모든 정책은 일체로 새 전쟁 준비에 봉사하고 있다.

그 정책은 대독 및 대일 관계에 있어서 평화 조정을 파탄시킴에 표현되었으며, 독일의 분렬을 완성함에서와 서부 독일과 괴군, 점령한 일본을 파시즘과 복수의 기지로 변하며, 동뿔럭의 침략수의 계획 실천을 위한 련병장으로 되게 함에서 명백히 표현되고 있다. 전체 평화애호 인민들을 반대

하는 마샬의 예속적 계획과 그의 직접 계승인 서구동맹과 북대서양 군사, 뿔럭, 미국과 서구 제국에서의 열광적 무장, 경쟁, 군비 예산 증가 및 미국 군사기지 확장 등도 역시 그 정책에 봉풍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원자독점에 대한 전설이 전복된 것도 불구하고 영 미 뿔럭 측에서 원자무거 금지를 거절하는 것이라든가 각종 군사 히스떼리를 도발하는 것도 역시 그 정책의 표현인 것이다. 유·엔을 파탄시키어 미국 독점 자본의 무기로 만들려는 방향의 로선을 유·엔에서 영 미 뿔럭이 취하는 것도 역시 그 정책으로써 구명되는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 방화 정책은 또한 라이크－브란꼬브에 대한 부다페스트 공판에서 폭로된 음모에서도 나타났는바 그 음모는 영 미 층이 국제 제국주의적 반동의 주구로된 파시스트 민족주의적 짜또 도당의 원조로써 인민민주주의 국가들과 쏘련을 반대하여 조직된 것이다.

새 전쟁준비 정책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인민 대중에게 있어 감당할 수 없는 세금 부담의, 부단한 증가와 근로 대중의 빈궁의 장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반면 군비경쟁에서 독점자본이 막대한 리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박두하고 있는 경제공황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근로자들에게 보다더 커다란 빈궁과 실업과 기아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와, 함께 전쟁 준비 정책은 인민대중의 초보적인 생활권리와 민주주의적 자유에 대한 제국주의 지배층의 부단한 침범과 관련되어 있으며, 사회 정치 및 사상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의 반동의 강화와 관련되어 있으며, 또 인민들의 진보적 및 민주주의적 력량에 대한 파시스트적 탄압 방법의 적용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제국주의적 부르죠아지는 이러한 방책으로써 강탈적 전쟁을 위하여 후방을 준비하려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 영뿔럭은 파시스트 침략자들처럼 각방면으로 즉 전쟁－전략상 대책, 정치적 억압과 공갈, 경제적 팽창정책과 인민들에 대한 예속정책, 대중에게 대한 사상적 기만, 반동의 강화 등 방면으로 새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의 두목들은 제국주의의 진영과 사회주의의 진영 간의 세력의 실질적 호상 비례를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세계 전쟁 방화와 세계의 패권을 쟁취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새 계 제패에 대한 계획은 히틀러 도배들과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계획보다도 더 무근거한 것이며, 모험적인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명백히 자기와 세력을 과대

평가하고 있으며, 반제국주의 진영의 자라나는 력량과 조직성을 과소 평가하고 있다. 현재 력사적 환경은 제二차 세계 대전이 준비되던 환경보다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오늘날의 국제 정세 하에서 전쟁방화자들이 자기들의 류혈적 계획을 실현하기가 비할데 없이 곤난하게 되었다. 「인민들의 기억 속에는 얼마 전의 전쟁의 공포가 너무나 생생하며, 평화를 고수하는 사회적 력량은 침략에 관한 처칠의 제자들이 그 력량을 극복하고 새 전쟁편으로 이끌어 넣기에는 너무나 그 력량이 거대하다」(이·쓰딸린)

인민들은 전쟁을 바라지 않으며, 전쟁을 증오시한다.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이 인민들을 어떠한 무서운 낭떨어지에 떨어 넣으려고 시도한다는 것을 더욱 더 깨닫고 있다.

쏘련과 인민민주주의 국가들과 국제 로동운동과 민주주의 운동이 새 전쟁 방화자들을 반대하며, 평화를 옹호하고 인민들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진행하는 꾸준한 투쟁은 세계 각국 인민의 광범한 층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나날이 더욱 더 받고 있는 것이다.

여기로부터 평화 옹호자들의 강력한 운동의 발전을 보게 되는 것이다. 자기의 대렬에 六억 이상의 인사들을 련합한 이 운동은 전세계 각국을 망라하여 전쟁의 위협을 반대하는 새 투자들을 자기 대렬로 인입시키면서 점점 더 확장되며, 장성되고 있다. 평화 옹호자들의 운동은 인민 대중이 평화를 고수하며, 전쟁을 미리 방지하려는 불굴의 자기의 의지를 시위하면서 평화 옹호 이 위업을 자기 수중에 틀어쥐는 충분한 객관적 토지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영 미 국가를 수위로한 제국주의의 국가들이 준비하는 새 전쟁의 위험을 과소 평가한다면 그는 평화 사업에 대하여 오유와 해독으로 될 것이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력량의 거대한 장성이 평화를 위하는 진정한 투자들의 대렬 가운데서 어떠한 자만성을 환기하여서는 안된다. 전쟁의 위협이 마치 감소된 듯이 생각한다면 이는 심각한 또는 용허할 수 없는 오유로 된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될 것이다.

제국주의적 반동들의 일이 희망이 없어질수록 그들은 더욱더 광포하게 발악하며, 전쟁모험의 위험성은 더 장성된다는 것을 력사적 경험은 가르치고 있다.

오직 모든 힘과 모든 수단으로써 평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려는 인민들의 굳은 결심과 그들의 무한한 경각심만이 새 전쟁방화자들의 범죄적 흉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다.

새 전쟁의 위협이 점점더 강화되는 현하 환경에서 공산당과 로동당의 어깨에는 위대한 력사적 책임이 지워져 있는 것이다.

견실하고 장구한 평화를 위하여서와 또 전쟁의 힘을 반대하는 평화적 력량의 조직과 결속을 위한 투쟁은 현재에 와서 공산당들과 민주주의적 단체들의 전체 사업에서의 반드시 중심적을 차지하여야 할 것이다.

인류를 새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구출하는 위대하고도 고귀한 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산당과 로동당 대표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자기의 중요 과업으로 삼는다.

一、평화 옹호자·운동에 주민들의 새로 새층들을 더욱 더 인입시키며, 그 운동을 전인민적 운동으로 변환시키면서 이 운동의 조직적 공고와 확장에 대하여 반드시 더 강력하게 일하여야 될 것이다. 평화 옹호자 운동에 직업동맹, 녀성동맹, 청년동맹, 협동조합, 체육단체, 문화—계몽단체, 종교단체 기타 사회단체들을 인입시킴에와 동시에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를 옹호하여, 진출하는 학자, 문사, 쩌날리스트, 문화활동가, 국회 및 기타 정치적 및 사회활동가들을 인입시킴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될 것이다.

오늘에 와서 종교적 신앙의 차이, 정치적 견지, 당별 동을 불문하고 평화를 위하여서와, 또 인류의 머리 위에 떠돌고 있는 새 전쟁의 위협을 반대하는 투쟁의 가장 광범한 정강에 기초하여 모든 진정한 평화 옹호자들을 집결하는 과제가 특별히 힘있게 나서는 것이다.

二、평화 옹호자들의 운동의 금후 확대를 위하여서는 그 운동에 있어서의 로동계급의 보다 더한 적극적 참가와, 그의 집결과, 그의 대렬의 유일성 등이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화 사업을 위한 투사의 대렬에 로동계급의 가장 광범한 층을 인입시키며, 로동계급의 확고한 유일을 조성하며, 평화와 자위 조국의 민족적 독립을 위한 투쟁의 일반적 정강의 기초 위에서 프로레타리아트의 각종 부대들의 공동적 진출 등을 조직하는 등은 공산당들과 로동당들의 제일의(第一義)의 과업으로 되는 것이다.

三、로동계급의 통일은 오직 로동 운동의 파괴자들과 우익 사회주의 분렬자들을 반대하는 결정적 투쟁에서만 쟁취할 수 있는 것이다. 분렬적 반인민적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우익 사회당원 베빈, 애틀리, 블룸, 허믈레, 쓰빠아크, 수마혜르, 렌네르, 사라가트 등과 반동적 직업동맹 두목들인 그린, 캐리, 작낀 등과 같은 자들은 로동계급의 유일에 대한 주요한 적들이며, 전쟁 방화

자들의 보조자이며, 자기의 번절적 행동을 가짜 사회주의적 끄쓰모뽈리찌즘의 말공부로써 엄폐하고 있는 제국주의의 충복으로 되는 것이다.

공산당과 로동당들은 평화를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면서·반드시 우익 사회당 두목들을 평화의 가장 악독한 적들로 보아 매일 그들을 폭로시켜야 될 것이다. 반드시 전수단을 다하여 사회당 하급 단체들과 그의 일반 당원들과의 협력과 유일 행동을 발전 강화시키며, 이 당들의 대렬 가운데서 진정하고 성실한 모든 분자들을 지지하며, 반동적 우익 지도자들의 정책의 멸망성을 그들에게 해석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四、공산당과 로동당들은 반드시 구라파주와 아세아 제국들을 류혈적 전지(戰地)로 전환시키려고 열망하는 침략자들의 인류 증오(人類憎惡) 선전에 반대하여 인민 간의 견실하고 장구한 평화에 대한 광범한 선전을 대립시키며, 침략적 뿔럭과 군사—정치동맹(첫째로 서부동맹과 북대서양 뿔럭)들의 진상을 꾸준히 폭로시키며, 새 전쟁이 인민들에게 참담한 불행과 형언할 수 없이 막대한 파괴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과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옹호하는 투쟁은 전세계 인민들의 사업으로 된다는 것을 반드시 광범하게 해석할 것이다. 영국과 미 제국주의 앞잡이들이 진행하는 전쟁 선전, 인종적 증오설, 및 인민 간의 적대심을 고취하는 모든 악선동들이 반드시 각나라에서마다 전체 민주주의적 사회층으로부터의 격렬한 규탄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새 전쟁 선동자들의 어떠한 진출이라도 진정한 평화 옹호자들의 반박이 없이 남겨두지 말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五、불란서와 이태리에서 널리 실용된 평화를 위한 대중적 투쟁 형태 즉 도시와 농촌 평화 옹호 위원회 진정서와 항의서의 작성, 주민들의 질의문 작성 등과 같은 효과적인 새로운 대중적 투쟁 형태들을 널리 리용하여야 할 것이다. 전쟁 준비를 폭로시키는 서적들의 출판과 보급, 평화를 위한 투쟁 기금으로의 재정·모집, 새 전쟁을 선전하는 영화, 신문, 잡지, 라디오, 회사, 기관 사회활동가들에게 대한 보이꼬트 조직 등—이 모든 사업은 공산당과 로동당들의 중요한 과업으로 되는 것이다.

六、자본주의 국가들에 있는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민족적 독립을 위한 투쟁과 평화를 위한 투쟁을 합류시키며, 침략적 미 제국주의의 직접적 앞잡이로 전화한 부르죠아 정부들의 정책의 반민족적 반역적 성격을 부단히 폭로시키며, 미 독점자본에 대한 노예적 복종에 표현되어 있는 수치스러운 예속을 청산하며, 인민들의 민족적 리익에 부

할되는 독자적 대외 대내 정책의 궤도에 돌아가라는 표어 주위에 국내의 모든 민주주의적 애국적 력량을 단합 집결시키는 것을 자기의 의무로 인정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들의 광범한 인민 대중을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도록 집결시키며, 평화 옹호는 로동계급과 근로 대중의 혈연적 리익의 옹호와 또 그들의 경제적 및 정치적 권리의 옹호와 긴밀히 련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민 대중에게 반드시 해설하여야 할 것이다.

불란서 이태리 영국 서부독일 및 기타 국가들의 공산당에는 중요한 과업이 부과되어 있는바, 이 국가들의 인민들을 미 제국주의 자들은 자기들의 침략 계획을 실현함에 있어서 대포밥으로 리용하려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평화를 옹호하며 영·미 전쟁 방화자들의 범죄적 음모를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한층 강력하게 전개시키는 것이 이 공산당들의 의무이다.

七、인민민주주의 국가 및 쏘련의 공산당과 로동당들에는 제국주의적 전쟁 방화자들과 그들의 졸도들을 폭로하는 동시에 평화와 인민들의 안전을 옹호하기 위하여 평화와 사회주의의 진영을 앞으로 더한층 강화하는 과업이 부과되어 있다.

八、영·미 제국주의자들은 트히 중앙 및 동남 구라파에서의 자기들의 침략 계획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제국주의자들에게 간첩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쩌또의 민족주의 도당에게 상당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평화 옹호 과업과 전쟁 방화자들을 반대한 투쟁의 과업은 평화,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의 악독한 원쑤들의 진영, 즉 제국주의와 파시즘의 진영으로 넘어간 이 쩌또 도당을 더한층 폭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세계에서의 평화의 성채이며 기수인 쏘련을 수반으로 하는 평화의 조직된 전선이 인류 력사에서 처음으로 발생하였다.

인민들은 세계에서 처음 보는 사회주의 국가인 쏘련에 반대하여 언제든지 전쟁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공산당들의 호소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인민 대중에 점점더 전파 확대되고 있다.

파시즘에 반대하는 전쟁 시기에 있어서 공산당들은 강점자들에 대한 전인민적 반항의 전위대였다. 전쟁기에 있어서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새 전쟁을 반대하여 자기 인민들의 생활적 리익을 옹호하는 선진적 투자로 되었다. 새 전쟁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근로자, 과학일군, 문화일군들은 로동계급의 지도 밑에 단결되었는 바 그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범죄적 음모를 파탄시킬 수 있다. 평

화를 위한 열렬한 대투쟁의 결과는 공산당들의 애네르기와 창발성에 관계되는 바가 많으며, 선진적 투사로서의 공산당원들에게는 전쟁 방화자들의 계획을 파탄시킬 가능성을 현실로 전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관계된다.

민주주의 세력, 평화 옹호자들의 세력은 반동 세력보다 훨씬 우세하다. 문제는 지금 전쟁 방화자들에 대한 인민들의 경각성을 더한층 제고시키며 인민들의 기본적 리익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생명과 자유를 위하여 평화 사업의 적극적 옹호에로 광범한 인민 대중을 조직하며 집결시키는 데 있는 것이다.

로동계급의 통일과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과업(보도국의 결의문)

一、영·미 제국주의자들이 진행하는 새 전쟁준비와,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 권리들과, 경제적 리익들을 반대하는 부르죠아 반동의 진출은 평화의 보전과 강화를 위하여 전쟁 도발자들과 제국주의의 반동의 침습에 대한 결정적 타격을 조직하기 위하여 로동계급의 투쟁을 강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투쟁에서의 승리의 담보는 로동계급 대렬들의 통일인 것이다.

、전후기의 경험은 새 전쟁을 도발시키며 민주정체와 사회주의의 력량을 진압하기 위하여, 또는 인민대중의 생활수준을 격렬히 저하시키기 위하여 제국주의자들이 적용하는 전술상 수단과 방법들 중에서 하나의 첫 자리를 로동운동 분렬정책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개별적 국가들에나 세계적 범위에서나 로동계급의 통일이 지금처럼 그렇게 결정적 의의를 가져본 일은 전체 국제 로동운동사에 아직까지 있어보지 못하였다. 로동계급 대렬의 통일은 평화를 고수하여 전쟁도발자들의 범죄적 모략들을 폭로시키며,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음모를 폭로시키며, 팟쇼적 통치방법들의 설정을 방지하며, 로동계급의 생활상 리익을 반대하는 독점 자본의 책동에 결정적 타격을 주며, 근로대중의 경제적 형편의 개선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이 과업들의 실천은 우선 당의 소속별, 직업동맹의 조직별, 종교적 신앙별을 불문하고 로동계급의 광범한 대중을 결속시키는 기초 위에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하부로부터의 통일──이것이 즉 평화 옹호와 자국의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근로자들의 경제적 리익과 민주주의적 권리들을 위하여 로동자들을 결속시키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인 것

이다。 분렬파들과 통일의 적들이 지도하는 직업동맹들과 당들의 지도적 중앙의 반대 작용을 불구하고 로동계급의 통일은 완전히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전후기는 로동계급의 분렬 행동을 숙청하고 일반 민주세력들을 결속시키는 사업에서 큰 성과를 보였는바, 이에 대한 표현은 국제직업련맹, 국제민주녀성련맹, 국제민주청년련맹 등의 창설과 세계 평화옹호대회의 소집인 것이다。 통일에서의 성공들은 불란서 전국로동련맹이 강화하여가고, 이태리 유일직업동맹 련합이 창설되고, 불란서와 이태리 프로레타리아트가 전투적으로 진출하고 있는데서 표현되었다。

인민민주주의 제국에서는 로동계급을 통일시키는 사업에서 력사적 성과를 쟁취하였는바 즉 로동계급의 유일한 당, 유일한 직업동맹, 유일한 협동조합단체, 청년단체, 녀성단체 및 기타 단체들이 창설되었다。 이러한 로동계급의 통일은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경제적 및 문화적 향상을 위한 사업에서와 국가 내에서 로동계급의 지도적 역할을 보장시키며 근로대중의 물질적、형편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사업에서 성과들을 달성함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 모든 것은 자기의 대렬을 견속시키려는 로동대중의 거대한 열망에 대하여와 미제국주의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우익 사회당원들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반동 련합세력들을 반대하여 로동계급의 유일 전선을 조성할 수 있는 모든 현실적 가능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말하여 주는 것이다。 미영 제국주의자들과 구라파 국가들에 있는 그들의 충복들은 우익 사회당원들과 반동적 직업동맹 활동가들에게 특별한 기대를 붙이면서 프로레타리아 력량과 전체 인민의 력량을 분렬 와해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직접적 지시에 의하여 우익 사회당 령수들과 직업동맹들의 반동적 활동가들은 상부로부터 로동운동의 대렬에 분렬을 가져오며, 전후기에 창설된 유일한 로동계급 단체들을 파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들은 국제직련을 그 내부로부터 파괴시키려고 도모하였으며, 불란서에 「포르쓰·우브리예르」의 분렬파들과 이태리의 소위 「로동련맹」을 조직하였으며, 분렬과 국제직업동맹 중앙의 창설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분렬적 시도들은 개별적 국가들에 있어서 카톨리크단체 지도자들에 의하여도 감행되었던 것이다。

수개국 공산당 보도국 제一차、회의에서 로동계급의 가장 악독한 원쑤로서와 제국주의의 보조자들로서의 우익 사회당 두목들의 반역적 행동에 대하여 지적한 평가는 전적으로 인증되었다。

우익 사회당원들은 지금 자국 부르조아의 앞잡

이로서만이 아니라 미 제국주의의 앞잡이로까지 출현하고 있으며, 구라파제국의 사회민주당들을 미국의 당으로, 미 제국주의 침략의 직접 도구로 만들고 있다。

우익 사회당원들이 정부의 성원으로 들어가 있는 나라들(영국, 불란서, 오태리, 쓰깐지나비야 국가들)에서는 그들이 「마샬안」, 「서부동맹」, 「북대서양 조약」 및 기타 모든 형식의 미국 팽창주의 정책들에 대한 완악한 옹호자로 진출하고 있다。

이 가짜 사회당원들은 근로자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로동단체들과 민주주의의 단체들을 탄압하는 사업에서 가장 추악한 역할을 실행하고 있다。 로동계급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의 리익을 반역하는 길로 점점더 멀리 들어가고 있으며, 맑쓰주의 학설과 전부 인연을 끊으면서 우익 사회당원들은 지금 미 제국주의의 강도적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며 선전하여 나서고 있다。 『민주주의적 사회주의』, 『제三 세력』에 대한 그들의 리론과 민족적 자주권 거부의 필연성에 대한 그들의 꼬쓰모뽈리찌즘적 망상들은 미 영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엄폐에 불과한 것이다。

매장된 제二인터나쇼날의 비렬한 축현, 소위 국제사회주의의 꼼페렌치야들의 위원회(꼬미쓰꼬)는 로동운동의 악독한 분렬자들과 파괴자들의 집합소로 변하였다。

이 조직은 영 미 탐정들에게 복무하는 간첩의 중심 기관으로 되었다。

로동운동에서의 우익 사회주의 분렬자들과 파괴자들을 반대하는 결정적인 투쟁에서만 로동계급의 통일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이다。

보도국은 영 미 제국주의자들의 파렴치한 강요에 대하여 강력한 반격을 주며, 새 세계전쟁에 대한 그들의 도발을 파탄시키고, 평화와 국제 안전사업을 고수 강화하고, 근로대중의 생활수준에 대한 독점자본가들의 공격을 좌절시키기 위하여는 로동계급의 모든 력량을 단결 조직하는 꾸준한 투쟁이 공산당들의 급선무라고 인정한다。 현하 국제환경에 있어서 공산당들의 직접적인 의무는 만약 로동계급이 자기 대렬의 통일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로동계급은 성장하여 가고 있는 새 세계전쟁의 위협을 반대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에 대한 제국주의의 반동의 공격을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를 상실한다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즉 그것이다。

공산당원들은 리론에 있어서나 또 실제에 있어서 우익 사회당원들과 반동적 직업동맹 활동가들을 반대하는 타협없는 철저한 전쟁을 실시하면서, 또 그들을, 무자비하게 폭로하고 그들을 대중으로

부터 고립시키면서 인내성있게, 또 꾸준히 사회민주주의적 일반 로동자들에게 로동계급의 통일사업의 모든 중요성을 해설하여 주어야 하며, 그들을 평화와 빵과 민주주의적 자유를 위한 적극적인 투쟁에 이끌어 넣으며, 이 목적들의 달성을 위한 공동적 진출 정책을 실시하여야 된다.

로동계급의 통일을 실현하는 시련된 방법은 로동계급의 여러 분대들의 행동을 통일하는 것이다. 개별적 기업소에서, 생산의 전체 부문에서, 도시 및 주(州)규모에서, 전국가적 및 국제적 범위에서의 합의된 공동적 진출은 광범한 대중을 그들의 가장 가깝고 리해할 수 있는 요구를 위한 투쟁에 동원하며 프로레타리아 대렬의 항구적 통일을 확립하는 사업에 이바지한다.

하부로부터의 로동계급의 행동통일의 실현은 기업소와 기관에 있어서 평화옹호위원회의 창설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전쟁방화자들을 반대하는 대중적 시위운동의 조직에서, 또 민주주의적 권리옹호와 자기의 경제적 형편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로동자들의 공동적 진출에서 나타날 수 있다. 종교적 신념은 근로자들의 통일의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여 특히 이 통일이 평화를 구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로동계급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카톨리크 로동자들 및 근로대중파, 또 그들의 단체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적 요구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공동행동, 계급적 및 카톨리크 직맹들 간의 투쟁의 조종 등은 카톨리크 로동자들을 평화를 위한 공동투쟁전선에 인입시키는 실효적인 수단으로 될 수 있다.

매개 자본주의 국가들의 공산당들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직업동맹 운동의 통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이 할만한 그 모든 것을 다하는데 있다. 현재에 있어서 직업적으로 조직되지 않은 로동자들을 직업동맹에 인입시키며, 적극적인 투쟁에 인입시키는 것은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로동자들이 프로레타리아트의 현저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만약 공산당들이 진실로 비조직 로동자들과의 사업을 전개한다면 로동계급의 통일을 달성하는 사업에 있어서 커다란 성과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보도국은 로동계급의 통일을 기초로 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을 영 미 제국주의 및 내부적 반동파와의 투쟁에 동원할 목적으로 모든 민주주의적 력량의 민족적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각종 대중적 단체, 즉 녀성, 청년, 농민, 협동조합 및 기타 단체에서의 매일매일의 사업은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로동운동의 통일과 모든 민주주의의 력량의 단결은 비단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당면한 매일매일의 과업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독점자본가들의 정권을 전복시키고 사회의 사회주의적 재건을 위한 투쟁을 지도하는 계급으로서의 프로레타리아트 앞에 나서고 있는 근본적 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서도 필요한 것이다.

로동운동 대렬의 통일과 모든 민주주의적 력량의 단결 사업에 있어서 달성된 성과를 기초로 하여 미 제국주의에 의한 자기 나라의 예속화를 반대하는 모든 애국적 력량을 단결하며, 인민들 간의 견고한 평화의 정강에 립각하며, 군비 경쟁을 페지하며, 또 근로대중의 생활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부들의 수립을 위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투쟁의 전개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공산당과 로동당들의 앞에는 달성된 로동계급의 통일과 창설된 유일직맹, 협동조합, 녀성, 청년단체 및 기타 단체들을 보다 더 공고히 하는 과업이 나서고 있다.

보도국은 로동계급의 통일과 민주주의적 력량의 단결을 위한 투쟁의 금후 성과는 우선 매개 공산당과 로동당의 모든 조직적 및 사상적 사업의 개선에 달려있다고 인정한다.

공산당과 로동당에 한하여서는 각종 궤변주의, 종파주의, 부르죠아 민족주의를 사상적으로 폭로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하는 것과 원쑤의 앞잡이들이 당내에 잠입하는 것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이 커다란 의의를 가졌다.

찌또, 란꼬비츠 간첩 도배 폭로사건의 교훈은 공산당과 로동당들로 하여금 혁명적 경각성을 최대한도로 제고할 것을 강경하게 요구한다. 찌또 도배의 앞잡이들은 현재 로동운동 및 민주운동 대오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의 의지를 실현하고 있는 흉악한 분파역을 리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물론하고 그 앞잡이들이 로동단체 및 민주단체들에서 활동하려고 시도하는 데서 마다 그들의 간책을 분쇄하기 위하여 반드시 결정적 투쟁이 요구되는 것이다.

맑쓰—레닌주의 원칙에 립각하여 공산당과 로동당들을 조직적 및 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는 것은 자기의 대오를 통일하기 위하며, 평화위업을 위하며, 자국의 민족적 독립을 위하며,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성과적 투쟁의 주요 조건으로 된다.

도살사 및 간첩들의 정권하의 유고슬라비야 공산당(보도국 결의문)

불가리야 공산당, 루마니야 로동당, 항가리 근로자당, 파란 통일로동당, 쏘련공산당(볼쉐위끼), 불란서 공산당, 체코슬로바키야 공산당, 및 이태리 공산당 대표들은 성원으로한 보도국은「도살자 및 간첩들의 정권 하의 유고슬라비야 공산당」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다음과 같은 결로에 대하여 만장 일치로 합의하였다。 만일 一九四八년 六월 공산당 보도국 회의에서 찌또—란꼬비츠 도배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로부터 부르죠아 민족주의에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보도국의 그 회의 이후 시기에 있어서는 그 도배들이 부르죠아 민족주의로부터 파시즘으로 넘어갔으며 유고슬라비야의 민족적 리익을 직접 배반하는 데로 넘어갔다。

최근의 정황들은 유고슬라비야 정부가 외국 제국주의 층에 완전히 예속되였고 그들의 침략 정책의 도구로 변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유고슬라비야 공화국의 자주성과 독립을 말살하는 데 이르게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유고슬라비야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정부는 전체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진영을 반대하며, 전세계 공산당들을 반대하며 인민민주의 제국가들과 쏘련을 반대하여 제국주의 층들과 완전히 합작하고 있다。

벨그라드의 고용 간첩 및 도살자 도배는 제국주의 반동파의 공모책을 로골적으로 실천하였으며, 부다페스트에서 진행된 라이크—브란꼬브 공판에서 명백히 발로된 바와 같이 그 제국주의 반동에 복무하는 데로 넘어갔다。

그 공판은 현하 유고슬라비야 통치자들이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진영으로부터 자본주의 및 반동 진영으로 넘어갔으며, 새 전쟁방화자들의 직접 보조자로 되었으며, 자기의 반역적 행위로써 제국주의자들의 찬양을 받으며 그들에게 봉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찌또 도배들이 파시즘에로 넘어간 것은 우연한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폭로된 바와 같이 그 도배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들을 고용하여 온 상전 즉 영 미 제국주의자들의 지시에 의하여 감행한 것이다。

유고슬라비야 반역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의지를 실천하면서 반동적 민족주의적 승려 및 팟쇼분자들로써 인민민주 제국 내에 정치적 음모단을 조직하고 거기에 기초하여 그 제국에서 반혁명적 정변을 일으킴으로써 그 국가들을 쏘련과 전체 사회주의 진영으로부터 리탈시키며 그 국가들을 제국

주의 세력에 복종시키려는 과업을 내세웠던 것이다。

찌또 도배는 벨그라드를 미국 간첩 및 반공산주의 악선동의 중심지로 전변시켰다。

평화와,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의 진실한 벗들은 쏘련을 사회주의의 강력한 성채로, 인민들의 자유와 독립의 진실하고도 확고 부동한 옹호자로, 평화의 주요기지로 우러러 보고 있는데 쏘련의 친우라는 가면을 쓰고 정권을 장악한 찌또—란꼬비츠 도배는 영 미 제국주의자들의 지시에 의하여 히틀러의 무기고에서 모방한 온갖 야비한 허구 날조를 리용하면서 쏘련을 반대하는 비방 및 음모 공작을 진행하여왔다。

국제 정책의 주요 문제에서 까르델, 질라스 및 베블레르 등이 미국 반동파들과 통일 전선을 지어가지고 진출하고 있는 유·엔기구 내에서 유고슬라비야 정부가 제국주의의 뿔럭에 로골적으로 가담함—로써 찌또—란꼬비츠 도배는 제국주의의 로골적 앞잡이 또는 전쟁 방화자들의 방조자로 완전히 전환되었다。

국내 정치 분야에서의 찌또—란꼬비츠 반역자들의 활동의 주요 총결은 곧 유고슬라비야에서의 인민민주 제도를 기실 근절한 사실이다。

당과 정부에서 정권을 강탈한 찌또—란꼬비츠 도배의 반혁명적 정책의 결과 유고슬라비야에는 팟쇼적 반공산주의적 경찰국가 제도가 수립되었다。

그 제도의 사회적 기본은 농촌에서의 꿀락—크들과 도시에서의 자본주의 분자들이다。 유고슬라비야에서의 정권은 실제에 있어서 반인민적 반동분자들의 수중에 있다。 중앙 및 지방 기관들에는 과거 부르죠아 정당들의 적극적인 활동가들, 꿀라크 및 인민민주주의에 대한 적대 분자들을 등용하고 있다。

상층 팟쇼 지배자들은 극도로 팽창되어진 군사—경찰 기관을 유지하고 있는바 그들은 이 군사—경찰 기관을 리용하여 유고슬라비야 인민들을 압박하며, 나라를 군사 야영으로 변하여 지게 하였으며, 근로자들의 민주주의적 권리들을 박탈해 버리며, 각종의 자유 의사 표시를 유린하고 있다。

유고슬라비야 지배자들은 마치 자기들이 유고슬라비야에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듯이 허위적으로 파렴치하게 인민을 기만하고 있다。

사실상 찌또 도당이 쏘련과 사회주의의 및 민주 정체의 모든 진영과 인연을 끊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유고슬라비야로 하여금 사회주의 건설의 기초를 상실케 하였으며, 또 찌또 도당이 나라를 영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경제—정치적으로 예속하게한 조건 하에 처하여 있는 유고슬라비야에서는 어떤 사회주의 건설에 대하여든지 말조차 있을 수 없다

는 것을 맑쓰주의자라면 누구든지 명백히 알고 있다。

유고슬라비야의 경제에서는 벌써 국가적 경제 부문이 인민의 재산으로는 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국가 주권이 인민의 적들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는 까닭이다。 찌또―란꼬비츠 도당은 국가 경제에 외국 자본이 침투할 수 있는 광범한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며 또 그를 자본주의 독점가들의 지배 하에 처하게 만들었다。 영 미 산업 금융 독점가들은 유고슬라비야 경제에 투자함으로써 유고슬라비야를 외국 자본의 농업―원료 생산의 부속물로 만들고 있다。 유고슬라비야가 제국주의에 점점더 예속되어지는 것은 로동계급에게 대한 착취를 격화시키며 그의 물질적 조건을 혹독하게 악화시키고 있다。 농촌에 대한 유고슬라비야 지배자들의 정책은 꿀라크―자본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 농촌에다가 강제적으로 부식(扶植)해 놓은 가짜 협동조합들은 꿀라크들과 그들의 앞잡이들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으며 광범한 근로 농민 대중들을 착취하는 무기로 되어 있다。

제국주의의 유고슬라비야 사환꾼들은 유고슬라비야 공산당의 지도부를 장악하여 가지고 맑쓰주의―레닌주의의 원칙에 충직하며 제국주의자들의 기반으로부터 유고슬라비야의 독립을 보존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진실한 공산당원들을 반대하여 테로 정책을 실시하였다。 공산주의에 헌신한 수천명의 유고슬라비야 애국자들은 출당을 당하였고 감옥 수용소들에 구금되었다。

그들중 많은 자들은 유명한 유고슬라비야 공산당원 아르쏘 요와노위츠와 같이 감옥에서나 어두운 구석에서 악형을 당하고 피살되며 암살당하고 있다。 유고슬라비야에서 공산주의를 위한 강의한 투사들에게 대한 학살을 감행하는 그 잔인무도한 행동은 오직 히틀러 팟쇼들이나 희랍 찰다리스와 서박아 프랑코 형리들의 만행과만 비교할 수 있는 것이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충직한 공산당원들을 출당시키며 또 그들을 살해하면서 유고슬라비야 팟쇼들은 부르죠아 및 꿀라크 분자들에게 당문을 광범히 열어주었다。

유고슬라비야 공산당의 견전한 력량을 반대하여 찌또도당이 팟쇼적 테로 정책을 감행한 결과 유고슬라비야 공산당 지도부는 제국주의의 사환꾼들인 간첩들과 살인자들의 수중에 완전히 장악되었다。 당의 이름으로써 자기 마음대로 활약하는 반혁명 세력이 유고슬라비야 공산당을 장악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부르죠아는 로동계급의 당대렬 내에서 자기의 간첩들과 악선동자들을 모집하는 낡은 방법을 오래전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국주의자들은 이 당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며, 또 그 당들을 자기들에게 예속시키려 하고 있다。

그들은 유고슬라비야에서 마침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성공하였다。

외국 제국주의자들에게 전적으로 예속되어있는 찌또 도당의 팟쇼 이데올로기, 팟쇼적 국내 정책 및 반역적 대외 정책은 찌또―란꼬비츠의 팟쇼―스파이 도당과 유고슬라비야 자유 애호 인민들의 근본적 리해 사이에 무서운 구렁을 파 놓았다。 때문에 찌또 도당의 반인민적 변절적 활동은 맑쓰주의―레닌주의에 충직한 자로 남아 있는 공산당원들 측으로부터와 또 유고슬라비야 로동계급과 근로 농민들 측으로부터 점점더 큰 반항을 받고 있다。

찌또 도당이 파시즘에 완전히 넘어섰으며 또 그가 국제 제국주의의 진영에로 탈주한데 대하여 증명하여 주는 명백한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보도국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一、찌또, 란꼬비츠, 까르델, 질라스, 삐야제, 고스냐크, 마쓸라티츠, 베를레르, 므라조비츠, 부크마노비츠, 꼬츠, 뽀뽀비츠, 끼드리츠, 네스꼬비츠, 줄라며츠, 벨리비츠, 끌리셉쓰까 등 간첩 그루빠는 로동계급과 농민의 원쑤이며 유고슬라비야 인민들의 원쑤이다。

二、이 간첩 그루빠는 유고슬라비야 인민들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 미 제국주의자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이 그루빠는 국가의 리익을 배반하였으며 유고슬라비야의 정치적 독립성과 경제적 자주성을 말살시켰다。

三、『유고슬라비야 공산당』은 그의 현재 성원으로서는 인민의 원쑤―도살자―간첩들의 수중에 잡혀 공산당이라고 부를 권리를 상실하였으며 오직 찌또―까르델―란꼬비츠―질라스 도배의 간첩적인 임무를 실행하고 있는 기구로 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공산당과 로동당들의 보도국은 고용 간첩과 도살자―찌또 도배들을 반대하는 투쟁이 전체 공산당들과 로동당들의 국제적 의무로 된다고 인정한다。

유고슬라비야를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진영에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유고슬라비야 로동계급과 근로 농민들을 전적으로 방조하여 주는 것은 공산당들과 로동당들의 임무이다。

사회주의 진영에로 유고슬라비야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필수 조건은 맑쓰주의―레닌주의에 충실하며,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주의 원칙에 충실하며, 제국주의로부터 유고슬라비야의 독립을 보존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인 진정한 유고슬라비야 공산당의 재생을 위하여 현재 유고슬라비야의

공산당 내부에서와 또는 그의 외부에서 혁명적 분자들이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에 충실한 유고슬라비야의 력량은 잔혹한 팟쇼 테로 조건 하에서 찌또—란꼬비츠 도배를 반대하여 공개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을 가지지 못함으로 공산주의를 위하여 공개적으로 사업할 길이 막힌 그런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나가고 있는 투쟁의 길에 부득이 나서게 되었다。

유고슬라비야의 로동자와 농민들 가운데서 부르죠아 제도를 회복시키려는 간첩 찌또—란꼬비츠 도배들을 승리할、수 있는 력량이 나설 것이며、유고슬라비야의 근로자들은 로동계급의 지도 하에서 유고슬라비야 인민들의 막대한 희생과 영웅적 투쟁의 댓가로써 획득한 인민민주주의의 력사적 전취를 복구할 수 있으며、사회주의 건설의 길로 나가리라는 굳은 신념을 보도국은 표명하는 바이다。

공산당과 로동당의 중요 과업의 하나는 자기 대열 가운데서 혁명적 경각심을 전적으로 제고시키는 것이며、부르죠아 민족주의 분자들과 제국주의의 앞잡이들이 어떤 기치로써 자기들을 엄폐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폭로 소탕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도국은 인정하는 바이다。

공산당과 로동당 내에서의 사상적 사업을 강화하며、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주의에 충실한 정신으로써 맑쓰—레닌주의의 원칙으로부터 리탈하는 그 모든 것과 융화하지 않으며、인민민주주의와 사회주의에 충실한 정신으로써 당원들을 교양하는 사업을 강화하는 것을 보도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바이다。

전반적 초등의무교육 실시와 그 준비사업

남 일

지난 九월 十일 우리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四차 회의는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 실시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전조선 인민들이 갈망하여 마지않던 의무교육이 一九五〇년 九월 一일부터 우리 민족사상에 처음으로 실현되게 되었다。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의 실시는 전체 인민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평등하게 부여함으로써 우리 조국의 통일과 민주발전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실로 거대한 정치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의무교육의 실현은 첫째로 해방후、四년간에 축성한 공화국 북반부 교육문화 발전의 승리적 성과의 총화로 되며 우리 공화국 문화 향상의 무궁한 원천을 이루게 되는、동시에 앞으로의 발전에 대한 무한한 전망을 열어주는 튼튼한 담보로 되는 것이다。이로써 전체 인민들의 교육에 대한 치렬한 갈망을 만족시키어 빠짐없이 민주주의적으로 교양하며 선진적 지식과 기술을 인민들의 소유로 보편화시킴으로써 그들에게 문명하고 부요하고 행복스러운 생활을 보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인민경제와 문화 발전에 소요되는 튼튼한 인재와 우수한 민족간부를 대중적으로 양성해 냄으로써 부강한 통일 조국 건설과 발전의 토대를 공고히 다지는데 있어서 획기적인 계기로 되는 것이다。

더우기 위대한 쏘베트군대의 승리로 일제의 야수적 강점과 통치하에서 해방된지 불과 四개년의 짧은 시일에 우리 민족문화의 세기적 락후를 극복하고 아세아 동방 제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이와 같이 진정한 민주주의적 의무교육제를 실시하게 된 것은 실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으며、우리 공화국 민주발전의 거대한 승리이며、우리 민족의 커다란 자랑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 국토를 영원히 식민지화하며、우리 민족을

완전히 노예화하며, 우리 민족문화를 여지없이 유린하려고 기도하던 일제의 식민지 노예교육정책은 그들의 패망과 함께 소탕되었으며 일제와 그들의 앞잡이 친일 주구의 독점물이였던 모든 교육기관은 일체 인민의 손으로 넘어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쏘베트군대의 우의적 방조와 우리 민족의 영명한 지도자 김일성 수상의 령도하에 인민정권은 해방된 그날부터 일제 노예교육의 잔재를 청산하고 전체 인민의 리익과 조국 발전에 복무하는 민주교육을 창건하기 위하여 온갖 시책을 다하여 왔던 것이다。 즉 일제 시대에 초보적 교육조차 보장되지 못하였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인민과 그 자제들에게 한결같이 교육받을 권리를 부여하며, 그 수학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민학교로부터 각대학에 이르기까지 각급 학교들을 급격히 확충시키었으며, 일제가 남겨놓은 막대한 성년문맹자를 완전 퇴치하기 위한 대책을 내세웠으며,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의 실시를 예견하고 교육망의 확장, 교원의 양성 확보, 교사 비품 등 물질적 토대의 강화, 학생들의 취학률의 제고와 근로인민의 자제들의 수학조건의 보장, 교육내용과 방법의 혁신, 학생의 실력제고 등등의 대책을 강구 실천하였다。 그리하여 조국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 걸쳐 우리 민족 자체의 손으로 이를 관리하며 조국의 통일독립과 부강 발전에 소요되는 우수한 민족간부를 우리 손으로 양성 확보하기 위한 온갖 시책을 과감하게 실천하였다。 이와 동시에 애국적 열성이 극도로 앙양되고 민주교육에 대한 욕구에 비등된 전체 애국인민들은 인민정권의 교육문화정책을 절대로 지지하였으며 그 시책을 받들어 궐기 투쟁하였다。 인민들은 자기들의 교육기관을 자기 손으로 개수 증축 또는 신축하였으며, 내부 시설의 개선과 완비에 모든 열성과 기능을 다하였다。 이리하여 모든 교육기관들은 우리 력사상에서 처음으로 전체 인민이 접근할 수 있으며, 인민의 리익과 욕구를 만족시킬 것을 자기 사명으로 하는 시설로서 인민들의 진정과 사랑속에 이룩되었으며 장성되었다。 일제의 무거로서 그들에 복무하며 그들의 노예를 만들기에 리용되던 교육기관은 우리 민족과 우리 조국에 복무하는 인민들의 무기로 되었으며 조국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새로운 형의 인간, 새 시대의 애국자를 길러내는 기관으로 전변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공화국 헌법 一八조에는 모든 공민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부여하여,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근로인민들의 자녀들의 수학조건을 보장하며 그들에게 자유로이 고등교육까지 받게 하기 위하여 국비제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공화국 정부는 그 정강에서 이 헌법의 규정을 정확히 실천할 대책을 구체적으로 천명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거창한 민주주의적 의무교육제의 실시는 필연적으로 거대한 물질적 토대와 각급 교육기관의 량적 장성과 교육사업의 고상한 질적 수준을 전제로 하며 준비된 수다한 교육간부를 요구하는 만큼 이를 위하여 만반 준비를 진행하여 왔으며 이미 튼튼한 토대를 구축한 공화국 북반부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에 지난 四년간에 의무교육실시를 목표로 실시해온 인민정권의 중요시책과 민주교육의 발전 과정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一九四五년 一二월에 당시 이미 중앙에 조직된 교육국은 교육에 관한 림시조치 요강을 발포하여 새 교육리념과 민주교육의 통일적 운영기준을 확립하였으며 一九四六년 二월 八일에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결성되자 인민교육발전에 관한 시책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동년 三월 二五일에는 학교사업 개선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이 발표되어 각급 학교 교육들을 더욱 민주주의적으로 추동하였으며 결정적 개진을 보았던 것이다。

一九四六년 一二월 九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결정 제一三三호로써 학교 교육체계를 개혁하는 중대한 결정이 채택되었으며 一九四七년 四월 八일에는 북조선인민위원회 결정 제二五호로 성인교육 및 직장교육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일제의 낡은 교육체계를 완전히 소탕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적 교육체계를 확립하였다。

이리하여 인민정권은 교육을 완전히 민중화하고 모든 일제 잔재를 기본적으로 청산하였으며 교육에서 민족적 불평등, 남녀간의 차별, 지역적 차이와 재산정도에 의한 제한들을 철폐하고 종래 배움의 길을 잃었던 근로인민의 자제를 자유로이 취학시킬 수 있게 하였으며 뒤이어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문학교 이상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전문 대학에 대한 진학의 길을 광범히 열어주었다。 뿐만 아니라 통신교수의 광범한 실시로써 직장에 근무하면서 지역적 제한없이 수다한 근로청년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반 시책의 실시와 아울러 一九四七—一九四八 량년도에 걸친 인민경제 발전 계획의 중요한 일익으로서 인민교육 발전 계획을 내세웠으며 이 계획이 전체 인민들의 애국적 열성과 헌신적 투쟁으로 초과 완수되었고 뒤이어 새 二개년계획의 성공적 진행으로 그 초년도인 一九四九년도의 발전 계획이 기본적으로 초과 완수된 결과 각급 교육기관은 실로 미증유의 비약적 장성을 가져왔다。

해방 이전에는 기초교육 부문에 속하는 소위 소학교가 한 읍 면에 평균 一•七교밖에 없었으므로 입학시험을 치르고 돈과 권세있는 자의 자녀만이 교육받을 수 있었으며 대다수의 근로인민의 자녀들은 이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오늘 공화국 북반부에는 일면에 평균 五개소에 달하도록 인민학교가 설치되어 어떠한 농산림 어촌 광산지대의 자녀들도 자유로이 취학할 수 있게 되었다。

해방전에는 일제가 반세기 동안에 만들어 놓은 소학교에 학령아동의 태반을 수용하지 못하였으나 현재에는 이미 거의 전원의 학령아동을 그 년령구분에 따라 인민학교 성인학교에 망라하였으며 따라서 오는 一九五○년도에는 학령아동의 一○○%수용을 완전 보장할 만반 토대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다음 초급중학교는 해방전에 비하여 학교수에 있어서 一八배반、학생수에 있어서 一九배 이상의 장성으로서 一군당 八—九교로 보급되어 각면마다 一、二개소씩 세워진 중학교에 모든 근로인민의 자제들이 자가에서、자유로이 통학하고 있으며 과거에 생지옥을 이루던 입학난은 이미 옛말로 되어 인민학교 졸업생 총수중 초급기술、직장기술、성인중학교 등으로 진학하는 학생을 제외하고라도 그 七○%이상을 훨씬 초과하는 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해방전에 一교도 없던 고급중학교가 一七七교나 신설되어 六만 五천명의 학생을 망라하고 있으며 극도로 천시 억압당하였던 기술교육이 국가적 특별 시책의 결과로 해방전에 三개소밖에 없던 기술전문학교가 현재에는 五四교로 확자되어 二만二천의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기술전문학교에서는 一九四九년 七월까지에 이미 二、一一七명의 우수한 졸업생을 내어 인민경제 부흥발전의 초소에 배치되어 헌신하고 있다。 기술교육의 질적 향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六월 一일 내각 결정으로 기술교육의 전반적 개편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밖에、산업、운수、체신、기타 인민경제 각부문에서 광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백수십개소에 달하는 직장기술학교 직장기술전문학교에서 수다한 산업기술자를 양성하고 있다。

선진사상과 교육기술로 무장된 우수한 교육간부를 정상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一四교의 남녀사범전문학교에서 一만一천여명을 교육하고 있으며 지난 학년도까지에 一、四五五명의 젊은 교육간부가 각학교에 배치되어 의무교육 실시를 앞둔 기초교육부문에서 핵심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일제의 노예교육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 공화국 북반부에는 一개소의 대학도 설치되지 못하였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그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당당한 김일성 종합대학을 비롯한 一五개 대학이 창설되어 一만三천여명의 청년학도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미 一、五三三명의 대학 졸업생을 내어 각부문의 간부로 배치하고 있다。 또한 많은 과학기술 문화일꾼들이 공화국 학사 박사의 학위와 교수 부교수의 학직을 쟁취하여 인민경제 발전과 민족문화 부흥을 위하여 선봉적 역할을 놀고 있다。

이밖에 성인학교、속성성인학교、각직장 교육기관、통신대학、야간대학 등에서 一○○여만명의 학생을 수용교육하고 있으며 일제가 남겨놓은 수백만의 문맹을 지난 三월까지에 이미 기본적으로 퇴치하였고 애육원、고아원、맹아학교、유치원 등의 교전 교외교육도 원만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三월 一七일에 체결된 조쏘 경제 및 문화협정은 우리 공화국의 민족문화와 과학기술의 급속 발전을 보장하여 주는 담보로 되는 것이며 이미 二○여명의 쏘련 학사 박사들이 우리 공화국 각대학 자녀들을 선진 과학과 기술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적극 협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북반부 인민교육은 그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중대한 전변을 가져 왔다。

우리 인민교육은 학생들을 조국에 헌신하는 진정한 애국자로 길러내기 위하여 그 재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과학적 선진적 지식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을 자각있고 교양있는 인간으로 육성하며、변증법적 유물론적 세계관을 부여하도록 주력하였으며、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노력은 교과목 과정안의 개정과 민주교육의 내용이 되며、자료로 되는 교과서 발간사업에 실증적으로 표현되었다。

우리 민주교육 발전의 구체적 현실과 교육리론의 요청에 근거하여 三차에 걸쳐 교과목 과정안을 개정한 결과 민주교육에 부합하도록 각 교과 내용이 과학적으로 편성되었으며 교육내용이 질적으로 충실히되었다。 일제 시대에 사용하던 교과서들은 해방과 동시에 완전히 일소되고 이에 대신하여 선진 과학기술 문화의 내용을 담은 우리말로 된 우수한 교과서가 지난 九월초 현재로 四一一종 二、四六八만부나 간행 배부되어 민주교육의 질적 성과를 보장하고 있다。

그밖에 학생과 교원들의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며 실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신문과 각종 교육신문、잡지、단행본 등이 발간되어 보급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민주교육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되는 우수한 교원들을 양성 배치하고 재교육하는 방대한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 성과를 숫자에서 보더라도 해방 이후 오늘까지 재교육한 교원수는 三六、六五七명에 달하며 이밖에 수많은 교육행정 일군들이 양성 재교육되

이 선전사상과 지적으로써 민주교육의 초소에서 헌신 투쟁하고 있다。

더우기 민주교육을 위하여 헌신 복무하는 전체 교원과 교수들의 생활안정과 영예로운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민정권은 그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는 대책을 수차에 걸쳐 실시하여 왔다。

이와 같이 학교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제반 대책이 성과적으로 실현된 결과 학생들의 실력은 급격한 충실을 보이게 되었다。 지난 一九四八 학년도 말 졸업 및 진급 시험에서 보더라도 인민학교 전학생의 四三%가 전과목 四점 이상의 우등생이었던 一례로써도 이를 가히 헤아릴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공화국 북반부 민주교육부문의 거대한 전변과 발전성과에 기초하여 一九四八년 一二월 一六일 공화국 내각 제一一차 회의에서는 一九五〇년도부터 전반적 초등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一九四九년도 준비사업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공화국 헌법과 정부 정강에 제시된 교육시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므로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은 이 결정을 열광적 환희와 감격으로써 맞이하였으며 이를 받들고 민족적 영예로 되는 의무교육 실시 준비사업에 총궐기하였다。

이 결정에 근거하여 금년 一월 一三일에는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 실시 중앙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뒤이어 각도 시 군 준비위원회와 각면 학교실설위원회가 조직되어 각기 자기사업을 전개하였다。

공화국 인민들의 교육에 대한 애국적 열성은 특히 교사 건축사업에서 여실히 표현되었다。 一九四八년 신학년도 준비사업에 있어서만 보더라도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회사한 현금과 물자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九억五천여만원에 달하였으며 그들의 애국적 열성과 로력으로써 건축된 학교건물은 실로 九六六교 三、七〇〇여교실을 산하였으며 이밖에 학교의 전반적 수리와 비품의 완비도 막대한 수에 달하였다。

금년도에 있어서 의무교육실시 준비사업이 전인민적 애국운동으로 전개된 이래 이를 위하여 바쳐진 여유곡물 금품물자들은 지난 九월까지에 七억七、백여만원에 달하였으며 이러한 애국적 열성으로써 건축된 교사수는 一천三백교실을 산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지난 七월말까지에 학령아동조사、학구결정、학교의 신설、교원양성 등의 주요사업이 기본적으로 완수되었다。 그 결과로써 一九五〇년도부터 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반 토대와 조건들이 튼튼히 조성되었으며 지난 신학년도에는 만 七세—八세 아동 三五만명을 거의 전원 취학시킴에 성공하였던 것이다。

이 사실은 우리 조국의 통일 자주독립을 보장하

는 문화적 기지가 더욱 공고화된 것을 시위하는 것이며 이는 실로 문화 발전에 있어서의 새로운 계기로 되는 것이다。

× × ×

공화국 북반부 인민교육이 이상과 같은 거대한 발전과 장성을 가져온 반면에 미제국주의자들의 조종하에서 리승만을 수괴로 한 괴뢰 매국 도당들이 공화국 남반부에서 실시한 망국적 식민지 노예교육의 결과는 실로 비참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소위 국민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남반부의 학원은 친일분자와 망국노들에게 점령되어 경찰과 테로의 유린을 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학생들과 량심적인 교원들은 학원에서 추방되고 검거 투옥 학살을 당하고 있으며 학원은 장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에서 속속 폐쇄되는 형편에 처하여 있다。 최근 유명한 생물학자 서울 사범대학 장형두 교수를 검거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였다는 혐의로 학살하였으며、 경상남도 五개 대학에 폐쇄령을 내리었기 때문에 二천명의 대학생이 결사반대투쟁을 야기하고 있는 한가지의 실례만 보더라도 이를 헤아릴 수 있는 것이다。

그 결과로 각급 학교에서는 입학난이 극심할 뿐만 아니라 이를 기화로하여 학교는 모리와 투기장으로 화하여 막대한 입학금과 학비를 요하기 때문에 괴뢰정부 계렬의 고관이나 악질지주 반동자본가 모리 간상배의 자제가 아니면 도저히 수학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하여 있다。 서울시내에서조차 수다한 학령아동이 교문밖에서 방황하고 있으며 대도시 부산에서는 금년 九월 적령아동의 반수도 수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며 중등학교에서는 국민학교 졸업생의 二〇%밖에 수용할 수 없으며 서울시내 중학교는 一〇대一 이상의 입학난을 현출하고 있다。 근로인민의 자제로서는 향용 입학되었다 하더라도 학비난으로 수학을 계속할 수 없는 것이다。 작년도 중에 학비곤난으로 퇴학한 학생 총수가 三三%에 달한 사실이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교육내용에 있어서 보더라도 일제시대의 교과서를 그대로 번역사용하고 있으며 그 소요수에 비하여 국민학교분은 二〇분지一、중학교용은 五〇분지一밖에 발간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다。 또한 학생들을 애국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킬 대신에 미제국주의의 세계 제패의 도구인 세계주의 사상과 퇴폐적인 미국 반동 문화를 그대로 수입하여 학생들의 의식을 마비시켜 그들을 선진사상과 과학적 세계관으로부터 탈리시키려고 온갖 시책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처지에서 남반부 학원들이 퇴폐하여 가며 학생 풍기가 극도로 문란해지는 것은 우연한 사실인

아닌것으로 온갖 죄악과 과률과, 퇴폐상이 날로 더 우심하여 가고 있다。이러한 현상에서는 의무교육의 실시는 꿈조차 꿀 수 없는 것이다。이상과 같이 극히 낮은 취학률임에 불구하고 소위 국민학교에서 전부 二부제를 실시하더라도 一만 七천여 교실이 부족하다는(九월 一일부 서울신문) 사실은 리승만 망국도당들이 인민들의 초보적 교육에 있어서조차 얼마나 무위 무책하며 죄악을 거듭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북반부 민주교육이 전기한 바와 같은 찬란한 개화를 보고 력사적인 의무교육 실시의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반면에 남반부의 퇴락한 교육 정형은 더욱 리승만 망국괴뢰 도당들의 민족적 반역과 매국적 죄악을 여지없이 폭로하는 것으로 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전체 인민들의 민족적 격분과 반항투쟁을 야기하고 있다。남반부 인민들과 애국적 교원 학생들이 북반부와 같은 학원의 자유와 민주화를 절규하면서 싸우고 있으며 북반부와 같이 전반적 의무교육의 실시를 요구하면서 괴뢰정부의 반동적 노예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공화국 정부의 교육 정책은 북박부 민주교육 발전의 성과에 기초하여 남반부에도 불원한 장래에 북반부와 같은 민주교육을 실시할 것을 예견하고 이에 대처하여 만반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북반부에서 이루어진 민주교육의 굳건한 물질적 토대와 수다히 양성된 교육간부와 우리 손으로 인민교육을 운영한 고귀한 경험은 앞으로 의무교육 실시를 원만히 보장하며 그 자체의 비약적 발전 성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조국통일과 동시에 파멸상태에 빠진 남반부에 인민적 민주교육제를 능히 우리 손으로 급속한 시일내에 실시할 수 있는 확고한 기초를 가지고 있다。

× × ×

一九五○년도부터 실시될 전반적 초등의무교육 사업은 막대한 문맹퇴치의 기본적 완수와 아울러 우리 민족 력사상에 있어서 문화혁명적인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 전변으로 된다。이와 같이 정치적으로 중대한 의의를 가진 초등의무교육제를 전반적으로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 공화국 정부와 전체 인민들 앞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당면과업들이 제기되는 것이다。

첫째로 장엄한 전인민적 애국운동으로 전개되어 온 一九四九년도 준비사업을 신중히 과학적으로 검토하여 총결짓는 동시에 이 성과와 경험 및 교훈에 기초하여 의무교육 실시의 최초 년도인 一九五○년도 준비사업 계획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내세우고 이를 강력히 실시하는 문제가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이에 있어서 중앙준비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준비위원회와 각급 교육행정부문에서 적극적이며 조직적인 사업을 계속 강력하게 전개하여야 하며 각 지방에서는 중앙의 방침에 의거하여 지방 실정에 적합하는 구체적 실시계획을 수립 실천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로 학령아동의 전원 취학대책을 더욱 가강하게 실시하여 만 七세—八세 아동으로 아직 인민학교에 망라되지 못한 아동은 특별한 대책으로 이를 전원 수용 교육할 것이며 현재 취학중인 학령아동들의 퇴학을 극력 방지하여 학생확보에 만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이와 병행하여 학령아동들의 이동 정형을 상시적으로 파악 장악하고 이를 정확히 처리함으로써 一九五○년 九월 一일에는 례외없이 학령아동 전원 취학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이 사업은 실로 방대하며 상시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사업인 것이다。그러나 의무교육 실시에 있어서 가장 긴요한 임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각급 지도기관 및 담당기관에서는 학령아동의 기본수자 파악과 그 상시적 이동에 대한 조치를, 기민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정비하며, 사전에 매개 학령아동의、취학에 대한 개별적 예비조치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시책을 강력히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의무교육의 실시를 물질적으로 완전히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인민학교 교사 신증축과 내부설비 및 비품완비에 대한 계획이 정확히 수립 실천되어야 하며 교과서 발간 배포사업과 교편물 실험기구 학용품등을 국가적으로 생산확보하는 사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로 법령에 규정된 무료교육제 실시와 빈한한 근로인민의 자녀에게 대한 국가의 무상급여제를 완전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들이 철저히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이는 근로인민들의 리익에 복무하며 인민적 민주주의 원칙에 립각하여 실시되는 공화국 정부의 교육정책을 정확히 실천하며 의무교육실시 성과를 완전히 보장하는데 있어서 극히 중요한 과업인 것이며。그러므로 교과서 학용품 기타 급여대상의 정확한 선정, 예산의 확립, 급여물자의 생산확보 및 이를 제때에 보장하는 급여 절차 등 만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 실시와 아울러 교원들의 질을 더욱 제고시키기 위하여 사범전문, 교원대학, 사범대학, 각급 통신강좌, 각급 교원 양성기관을 확장하며 그 사업을 질적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동시에 교원들의、재교육 사업과 미경험 교원들에 대한 방조 대책을 조직 실천하며 교원들의 연구사업을 조직적으로 활발히 전개하여 그 정치교양의 재고와 실력향상 방법, 기술상 숙련을 기할 것이며 이에 있어서 특히 인민학교를 중

점적으로 강화하는 시책을 실시할 것이다。 더우가 인민학교 교원들의 봉급을 올리며、배급을 후히 하며、사택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며、다년간 민주교육에 복무한 교육공로자들과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교원들에 대한 국가적 표창을 실시하는 등 교원들의 두터운 물질적 대우와 영예로운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로 의무교육제 실시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증가되는 인민학교 졸업생의 상급학교 진학률을 제고하며 앞으로 더욱 대중적으로 요구되는 민족간부 양성의 국가적 요청에 비추어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를 급속히 확충하며 그 교육내용을 더욱 충실히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로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 실시에 관한 법령을 완전 무결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전지역에 의무교육제를 실시할 제반 대책과 투쟁을 적극 전개하여야 하며 멀지 않은 앞날에 미제국주의의 주구들인 망국괴뢰도당들의 식민지 노예교육정책 하에서 퇴폐하여가고 있는 남반부 교육을 구출하여 이에 민주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이에 전반적 의무교육을 실현하도록 더욱 치렬한 투쟁을 지속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조국 인민교육문화 발전에 있어서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의 실현을 앞두고 제기되는 중대한 당면과업들은 간단히 이상과 같다。

이를 위하여 각급 당단체와 매개 당원들은 전반적 초등의무교육 사업의 국가적 정치적 의의와 법령의 취지를 정확히 연구、파악하고 각자의 환경과 조건에 적합하는 사업을 조직、실시하여야 하며、특히 본 법령의 의의를 철저히 군중화하기 위한 해설공작을 전개하여 인민들의 이에 대한 관심과 자각적 열성을 더욱 앙양하며、이를 옳게 조직 추동함으로써、일층 광범하고 강력한 전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함으로써、의무교육 실시의 승리적 성과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각급 준비위원회와 학교건설위원회 내의 당원동무들은 정부의 시책을 옳게 받들어 높은 정치적 각성과 당적 책임성 밑에서 자기 사업을 조직하여 이를 제때에 강력히 실천하는 모범으로 되어야 하며 실시 사업의 검토와 새 계획의 수립、관계일군들의 사업분공、검열 지도 사업 등 과학적으로 조직성 있게 사업을 조직 실시함으로써 각급 준비위원회와 학교건설위원회 사업을 강화하여 자기 역할을 충분히 완수하여야 할 것이다。

각공장、광산、기업소에서 헌신하는 로동자 당원동무들은 의무교육 실시사업이 공화국 북반부의 부흥된 경제토대 위에서야만 이루어지는 현실을 옳게 인식

하고 온갖 창의성과 헌신성을 다하여 二개년 인민경제 계획의 초과완수를 위한 투쟁에 더욱 열성적으로 참가하는 동시에 당적 또는 직맹적으로도 되는 의무교육 협조사업에서 선봉적 역할을 놀아야 할 것이다。

전체 농촌 당원동무들은 과거에 애국농민들이 문맹퇴치사업、신학년도 준비사업 및 의무교육제 실시를 위한 여유곡물 헌납에서 발휘한 애국적 열성과 교육에 대한 갈망에 비추어 국가적 립장에서 곡물 공예작물 기타의 농산물 증산에 있어서 농민군중들의 모범이 되며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물질적 정신적 협조에 자각적 열의를 나타냄으로써 본사업의 성과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각급 교육 행정부문과 각급 학교 특하 인민학교 교직원 당원동무들은 의무교육 실시사업을 직접 남당한 자신의 중대한 국가적 임무를 철저히 인식하고 학령아동 전원 수용과 이에 따르는 예비적、또는 실천적 조치들을 유루없이 계획 실천할 것이며、전체 인민들의 열성과 갈망을 충분히 살리어 교육 교양사업을 더한층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교재 연구사업、교육방법 연구사업、학교 관리사업은 일층 강화하는 동시에 자체 임무 완수에서 가장 절실한 무기로 되는 자체의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교양을 더욱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전체 학부형 자보 낭원농무들은 자기 자제의 취학에 만전을 기하는 열망 이를 조국에 헌신할 유능한 애국 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옳게 교양주며 학교와의 긴밀한 련락 하에 자제교육의 만전을 기하여 학교사업을 적극 협조 보장하도록 전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각급 당단체와 매개 당원들이 이상과 같이 가가의 환경과 처지에서 전반적 초등의무교육 실시 준비에 따르는 제반 사업을 조직 실천하는데 있어서 모범적 선진적 역할을 다함으로써 우리 민주건설의 승리를 시위하며、우리 민주제도의 우월성을 세계에 중시하며、우리 부강한 민주통일 조국의 발전 도상에 찬연한 광채를 더하는 본사업 승리적 성과를 반드시 보장하며、우리 민족의 오랜 숙망을 성취하여야 할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의 침략정책에 의하여 파탄되는 남반부의 민족경제

신 정 호

미 제국주의자의 남조선에 대한 침략 정책의 기본 목적의 하나는 남조선을 자기의 식민지적 독점시장으로 만드는데 있다。

이것은 미 제국주의 군대가 남조선을 점령하던 첫날부터 명백한 프로그람으로서 그 실시에 옮기어졌다。일본 정부 및 일본인들이 소유하였던 모든 산업, 교통, 광산, 토지, 기타 일체 재산은 그 대소를 불문하고 미 제국주의자의 통치 기구인 군정청의 소유로 점거되었었다。

「三八도 이남에 있어서 일본인에 소속되었던 공사(公私) 재산의 정리는, 그 형태와 내용의 여하를 불문하고 전부 군정청에서 소유권을 접수한다…」라는 당시 미 점령군 사령관 하지의 「포고문」은 이 점거 행위의 소위 법적 근거를 이루었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소유하였던 재산은 남조선 경제에 있어서 실로 八〇% 이상을 차지하는바 이것은 순전히 조선 인민의 피와 땀으로써 만들어진 것은 누구에게나 의심할 여지조차 없는 것이다。위대한 쏘베트 군대의 무력에 의하여 일제가 타도된 그때부터 이 재산은 조선 인민의 소유로 돌아와야 될 것은 너무도 당연하며, 필연적인 것이다。위대한 쏘베트 군대는 그 진주하던 첫날 벌써 북조선에서 이것을 조선 인민의 소유로 만들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점령군은 이것을 조선 인민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강제적으로 박탈 점거하였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그후 三년 간의 군정을 실시하는 동안 군정 기구의 직접적 지배로서, 혹은 구(舊)동척의 변명체인 신한공사의 소속으로서 이것을 종시일관 자기 수중에 틀어쥠으로써 남조선의 전 경제를 저들의 탐욕적 리익과 저들의 마음에 맞는대로 유린하였었다。곧 월가 독점가들의 세계 지배를 위한 광포한 팽창 야욕의 실현을 위한 광범한 프로그람 위에서 남조선의 경제가 처리되었으

며 남조선의 경제가 이 독점가들의 수중에 직접적으로 장악되어 있는 까닭에 그 어느 민족경제보다도 더욱 악착하게 더욱 란포하게 딸라의 피묻은 발톱 아래에서 희생되고 유린되었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二차 세계대전에서 벼락 부자가 된 미 독점가들은 자기들이 전시에 걸어들인 그 높은 리윤을 전후에 있어서도 그대로 보장하며,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더 높은 리윤으로써 딸라의 주머니를 더욱 더욱 팽창시키려고 온갖 흉책에 광분하고 있다。미 독점가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야욕을 충족시킴에는 오직 자국 내에 있어서의 전체 근로 인민들의 생활을 혹독하게 저하시킴과 동시에 타국가의 민족경제를 파탄시킴으로써 아메리카 상품과 딸라의 독점적 시장으로 예속화시키는 이외에는 다른 출구가 찾아질 수 없는 것이다。여기에서 저 악명 높은 「마샬안」이 생겨났다。

타국가와 타민족에 대하여 파렴치한 정치적 간섭을 설정하면서 그 국가의 민족경제를 「원조」한다는 미명 아래, 사실은 파탄시킴으로써 월가 독점가들의 야욕에 의한 상품 및 딸라의 독점적 시장으로 예속화시키는 것이 「마샬안」의 정체인 것이다。이것은 미 제국주의자의 피묻은 손이 닿는 곳에서는 그 어느 국가, 그 어느 민족 할 것이 없이 동일하게 강제되고 있다。다만 미 제국주의자가 무슨 구실로든지 더욱 용이하게 제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곳에는 이 흉악한 팽창적 침략이 더욱 혹독하고 더욱 파렴치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남조선은 꼭 이러한 정세에 놓여 있는 것이다。그러한 까닭으로 미군정 하에 들어간 후 남조선 경제는 실로 잔인하게 파멸되었으며 심각한 예속화의 일로를 달리게 되었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남조선의 경제에 있어 파멸과 예속화의 상태가 매국노 리승만의 괴뢰 정권이 조작된 후에는 어떠한 변동이 있었는가? 아니다。파멸과 예속화는 더욱 심각하게 더욱 가속도로 계속될 뿐이다。

사실에 있어 미 제국주의자의 三년 간의 직접적인 군정 통치는 조선 인민들의 반감과 증오를 격화하여 거대한 인민들의 반항에 봉착하게 된 까닭에 자기의 경제적 강점과 정치적 지배를 더욱 교묘화하며, 더욱 은밀화하려는 데서 자기의 주구 리승만을 내세운 것뿐이다。월가의 주구 리승만이 어떻게 자기의 상전의 의사와 방침을 조금이라도 변동시킬 수 있겠는가?

그러면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있어 리승만 매국 정권이 조작된 후 어떠한 구실을 만들어내서 자기의 경제적 침략을 계속하고 있는가?

이것은 이자들 사이에 체결한 두개의 소위 「

제조약이 그 구실로 리용되고 있는 것이다. 즉 소위 「재산 및 재정 양도에 관한 한 미 협정」과 「한미 경제 원조 협정」이 그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는 이 두개의 소위 경제조약을 구실로 하여 자기의 야욕을 실현하기에 계속 광분하고 있으며, 리승만 매국 도당은 이 망국 문서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자기의 상전에 대한 「충성」심을 더욱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 × ×

소위 「재산 및 재정 양도에 관한 한 미 협정」은 미 제국주의자가 남조선 인민들의 열화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살, 테로, 기만, 매수 등 온갖 만행으로써 리승만 매국 정권을 조작한 후 一九四八년 九월 十一일 자기의 괴뢰들과 두번째 체결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그 명칭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미 군정이 소유하였던 모든 재산과 재정을 리승만 괴뢰들에게 넘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시도하였었다. 무수한 금액의 숫자들이 전후 일관하여 라렬되고 허다한 미사려구들로 화장되었었다. 그러나 이 「조약」은 결국에 있어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 경제를 계속하여 자기의 마음대로 소유하고 없으며 그 어느때든지 소유한다는 것을 은폐하지 못하고 말았었다. 즉 이 「조약」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리승만 주구들에게 그 권리를 넘겨 주는체 함으로써 주구들의 그 눈 밑에 앉아서 남조선 경제의 진짜 주인 노릇을 하는 데 그 가장 「귀중」한 목표가 있는 것을 결국은 은폐하지 못하였다.

문제는 남조선 경제에 대하여 누가 그 주인이 되느냐 하는 데서 출발한다. 위대한 쏘베트군대에 의하여 조선이 해방된 후 남조선 경제도 반드시 인민의 소유로 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때에 우리 인민들의 소유로 되었으면 오늘날 남반부의 경제는 파멸되는 대신 부흥되었을 것이며, 미 제국주의자에게 예속되는 대신 조선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발전되었을 것은 더러끝만한 의심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팽창 야욕에 열광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 경제를 인민의 소유로 하는, 즉, 중요 산업 국유화와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의한 토지개혁을 필사적으로 반대 탄압하였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 경제가 인민들의 소유가 되는 것을 백방으로 억압하면서 자기들이 계속하여 그 주인이 되는 것을 유지하기에 심혈을 다하였던 것이다.

「재산 및 재정 양도에 관한 한 미 협정」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출로를 만든 것이다. 조선 인민들 중에서 그 누가 남조선 경제를 자기들의 원쑤인 리승만

도당에게 넘기라고 말하였던가? 물론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다. 전인민은 중요 산업 국유화와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의한 토지개혁으로 로동자가 산업의 주인이 되고 농민이 토지의 주인이 될 것을 종시일관하여 요구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경제를 인민들의 소유로 만들지 않고 인민의 원쑤 리승만 역도들에게 넘긴다는 데 미 제국주의자가 남조선 경제를 계속 강점하려는 음모의 기반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소위 「재산 및 재정 양도에 관한 한 미 협정」은 그 조문을 일일이 따지지 않더라도 벌써 미 제국주의자들의 음모가 명확하게 폭로되는 것이다.

과연 미 제국주의자는 리승만 역도들과의 이 「협정」 제九조에서 「동산 우는 부동산, 유체 또는 무체임을 막론하고 미국 정부가 관심을 가진 재 한국 재산 급 첨부물의 취득」 권리를 보장하였으며, 또 동조에 「대한민국 정부는……미국 정부가 상호 협정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재산의 소유권을 미국 정부의 요구에 응하여 이전함」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루천언의 문구가 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수천억의 재산을 준다는 것이 다 무슨 잠고대나? 미 제국주의자가 관심만 가진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취득한다는 것이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가?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것이면 무엇인든지 그 소유권을 다 이전하여 준다는 것이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가? 이것은 소위 「한국 재산」에 있어서는 미 제국주의자들이 가지고 싶은 것은 어느때 어떤 것이든지 마음대로 가지며, 쓰고 싶은 것은 아무것이나 마음대로 쓴다는 것이다. 제 물건이 아닌 것을 어떻게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며, 가질 수 있는가? 남조선 경제에 대하여 미 제국주의자 이외에 또다시 다른 주인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은 문제의 가장 기본인 소유권을 계속하여 자기의 피묻은 손아귀에 틀어쥐었으며 이 「조약」에서 벌써 제가 가지고 싶은 조선 최대의 건물 중 하나인 반도호텔을 위시하여 군사용 건물 二천七백五만十一평방휘트와 소위 원조 고문단이 사용할 것을 예정한 토지 가옥들과 신당동 일대의 五十一동의 가옥들과 삼정빌딩, 국제호텔, 수도호텔, 내자동 삼국호텔, 푸렛차호텔, 기독청년회관, 전(前)일본 헌병 사령부 등등과 이상 건물들의 부지와 기타 군용지 五억四천여만휘트의 토지들을 무료로 차지할 뿐 아니라, 이 건물들의 수선 및 경영비도 매월 수천만원의 비용을 소위 「한국 정부」가 부담하기로 되었다. 이외에 우리가 명기할 것은 남조선 경제에 있어 가장

비중이 큰 운수 통신 계통의 전기관들은 애초부터 넘기지도 아니하고, 미 제국주의자들이 그대로 깔고 앉아버린 것이다.

소위 「재산 및 재정 양도에 관한 한 미 협정」은 조선 인민이 주인이 되어야 할 모든 경제에 대한 권리를 미 제국주의자들이 제 손아귀에 그대로 틀어쥘 뿐 아니라, 인민의 소유물을 제 마음대로 三년 동안에 팔아먹은 것을 소위 합법화 시키고 조선 인민에게 막대한 부채를 넘겨씌운데 또한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문제는 적산에 관한 것인데 동 「협정」 제五조에 「대한민국 정부는 재조선 미 군정청이……이미 실시한 처리를 승인 인준함」 또 「련합국 급 련합국 국민이 적산에 대해서 직접 간접으로 가진 권익을 존중, 보전, 보호함」이라 하였다. 이것은 미 군정청에 의하여 인민들의 소유로 되어야 할 거대한 재산과 산업 기관들이 미국인들과 모리배들의 수중에 무대로 혹은 아주 렴가로 넘어간 것을 그대로 승인한다는 것이다. 둘째 문제는 미 군정청이 一九四八년 七월 말까지 三백二十九억五천여만원의 부채를 졌는데 그것을 넘겨씌우는 것으로 인민에게는 한가지의 소득도 없이 이 거대한 부채를 부담시킨 것이다.

소위 「재산 및 재정 양도에 관한 한 미 협정」은 이상과 같이 조선 인민이 그 주인이 되어야 할 남조선 경제에 대하여 인민의 원쑤, 리승만 역도들에게 그것을 넘겨줌으로써 미 제국주의자들이 계속하여 그 주인의 권리를 보장 강화하고 미 군정이 과거 三년 동안에 전인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적산에 대한 모든 불법적 매매, 처리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을 벗어버리는 동시, 거대한 부채만을 인민의 부담으로 넘겨씌운 것이다.

남조선의 경제는 이 망국적 협정에 의하여 미 제국주의자에게 계속 장악되었다. 이 조건은 남조선의 경제를 제 마음대로 가장 용이하게 파멸시키고 남조선을 자기들의 상품과 딸라의 독점적 시장으로 영구화하려는 마 제국주의자의 음모를 실현하는데 기본이 된다.

미 제국주의자는 자기가 조작한 이 조건에 기초하여 자기의 침략적 프로그람을 더욱 주도 면밀하게 하기 위하여 一九四八년 十二월 十일 또 한개의 망국적 조약인 소위 「한 미 경제 원조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마샬안」이 모든 다른 국가에서 목이 마르게 떠드는 것과 같이 소위 「원조」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 혹독한 내정 간섭과 함께 남조선의 전경제가 미 제국주의자의 의사와 리익에 완전 예속하여 존재하며 활동할 것을 강요한 것이다. 이 「협정」에 의거하면 사

실상 남조선의 전경제는 악독한 교형리 손에서 빈사의 상태로 들어가는 운명이 강요되고 있는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는 자기가 주인으로서 그 전권리를 장악하고 있는 조건을 리용하여 「마샬안」이 요구하고 있는 최대 한도의 야욕을 이 「협정」 속에 로골화 시키었었다.

소위 「한 미 경제 원조 협정」은 그 제一조에서 소위 「원조」라는 것은 순수한 미 제국주의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 명백하게 표시되었다. 즉 「원조」를 받는 자는 애당초부터 아무런 의사나 요구도 내놓을 수 없고 「미 합중국 정부 대통령」의 허여에 매여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였었다. 여기에서 출발하여 제二조에는 남조선의 경제에 뿐 아니라 다른 내정에 까지 이 「원조」라는 가면에 의하여 가혹한 제재와 간섭을 받게 된다. 즉 예산, 재정, 통화 신용, 외국위체의 거래, 무역, 통화 환산률, 량곡, 기타 생산물의 수집 및 배급, 외국인의 투자 및 무역, 수출 산업, 소위 정부 소유의 생산시설 및 재산의 운영 및 처리 등등이 모두 미 제국주의자의 지시와 감독에 의하게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고 보니 남조선이라는 것은 미 제국주의의 예속적 식민지라는 결론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있을 수 없지 아니한가?

특히 우리가 여기에서 명기할 것은 산업 문제에 있어 소위 「수출 산업을 발전」 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면 「수출 산업」 이라 함은 무엇을 의미함인가? 미 제국주의자에게 수요되는 원료 산출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한나라의 산업을 외국 산업에 필요한 원료 산출에 국한시킨다면 그 나라의 산업은 발전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파멸되며 타국가에 예속될 것은 명약관화의 사실이다. 그런데 미 제국주의자는 남조선 경제에 대하여 이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를 돌려야 될 것은 「외국인의 사적 투자 급 외국 무역상(商)이 한국에 입국하여 영업에 종사함을 용허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남박부에서 산업 및 상업을 통하여 민족 자본이 더욱 혹심하게 파탄되고 경제의 지배권이 미 독점가들의 수중에 더욱 광포하게, 틀어쥐워지는 결과로 되는 것은 불문가지인 것이다.

끝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정부 소유의 생산시설 급 재산을 운영 우는 처리한다」는 것이다. 소위 정부 소유의 생산 시설이라는 것은 소위 「재산 양도 협정」에 의하여 명목상으로라도 리승만 괴뢰가 넘겨 맡은 적산인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국유화하여 전인민의 소유로써 전인민의, 운영에 맡겨져야만 이 시설이 복구 발전될 것이다.

그런데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국유화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이것을 「운영」우는 「처리」한다는 것이다。그러면 누가 이것을 「운영」할 것인가? 묻지 아니하여도 그 대부분은 미 제국주의자 자신인 것이다。누구에게 이것을 처리하겠는가? 또한 묻지 아니하여도 그 대부분은 미 독점가 자신에게인 것이다。이러한 사태는 남조선의 민족경제를 혹독하게 파괴하고 미 제국주의자에게 예속화를 심각케 하는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져올 것이 없는 것이다。

사실에 있어 이 제二조에서 남조선의 산업 경제는 미 제국주의자에게 소요되는 원료 산출에 국한시키고 이 원료 산출을 위하여 미국인의 투자 및 상업의、특권을 보장시키는 동시 미국인의 자본에 의하여 적산이 운영 내지 불하되도록 규정되었었다。남조선 민족경제의 파멸적 운명이 이보다 더 어떻게 심각하게 될 수 있겠는가? 이위에 재정、통화신용、외국위체、무역、등등이 모두 미 제국주의자의 지시 감독 하에 의존하게 되었고 심지어 량곡 수집까지 워싱톤 정부의 감독하에 얽매이게 된 것은 워싱톤 정부의 감독이 너무나 주도 면밀하여 물샐틈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소위 「한 미 경제 원조 협정」 제三조는 소위 「원조」라는 명목 위에서 소위 미국인 원조 대표들이 취득하는 광범하고 무제한한 권리를 규정하였었다。즉 「한국 자체의 자원」과 미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원조」를 리용하는 권한、정치상 모든 특권、「자유로 한국에 출입」하는 권리、「자유로 려행하며 시찰」하는 권리、「한국 공민 급 주민의 고용」의 권리、「회계 및 자료를 마음대로 요구」하는 권리、소위 원조를 정지시키는 권리 등등을 소위 미 원조 대표는 보장받게 되어 있다。여기에서 우리가 놀랠 것은 소위 미 원조 대표는 이러한 광장한 권한을 가지면서 책임에 대하여는 한가지도 지는 것이 없는 그것이다。이자들은 사실상 식민지 통치자들로서 노예 위에 군림하는 존재들로 되어 있다。

소위 「한 미 경제 원조 협정」은 소위 「재산 및 재정 양도에 관한 한 미 협정」과 함께 미 제국주의자의 남조선에 대한 침략 정책의 기본적 및 행동적 푸로그람이다。미 제국주의자의 최근의 모든 활동과 행위들은 이 두 「조약」을 구실삼아 전개되고 있으며 이 두 「조약」에 근거한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의 민족경제를 더욱 더욱 파멸로 몰아넣고 그 예속화를 더욱 더욱 심각하게 촉진하고 있다。

× × ×

그러면 이 두개의 「조약」에 의하여 나타난 사실들은 무엇인가?

물론 매국노 리승만 도당들은 최근에 이르러서는 테로와 학살로써 더욱 더욱 모든 언론을 봉쇄하고 특히 남반부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진상에 대하여는 그 발표를 혹독하게 금지하는 반동 정책에 더욱 열광하고 있다。여기에 따라 경제 파멸에 대한 자료는 사실도서 극히 희박하게 로정되고 있다。그러나 아무리 광포하게 모든 언론을 봉쇄한다 할찌라도 그 추악한 붕괴상이 전연 나타나지 아니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선 우리는 남조선 산업에 있어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는 소위 「한 미 경제 원조 협정」에 의하여 예정된 소위 一九四九년 七월부터 一九五○년 六월까지의 소위 「원조」의 내용을 보기로 하자。

공식 자료에 의하면 이 기간의 「원조액」은 一억六천 三十七만딸라인데 이중 기계 및 그의 부속품을 위하여 예정된 액수는 겨우 七백九十一만딸라이다。즉 전액의 五%에 불과하다。그리고 소맥분、사탕、강냉이、피복、화장품、기타 소비품이 一억三천九백二만딸라로써 전액의 八八%에 해당하는 거액에 달하고 있다。만약 남조선 산업 경제를 전면적으로 파멸의 구렁으로 집어넣으려는 흉책이 아니라면 일제가 남기고 간 산업 부문이 거의 휴지 상태에 있는 오늘에 있어 겨우 五%를 기계 부문에 할당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기계 및 부속품에 할당된 七백九十一만딸라 중에는 다만 광산용 기계에만 四백十六만딸라가 할당되어 기계 부문에 할당된 전액수 중의 五三%를 차지하고 있다。여기에서 소위 「한 미 경제 원조 협정」 중에서 「수출 산업」만을 발전시킨다는 조항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사실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 산업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파멸의 구렁으로 급속하게 몰아넣는 정책에 열중하고 있으며、산업 중에서는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원료 산업에 겨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에 의하여 남조선의 산업이 전면적으로 더욱 더욱 혹독하게 파멸되고 있는 것은 금년 六월 一일 련합신문의 보도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한국 공업의 심장부라고 볼 수 있는 영등포에는 대소 도합 二백여개의 여러가지 공장이 즐비하고 있는데 현재 운전되고 있는 공장의 수는 불과 五十五개소에 지나지 않으며 그중에서도 어김없는 금액과 [illegible] 적간에 종업원들에게 급료를 지불하고 있는 공장은 十여개소에 불과하다」라고 하였다。

「사실에 있어 우리가 남조선 산업의 진상을 파악하는 데는 위의 인용문이 그것을 단적으로 표시한다. 왜 그러냐 하면 련합신문은 리승만의 개인 기관지이며, 영등포는 남조선을 대표하는 공업지대인 까닭이다. 그러므로 이 보도는 남조선 산업의 파멸을 축소하였을찌언정 과장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며, 영등포의 공업은 다른 모든곳보다 그 상태가 나을찌언정 못하지는 아니할 것이 분명할 것이다. 그런데 이 보도는 영등포에서도 겨우 二五%의 공장이 움직이고 있을 뿐이며, 진실한 의미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불과 五%밖에 아니된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참혹한 파멸이며, 비참한 상태인가?

남조선에 있어서 민족경제의 이와 같은 파멸은 필연적으로 남조선 경제가 미 제국주의자에 의한 예속화가 더욱 심각하게 되는 것과 병행되고 있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것은 소위 「한 미 경제 원조 협정」에 의하여 가져오는 불가피의 결과인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실제에 있어 벌써 경제의 중추 부문은 그 전부를 자기의 손에 장악하고 있다. 「택사쓰」 「스탠다드」 「라이징쎈」의 三대 석유 재벌의 독점에 의한 「대한 석유회사」의 설립을 비롯하여 「대한 석탄 회사」, 「광불개발 공사」, 「광업 진흥 회사」, 「대한 전력 회사」, 「대한 해운 공사」 등의 설립 및 운영에서 볼수 있다. 이 六개 회사의 설립 및 운영으로 인하여 동력, 지하 자원, 연료 및 운수의 권리를 미 제국주의자들이 직접 장악하게 되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 부문을 장악함으로써 남조선 전경제를 자기에게 예속시키는 동시에 미 독점자본가들의 터찌꺼기를 얻어먹는 매판적 관료자본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의 지시 하에 있는 리승만 역도들은 최근 남조선 경제의 예속화와 파괴를 더욱 촉진하는 또 한가지의 악랄한 매국 흉책을 구미고 있다. 이것은 소위 「귀속 재산 처리 법안」을 소위 「국회」에서 통과시키어 인민의 소유로 돌아와야 될 적산 기업체들을 팔아먹으려는 흉책인 것이다.

그러면 원쑤들은 인민의 소유인 기업체들을 어떻게 팔아먹으려고 예치하고 있는가? 동법 제八조에 이 음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다. 「귀속재산 중 일본 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동산, 기타 제권리 등 일체의 재산은 본래의 종합적 단일체 그대로 평가해서 매각하는 것이다. 단 기업체로서 종속할 가치가 없을때, 또는 기업체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을 때에는 그 재산을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위「처리」

는 소위 「한 미 경제 원조 협정」에서 벌써 규정된바 이러한 처리는 미 자본가의 독점과 반동적 매판자본의 발전을 가져옴으로 예속화를 더욱 촉진시킬 것은 물론이어니와 한 기업체를 분할 매도한다는 것은 산업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더욱 광란적으로 가져올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예속화와 산업 시설의 파괴는 즉 민족경제 파멸을 더욱 급격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남조선 경제의 파멸은 남조선 통화팽창과 딸라 환산률의 폭등에도 심각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 조선은행권의 발행고는 十一월 十二일 현재로 五백五十八억의 천문학적 숫자에 도달하고 있으며, 四五〇대 一의 대불(弗) 환산률은 일약 九백五〇대 一로서 폭등시키게 되고 있다.

농업에 있어서 그 수확고가 년년이 감소되는 것은 미 제국주의자의 침략 하에서는 불가피의 현상인 것이다. 금년도 수확의 예상고는 겨우 一천四백七十만석으로 작년 一천五百四十만석에 비하여 실로 七十여만석 즉 九%의 감소를 예견시키고 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의 실시를 완강히 거부하고 고률의 소작 제도를 유지하면서 총검으로 살륙적 공출을 강행하는 조건은 농업의 위축을 가져오고 있는 원인인 것이다. 만약 매국 「국회」에서 최근 획책하고 있는 생산물의 二四할을 八년간에 농민에게 부담시킴으로 농민들에게 농토를 강제 매상시킨다면 농업의 파멸은 더욱 우심할 것이다. 이 음모는 소위 국회 의원 강진국의 폭로에 의하면 현시가의 약 四배 즉 一평당 五十원미만의 로지를 二백원의 고가로 농민들에게 강제 매상시키는 것이다. 농민들의 농경에 대한 의욕이 어떻게 날 수 있겠는가?

강제 공출에 대한 흉책은 금년도와 같이 감수된 조건 하에서도 또다시 三백 五十만석을 원쑤들은 예정하고 있다. 이것은 소위 「한 미 경제 원조 협정」에서 리승만 도당들이 책임진 것으로 일본 군국주의의 재생을 위하는 미 제국주의자의 푸로그람의 한 궤치를 차지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산업 농업을 통하여 우리의 민족경제가 전반적으로 급격하게 파멸되어 감에 따라 로동자 농민 및 기타 소시민들의 생활 형편은 더욱 더욱 비참하게 되고 있다. 이것은 최근 남조선 물가가 一九三六년도에 비해서 一천 二백 三十배로 폭등하였으며 十월 말 현재로 一九四七년 동기에 비하여 곡물 二七二%, 연료 三四二%, 직물 二四七%의 폭등 (二十일발 한국통신) 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빈궁과 기아와 실업과 걸식은 전인민에게 대한 매국

도당의 테로와 학살과 함께 더욱 그 폭위를 나날이 더하고 있다。남조선은 미 제국주의자와 그 주구 리승만 도당에 의하여 인민 학살의 도살장으로 화하고 있다。

× × ×

중요 산업 국유화와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의한 토지개혁의 성과를 토대하여 북반부 인민들은 조국 통일의 민주주의적 성채를 나날이 튼튼히 하는 동시에 자기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날로 향상시키고 있다。위대한 공화국의 二개년 인민경제계획을 착착 달성함으로써 우리 민족경제는 벌써 식민지적 편파성을 극복하고 해방전 생산 수준을 멀리 초과하게 하며 완전 자주적 경제로 전변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와 그 주구 리승만 도당의 지배하에서 날로 그 파멸이 혹심하여 가는 남반부 민족경제를 부흥 발전시키며 남반부 인민들을 학살과 기아에서 구출하려면 남반부에서 미 제국주의자의 경제적 정치적 점령을 종결시키고 그 주구 리승만도당을 타도하고 미제의 침략 도구인 소위 「유·엔 조선위원단」을 구축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쟁취하는 데서만 가능하다。

향상하는 북반부 민족경제는 파멸되어 가는 남반부의 산업 경제를 신속한 기간 내에 부흥 발전시킬 조건들을 구비하고 있으며 더욱 더욱 구비하여 가고 있다。

전조선 인민들은 자기들의 당면 과업인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쟁취하기 위하여 거족적으로 궐기하고 있다。승리에 대한 확고한 자신심과 원쑤들에 대한 높은 경각심으로써 전인민들은 우리의 민족적 영웅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일성 장군을 수반으로 한 공화국 중앙정부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공화국 정부의 옳바른 시책을 받들고 원쑤들과의 투쟁에 용감하게 나아가고 있다。우리 투쟁은 보일보 영광스러운 승리에 접근하고 있다。

참고자료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계급적 본질

법학박사 교수 브·쓰·마니꼽쓰끼

一

제국주의 시대는 사회주의 혁명의 전야이다。 레닌과 쓰딸린에 의하여 완성된 자본주의의 불균형적 발전에 관한, 자본주의적 착취 제도를 반대하는 근로 대중들의 계급 투쟁의 장성 과정에 있어서 세계 제국주의의 약한 고리의 파멸에 대한,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 혁명과 쏘베트 사회주의 국가의 국제적 의의에 관한 학설은, 제二차 세계 대전 후 중앙 및 동남 구라파 제국가에 있어서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의 승리의 원인 및 본질을 해명하는 데 열쇠를 주고 있다。

동 및 동남 구라파 제국가에 있어서 인민민주주의 혁명은 쏘베트 동맹의 결정적 역할에 의한 팟쇼 독일과 그의 종복들의 격멸로 말미암아 가능하였으며 승리한 것이다。

이 혁명은 지주 및 대자본가들을 반대하는 로동계급과 그의 전위대인 공산당이 령도하는 광범한 인민 대중의 혁명적 계급 투쟁과 파시스트 강점자들을 반대한 전쟁인 인민 해방 전쟁의 결합이었다。

인민민주주의 혁명은 그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농촌 경리에 있어서 봉건적 잔재의 숙청, 농업 개혁 기타 등)의 제과업도 해결하였다。 그러나 자기의 추진력에 있어서, 또한 자기의 계급적 본질에 있어서 그것은 사회주의 형(型)의 혁명이다。

인민민주주의 혁명 발전의 첫 단계에서 그 혁명에 부르죠아지의 부분적 그루빠들의 참가를 용인하였다는 그 사실은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발전과 방향을 결정한 결정적 계급 력량이 로동계급과 근로 농민 대중이었던 만큼, 사회주의 혁명으로서의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체의, 계급적 지향성을 조금이라도 변경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으로 론술하는 것은 심각한 착오이며, 비맑쓰주의적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 혁명들의 특성은 중앙 및 동남 구라파 제국가에서는 구체적 력사적 제조건 하에서 대부르죠아지와 지주들을 반대하는 혁명적 투쟁이 히틀러 강점자들을 반대하는 민족해방 투쟁과 깊이 결합되었다는 거기에 있는 것이다。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발전은 인민민주주의 여러 나라들에서 현저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실례를 든다면 루마니야에서는 광범한 인민 대중의 계급 투쟁이 단꺼번에 승리에로, 또는 로동계급의 독재를 수립함에 이르지 못하였다。 로동계급이 국가적 지도를 실현하는 인민민주주의 정권이 견고하게 된 것은 겨우 라게쓰쿠 정부 전복 이후 즉 미하이 황제가 폐위(一九四七년 十一월 三十일)된 이후이라고 할 수 있다。

쏘베트 군대는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영미 군대들의 간섭을 방지했다。 이 간섭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겠는가 하는 것은 영미 군대들이 희랍에 주둔함으로써 초래된 희랍 인민들의 곤난의 실례에서 볼 수 있다。

쏘베트 군대는 또한 이 국가들에서 히틀러 점령 군대 및 그들과 함께 대중들의 혁명 운동의 탄압을 준비한 반동적 부르죠아지들의 무력을 격파하여 국내 전쟁을 방지했다。

인민민주주의 제국가는 그들의 독립의 초소에 위대한 사회주의 강국인 쏘베트 동맹이 청렴(淸廉)하게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외국 간섭이나, 국내 전쟁을 피하게 되었다。 이 점에 국제적 반동 및 제국주의적 침략자들에 대한 진정한 민주주의적 력량의 투쟁의 방패로서의 쏘베트동맹이 가지는 국제주의적 전세계사적 의의가 심원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러면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사회적 본질이란 어떠한 것인가? 인민민주주의 국가 창건에 있어서 로동계급과 그의 전위대인 공산당의 역할은 어떠한 것인가? 인민민주주의 국가는 맑쓰—레닌적 학설의 견지에서 본다면 어떠한 국가의 형태인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전환기에 있어서는 一八五二년 三월 五일 웨제르메이에르에게로 보내는 맑쓰의 유명한 서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다만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만이 정권의 본질로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정권의 구체적인 정치적 형태에 관해서 그것은 「맑쓰는 변혁 당시에 얼마나 많은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것이며, 변혁 과정에서 모든 정세가 어떻게 변화되며, 변혁 과정에서 그 정세가 얼마나 빈번히 그리고 맹렬하게 변경될 것이라는 것을 훌륭히 리해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나, 또한 사회주의 혁명의 미래의 활동가들에게 변혁의 형식, 수법, 방식에 관해서 구속시키지 않았다」고 레닌은 썼다。 (레닌전집 二六권 三二八폐지)

레닌과 쓰딸린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가장

높은 형태로 되며, 광범한 근로 대중을 국가 기관에 가장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착취자들의 반항을 진압하는 형태로 되는 그러한 정권 형태를 쏘베트에서 개척하였다. 쏘베트는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전세계 근로자들에게 대한 인민적 정권 기관의 모범으로 되었다.

그러나 쏘베트에는 근로자들의 정권 형태로서의 모든 거대한 국제적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닌과 쓰딸린은 구체적 력사적 제조건 하에서는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직능을 실천하는, 이와는 다른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수차나 강조하였다. 「모든 민족이 사회주의로 도달할 것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모두다 전혀 동일하게 도달하지는 않을 것이다. 매개 민족은 민주주의 형태에 있어서나,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특이성에 있어서나, 사회 생활의 여러 부면의 사회주의적 개혁 속도에 있어서 각개의 특성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레닌은 썼다. (레닌전집 二三권 五八페지)

그러나 근로자들의, 정치적 주권 형태에 있어서 개별적 특수성이 존재하다 하더라도 그 정권의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로서의 본질은 조금도 동요되지 않는 것이다.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은 물론 정치적 형태의 거대한 다양성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본질은 불가피적으로 하나이며, 그것은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인 것이다」(레닌선집 二一권 三九三페지)

인민민주주의 국가는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이다. 그것은 파시스트 독일이 격멸되고, 쏘베트 군대에 의하여 중앙 및 동남 구라파 국가들이 히틀러 폭정자들로부터 해방되고, 이 국가들에서 친 히틀러적 분자들의 합동이 진압된 결과와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첨예화된 조건 하에서 발생된 것이다.

파란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사회적 본질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베루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인민민주주의 로대에 쏘베트 동맹의 헌신적이고 영웅적인 방조가 놓여 있는 것과 같이, 쏘베트적 방법에 비해서 상이한 우리 방법의 토대에도 쏘베트 동맹의 백방으로의 방조와, 승리적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경험과 업적의 리용이 놓여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민민주주의 범위 내에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직능을 특수하게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인민민주주의는 로동계급을 수반으로 하는 근로자들의 정치적 제조건 하에서 사회주의의 길로 걸고 있는 우리의 발전을 보장하고 있다」(브·베루트 「파란 유일 로동당의 사상적 기초에 대하여」

—항구한 평화와 인민민주주의를 위하여— 一九四九년 一호)

레닌과 쓰딸린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에 관한 맑쓰주의 학설을 발전시키면서 그 범위 내에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가 실현될 수 있는 각종 정치적 형태의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예견하였다. 이 천재적 예견은 지금 새로운 정치적 형태인 인민민주주의 국가 형태에도 그의 구체적 표현이 있는 것이다. 인민민주주의 국가가 쏘베트 동맹과 구별된다는 것은 본질상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정치적 형태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할 따름인 것이다. 그·므·지미뜨로브는 불가리야 공산당 제五차 대회에서 말하기를 「토로에 나오는 약간의 동지들은 인민민주주의 제도가 쏘베트 제도보다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 중심을 두고 인민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비교는 정당하지 못한, 유해한 결론으로 이르게 할 수 있다. 맑쓰—레닌주의적 정의에 적응하다면 쏘베트 제도와 인민민주주의 제도는 동일한 정권, 즉 도시 및 농촌의 근로자들과 동맹한 로동계급의 정권의 두가지 형태이다. 이 두 제도는 모두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두가지 형태이다」라고 했다. (「쁘라우다」 一九四八년 十二월 二十七일)

인민민주주의 제국가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는 로동계급의 헤게모니 하에 로동계급과 근로 농민의 동맹에 기초되는 것이다. 로동계급의 헤게모니와 그의 전위대인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은 로동계급과 공산당이 히틀러 강점자들과의 영웅적 투쟁의 결과, 이 나라들에서 달성되었다. 공산당이 당한 막대한 희생은 로동자와 근로 농민들의 동맹을 피로써 굳게 결합시켰다. 광범한 근로 농민 대중과 전체 근로 인민들은 공산당은 나치스트 폭정자들과의 투쟁에서 자기의 힘을 아끼지 않는 무한히 충직한 인민의 당이라는 것을 사실에서 확신하게 되었다. 「모든 혁명의, 그리고 피압박 계급의 모든 운동의 경험 및 전세계적 사회 운동의 경험은 다만 프로레타리아트만이 분산되고 락후한 근로자들과 피착취 주민층을 단결시키고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시한다」(레닌전집 二四권 一四페지)고 레닌은 썼다.

다만 변절자이며, 뜨로쯔키스트인 찌또도당들만이 농민이 「유고슬라비야 국가의 가장 견고한 토대」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 유고슬라비야 인민의 변절자들은 로동계급의 지도적 역할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토호(土豪)당의 진영에 서 있었다.

인민민주주의 국가는 쏘베트 사회주의 국가에 비하면 그의 정치적 형태가 다르다 할찌라도 그

타잎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인민민주주의 국가에는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三개 방면(方面)에 관한 레닌—쓰딸린적 학설이 구、현되어 있다。

중앙 및 동남 구라파의 인민민주주의 제국가는 착취자들은 진압하며、인민민주주의 제도의 강화를 위하여 정권을 사용하고 있다。국내적 반혁명 분자와 외국의 국제 반동 세력들은 이 국가들에서 이전에 존재하던 착취 제도의 회복을 위한 흉악한 투쟁을 하고 있다。음모、간첩、파괴공작 등—이러한 것이 그들이 사용하는 인민민주주의 국가와의 각종 투쟁 방법인 것이다。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는 국가의 방위를 위해서、또한 전세계 근로자들과의 국제주의적 련관의 강화를、위해서 인민민주주의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다。민족적 국한성、국제주의적 관계와의 분렬(이것은 찌또를 수반으로 하는 유고슬라비야、인민의 변절자들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은 완전히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본질과는 다른 것이다。

인민민주주의、제국가에 있어서 찌또의 반역적 정책에 대한 일치한 비난은 전세계 근로자들 앞에 지고 있는 인민민주주의 제국가의 국제주의적 책임성이 견고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인민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제二 방면으로 되는 것은 부르죠아지로부터 근로자들과 피착취 대중을 결정적으로 분리시키기 위한 투쟁이며、프로레타리아트와 근로 대중과의 동맹을 강화할 그들을 사회주의 건설에로 인입시키며、이 대중들로써 프로레타리아트의 국가적 지도를 강화시키기 위한 투쟁이다。

인민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세번째의 방면으로 되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과 계급의 청산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의 숙청을 위한 투쟁이다。공산당、인민 대표 기관、및 인민민주주의 국가 정부의 모든 활동은 이 위대한 력사적 과업의 실현에 향하여졌다。

쓰딸린 동지는 자기의 천재적 로작「레닌주의의 제문제에 대하여」에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세가지 방면을 분석하면서 쓰기를「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는 이 모든 세가지 방면을 다 결합한 것이다。이 방면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가지고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의 유일한 특징이라고 내세울 수 없다。그와 반대로 이 세가지 특징 중에서 하나이라도 빠진다면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는 자본주의 포위의 환경에 있어서 독재로 되지 못하기에 넉넉하다。그러므로 이 세가지 방면 중에서、어느 한가지든지 제거한다면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의 개념을 의곡할 위험성이 반드시 생긴다。오직 이

세가지 방면을 하데 합하여 놓은 것만이 우리에게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에 대한 완전하며、또한 완성된 개념을 주는 것이다」(「레닌주의의、제문제」 조선문판 제一권 二二三폐지)라고 하였다。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의 세가지 방면에 대한 쓰딸린 동지의 학설은 사회주의 국가 형태로서의 인민민주주의 앞에 서고 있는 과업들을 리해하기 위해서 가장 고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인민민주주의 국가는 그의 경제에 있어서、인민 경제 생활의 모든 범위、내에서、사회주의가 아직 승리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주의적 형태의 국가로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한 문제에 관하여서는 쏘베트 동맹의 발전의 첫 시기에 있어서、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쓴 레닌의 지시를 상기할 수 있다。「로씨야의 경제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경제의 과도적 특성을 부정할 사람은、아마 없었을 것이다。사회주의적 쏘베트 공화국이란 말은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을 실현하는 쏘베트 주권의 결의(決意)를 의미하는、것이며、새로운 경제 질서를 사회주의적인 것이라고 전혀 인정치 않는 한 사람의 공산주의자도 없을 것이다」(레닌전집 二二권 五一三폐지) 제三차 전로 쏘베트 대회에서 레닌은 말하기를「우리 쏘베트 공화국은 사회주의적 공화국이다。왜냐 하면 우리가 이 길에 들어섰으며 그 말이 빈말로써만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레닌전집 二二권 二二三폐지)

레닌의 이 천재적 지시들은 인민민주주의 국가를 사회주의적 형태의 국가로서 리해하는 데 있어서 비상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인민민주주의 제국가의 경제에는 사회주의가 아직 인민 경제 생활의 전제 범위 내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지는 못하였다 할찌라도、그러나 이 국가들은 자기의 형태、자기의 목적 및 임무에 있어서 사회주의의 국가인 것이다。인민민주주의 국가—이 국가는 과리꼼무나 형(型)의 국가이다。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프로레타리아적 성격을 부정하며、그것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중간의 길로、사회주의 국가에 대립되는、국가의 특수한 형태로 보는 견해들은 맑쓰—레닌주의에 극심한 해독을 주는 것이다。

이 수정주의적、멘쉐위끼적 견해들에 대한 폭로는 인민민주주의 제국가에 있어서 로동계급 독재의 강화에 대한 과업 중의 하나로 된다。

二、

인민민주주의 제국가에 있어서 로동계급과 근로농민의 정권의 장악은 부르죠아적 착취 국가 기

관의 파멸을 가져왔다。 그러나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낡은 국가 기관의 파멸은 로씨야에 있어서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 혁명 과정에서의 국가·기관의 파멸에、비한다면 약간의 특수성들로 구별된다。 중앙 및 동남 구라파 국가들에서 부르죠아지는 첫 시기에 이 국가들의 령역에 쏘베트、동맹의 무력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국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었으며、국가 기관을 인민민주주의 제도와의 반혁명적 투쟁을 위해서 광범히 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을 고려에 두어야 한다。 이 국가들에서 국가 기관의 파멸 과정이 어찌하여 로씨야의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 혁명 시기보다 더 느리게 진행되었는가를 이 점에서 리해하게 되는 것이다。

제二차 세계 대전 시기에 중앙 및 동남 구라파의 약간의 국가들(파란、체코슬로바키야)은 점령되었으며、그들의 민족적 국가 기관은 독일인들에게 해제되고、독일·점령 통치 기관이 창설되었다。

히틀러 점령 군대들은 파란 부르죠아지의 국가 기관의 폐허 위에다 독일 파시즘의 괴이한 자본주의적 행정 관리 기관을 수립하였다。 기타 파시스트 추축에 가맹한 국가들(항가리、루마니야、불가리야)은 사실에 있어서는 히틀러 군대들에게 점령되었지만 자기의 민족적 국가 통치 기관을 보존하였다。 실례로 불가리아는 실제적으로 독일아 점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보리스 황제 도당인 필로바가 一九四一년 三월 一일 불가리야를 추축국에 련합시켜서 독일 군대들이 국내로 들어온 리유로) 불가리야 국가 통치 기관은 파괴되지 않았고 형식적으로는 행동을 계속했다。「불가리야에 대한 독일 군대들의 침입은——하고 브·체르벤꼬브는 말하기를——국가 기관의 붕괴 및 순전히 독일식 제도의 수립은 동반하지 않았다。 실지에 있어서 독일인들은 불가리야에서 불가리야를 쏘련、유고슬라비야、희랍을 반대하는 강탈적 전쟁의 실시를 위한 병참기지로 변경시키면서 통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국내에서 자기의 강탈적 사업을 「불가리야의 파시스트적 지배자들의 손으로써 하였다」(「一九四七년 九월 파란에 있은 수개국 공산당 대표자들의 보도국 회의」——一九四八년 국립출판부판 二〇四——二〇五폐지) 대체로 이와 같은 제도들은 역시 항가리와 루마니야에도 히틀러 군대들에 의해서 설정되었다。 이와 같은 중앙 및 동남 구라파 국가들의 상태에 있어서의 차이는 인민민주주의적 혁명 과정에 있어서 국가 기관의 파멸에 반영되지 않을 수 없었다。

독일 파시스트의 점령 하에서도 민족적 국가 통치 기관이 보존되어 있은 그 국가들에서는 민족적 착취적 국가 기구의 전복과 새로운 국가 기관

의 창설 문제가 전면적으로 제기되었다。

이 국가들의 근로 대중들에게는 착취적 국가 기관이 다만 자기 나라의 부르죠아지들의 수중에서 탄압의 도구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독일 강점자들의 수중에서 민족적 정복의 도구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 증오시되고 있었다。

이 국가들에서 로동계급과 근로 농민 대중이 정권을 잡은 이후 낡은 국가 기관은 전복되었다。 례를 들면 불가리야에서는 우선 군대의 근본적 재편성을 하였는데 그것은 히틀러 도배들과 투쟁하기 위해서 전투 능력있게 만들것이 가장 필요하였던 것이다。 군대는 인민 유격 부대들과 근로자들의 출신인 수천명의 지원병들로써 충만되었다。 군대의 지휘적 성원 내에는 큰 변화가 진행되었다。 즉 지휘적 직위에서 반동적 장교배들이 제거되었으며、그 자리에는 유격대원들、이전 정치 범인들、그리고 반파시스트적 인재들이 나섰다。 정치 부(副)지휘관들의 특별 학교가 창설되었다。 재편성된 군대는 극심한 국제적 및 국내적 반동의 음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리야에서 인민민주주의 정부의 견고한 방패로 되었나。

불가리야에서는 헌병과 경찰 기관이 완전히 숙청되었다。 유격대원들과 로동자들로써 인민민주주의적 보안 기관들이 새로 창설되어 파시스트적 흉책의 각종 계획을 파괴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놀았다。

자본가와 지주들에게 봉사하는 재판 기관의 낡은 제도도 또한 파멸되었다。

히틀러 점령 군대들이 공공연하게 이전 국가 기구를 독일 행정 기관으로 교대시켜서「신질서」를 창설한 그러한 국가들에 있어서는 착취적 국가 기구의 파멸이 약간 다르게 진행되었다。 그리하여「파란에 있어서 전체 국가 기관이 독일 파시스트 강점자들의 수중에 있었을 때 그것은 그들의 독재 기관이었다。 독일 파시즘의 격멸에 따라 점령된 국가들、그 중에는 파란에서도 그의 독재 기관은 분해되었다。 히틀러 독일이 패망하는 시기에 지하의 부르죠아、지주의 단체들은 이 기관의 점유를 준비하였다」(삐루트——「파란 유일 로동당의 사상적 기초에 관하여」)

히틀러 군대의 격멸은 보·삐루트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파란 지하의 반동이 장악하려고 시도하였던 점령 관리 기관의 격멸도 또한 동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인민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낡은 착취적 국가 기관의 파멸 과정이 비록 로씨야의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 혁명 행정에 있어서와 같은 그러한 급속한 속도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인민민주주의 국가 앞에 서 있는 제과업을

보장할 능력이 있는 새 간부를 진출시키는 방법으로, 그리고 기관으로부터 반동적 요소를 제거시킴으로써 낡은 기구는 완전히 숙청되었거나, 혹은 점차적으로 근본적인 개편이 되었다。 그 결과 새로운 군대, 보안 기관 및 기타 관리 기관들이 창설되었다。

쏘베트 동맹의 편으로부터의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 정치적, 및 경제적 지지는 그 발생 시초에 十四개의 제국주의 국가의 침공을 받았던 쏘베트 로씨야의 형편보다, 더욱 유리한 정세 하에서 자기들의 새로운 국가 기구를 창설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들에게 주었다。

三、

쏘베트 사회주의 국가의 기능 및 사회주의 국가 발전의 각종 단계에서 가지는 그 기능의 제특성에 관한 쓰딸린 동지의 학설은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기능을 해명하는 데 있어서 비상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첫 기능으로서는 국내에서 전복된 계급들의 반항을 진압하는 것이다。 경험상으로 보면 착취 계급들은 매우 여러가지 형태로써 인민민주주의 제도의 전복과 부르죠아 국가 제도의 소생을 위한 투쟁을 진행한다。 국제적 반동은 인민민주주의 국가 내에 있는 반정부적 음모에 대해서 각종의 가장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파란에서 비밀 깡그단들과 합류된 미꼴라이치크 및 그의 앞잡이들의 범죄적 활동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광범한 재정적 원조를 받았던 것이다。 이것은 음모자들에게서 나타난 많은 문건들로써 충분히 증명되었다。

인민민주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전복된 착취 계급들이 진행하고 있는 이 투쟁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이 계급들을 진압하는 기능이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되는 것이다。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두번째 기능으로서는 외부의 침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기능인 것이다。 제국주의 진영에 있는 전쟁 방화자들은 반제국주의적이며, 진정한 민주주의 진영으로 되고 있는 쏘베트 동맹과 인민민주주의 제국가를 반대해서 「랭정 전쟁」을 진행하고 있다。

자기의 독립, 자주권, 및 자유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은, 반드시 자기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인민민주주의 국가들과 쏘베트 동맹 및 인민민주주의 국가들 호상 간에 친선과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은 광범한 인민 대중들의 리익을 보호하며,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투쟁하는 이와 같은 목적에

복무하는 것이다。 이 조약들은 완전히 그 형태가 새로운 것이다。 왜냐 하면 이 조약들은 호상 적대시하는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에서 체결된 것이 아니라, 친선적인 사회주의 국가들 간에 체결되었기 때문이다。

세번째 기능은 인민민주주의 국가 기관들의 경제, 조직적 및 문화 교양적 기능인 것이다。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의 부흥, 향상, 및 발전에 대한 쏘베트 동맹의 전반적 경제 원조와 또한 쏘베트 동맹의 사회주의 건설 경험을 광범히 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국가들은 극히 짧은 시일 내에 사회주의 건설의 길로 향하여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것이다。 파란에서는 一九四八년에 공업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적 부문이 지도적으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배적으로까지 되었다。 一九四八년도에 그 부문은 전체 공업 생산고의 九四%를 내었다。 「인민민주주의 전체 국가들은 복구를 달성하였으며, 그 중의 어떠한 나라들은 공업 생산의 전전 수준을 훨씬 초과하였다。 파란은 五〇%, 체코슬로바키야는 一〇%, 항가리는 二七%, 불가리야는 七一%를 각각 초과하였다。 루마니야에 있어서도 공업의 많은 중요 부문에 있어서 역시 전전 수준이 초과되었다」 (「인민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사회주의적 경제의 건설」 —항구한 평화와 인민민주주의를 위하여— 一九四九년 三호의 사설)

인민민주주의 제국가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경제 로대의 전설은 협동조합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조건 하에서 국가적(사회주의적) 부문의 지도적 역할을 로대로 하고 이룩되었다。 왜냐 하면 이 국가들에 있어서 협동적 소유는 사회주의적 소유이기 때문이다。 불가리야 인민공화국 헌법 제八조에는 「전인민적 소유는 인민경제 발전에 있어서 국가의 중요한 지주(支柱)이며,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이 헌법 제九조에는 역시 협동조합에 대한 국가의 원조가 기록되어 있다。

국가의 경제적 조직적 및 문화 교양적 기능의 확장은 인민경제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요소들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적제로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민주주의의 적들이 이 기능의 확장을 반대하는 흉악한 투쟁을 수행하였고, 지금도 또한 수행하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인민민주주의 제국자는 경제적 조직적 활동과의 밀접한 련계 속에서 문화 부문에 있어서와, 높은 자격을 가진 간부들을 준비하는 부문에서 거대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반 시책과 쏘베트 동맹이 그 국가들에게 준 전반적 원조는 인민민주주의 제국

가가 성과있게、그리고 급속하게 사회주의적 경제의 토대를 건설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준다。그렇기 때문에 경제 조직적 및 문화 교양적 기능은 그 발전의 첫 단계에서 벌써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이와 같은 상태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인민민주주의 제국가의 기능 발전에 있어서 특성 중의 하나로 되는 것이다。물론 토지에 대한 개인 소유의 존재—인민 경제 내에 있는 개인적 자본주의 요소들의 현저한 역할은 국가의 경제 조직적 및 문화 교양적 기능의 완전한 범위에서의 확장을 곤난하게 한다는 것을 고려에 두어야 한다。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국가의 지도적 역할의 강화의 표현으로 되는 계획적 토대의 강화인 것이다。이 관계에 있어서 국가의 경제 조직적 및 문화 교양적 기능의 발전은 특히 명백하게 표현되고 있다。

인민민주주의 제국가 경제의 급속한 발전、그러고 또한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경제 조직적 및 문화 교양적 기능의 강화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一九四九년 一월 모쓰크바에서 불가리야、항가리、파란、루마니야、쏘베트 동맹、및 체코슬로바키야 대표자들의 경제 협의회에서 구성된 경제 호상 원조 리사회의 창설이다。

리사회는 경제의 경험을 교환하며、호상 기술적 방조를 표시하며、원료、식료품、기계 설비、및 기타의 호상 원조를 하는 등의、제과업을 가지고 회의에 참가한 제국가의 동등권을 가진 대표의 기초 위에 인민민주주의 제국가와 쏘베트 동맹 간의 가장 광범한 경제적 협조의 실천을 위해서 창설되었다。—

리사회는 앞으로 관계 국가의 승낙이 있어야만 제결적을 채택할 수 있다。

인민민주주의 제국가와 쏘베트 동맹의 광범한 경제적 협조의 조직은 한편으로는「……무엇보다도 상품 교류의 거대한 장성을 보여 주는 이상의 나라들 간에 경제적 관계의 발전에 있어서 거대한 제성과들을 예견하였다。이상에서 지적한 경제적 관계의 설정 및 경제 협조 정책의 실현으로 말미암아 인민민주주의 제국가와 쏘베트 동맹은 자기의 민족경제 부흥 및 발전을 급속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받았다」(「쁘라우다」一九四九년 一월 二十五일)

다른 편으로는 이 협조의 조직은「미국、영국、및 서구라파의 약간의 기타 국가들의 정부들로 하여금 인민민주주의 제국가 및 쏘베트 동맹과의 통상 관계를 본질적으로 절단하게 하였다。그것은 이

국가들이 마샬안의 독재에 예속할 수 없으며、이 마샬안은 국가의 자주권과 그들의 민족경제를 침범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다」(「쁘라우다」一九四九년 一월 二十五일)

이 협의회 참가국의 완전한 동등권은 경제 호상 원조 리사회의 활동을 세계 지배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미국 제국주의가 사용하는 도구 중의 하나인「마샬안」체계와는 근본적으로 구별케 하는 것이다。

경제 호상 리사회는 호상 원조 리사회의 제원칙을 동의하며、이상에서 말한 나라들과의 광범한 경제적 협조에 참가할 것을 희망하는 구라파의 다른 나라들도 가입할 수 있는 공공연한 조직인 것이다。경제 호상 리사회의 구성에는 알바니야도 가입하였다。이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호상 관계를 구성하는 제원칙과 점차적으로 마샬화된 구라파 각국을 미국 독점가들의 식민지로 변화시키는 이 구라파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독재와의 근본적 차이를 시위하는 것이다。

四、

인민민주주의 제국가의 공산당들은 국가적 건설과 사회 정치적 생활에 있어서 지도적 역할을 놀고 있다。히틀러 군대 및「신질서」와의 투쟁에 있어서 공산당들은 거대한 희생들을 당하였다。

「구라파에서 파시슴의 루치의 곤난한 시기에 공산주의자들이 파시스트 제도를 반대하며、인민들의 해방을 위한 믿음성있고、용감하고、헌신적인 용사로 되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의 영향은 장성하였다」(이·브·쓰딸린의 그·처칠의 연설에 관한「쁘라우다」기자와의 담화「쁘라우다」一九四六년 三월 十四일)고 쓰딸린 동지는 지적하였다。

공산당들은 정권을 장악하기 이전에 파시스트 제도와의 투쟁에 있어서나、또한 그후 인민민주주의 제도의 강화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도、기타 민주주의적 제정당、근로자들의 비당단체(직업동맹、청년단체 등 기타)들도 포함한 자기 나라의 전체 민주주의적、반파시스트적、반제국주의적 전선의 투쟁 서두에 섰다。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에 있어서 공산당의 활동은 다수 당이 있는 형편 하에서 진행하였다。이것은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현단계의 특성 중의 하나이다。국가 정권 [illegible]의 형성에 있어서 공산당들은 지도적 영향을 주고 있다。공산당들의 위신의 강화에 관해서는 불가리야、루마니야、파란、체코슬로바키야、항가리에 [illegible]—쓰딸린적 원칙의 기초에서의 로동당들의 활동이 증명하고 있다。사회주의 건설에 적대한 당파 그루빠들은 인민민주주의 제

도를 반대하는 착취적 분자들의 첨예화되어 가는 계급 투쟁에서 자기의 반동적 본질을 점점 폭로시키고 있다, 인민민주주의 제국가에서의 다당성(多黨性)은 로동계급 독재의 인민민주주의적 형태를 쏘베트 동맹에 있어서의 로동계급 독재와 구별하는 어떠한 고정적 특징으로는 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레닌은 로동계급에 의한 국가의 불가분적 지도를 로동계급 독재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보았다。

일반적인 합법칙성에 의하여서 인민민주주의 제국가 내에서 사회주의 건설이 발전됨에 따라 계급적 관계의 발전은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사업을 위한 가장 철저하며, 헌신적인 투사인 공산당 주위에 광범한 인민 대중을 전반적으로 련합하는 로선을 걷게 되는 것이다. 인민민주주의 제도가 앞으로 강화되는 과정은 다당성을 산출시키는 조건을 소멸시키는 데로 인도한다。 그러므로 인민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다당성은 어떠한 고정적인, 불변적인 것이 아니다。

만일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의 발전의 첫 단계에 있어서 공산당들은 지도적 당이었다면 지금 인민민주주의 제도가 결정적이며 완전한 강화를 이룬 一九四七—一九四八년에는 이 국가들에서의 사회 및 국가적 활동에 대하여 무한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우리 나라의 진보적 사회 발전은 다 및 그루빠들의 다수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착취적 자본주의적 체계의 모든 잔재들의 숙청에게로 가는 것이며, 그것은 국가 및 사회의 지도를 위한 유일당의 창건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항구한 평화와 인민민주주의를 위하여」一九四八년 七호) 라고 그·므·지미뜨로브는 썼다。

공산당들은 착취적 국가 기구의 파괴를 위한 로동계급 독재의 새로운 형태, 즉 인민민주주의 국가 형태의 창건을 위한 새로운 모든 체계, 진정한 인민적 국가 기관의 강화 및 개편을 위한, 국유화 실시를 위한, 토지 개혁 및 인민 교육 개혁의 실시를 위한, 새로운 간부들을 준비하기 위한 투쟁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인민민주 제도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졌다。

인민민주주의 제국가의 모든 새로운 헌법들은 국가의 전체 진보적 민주주의 세력의 광범한 참가 하에 공산당들에 의하여 창설되었다。

인민민주주의 제국가의 발전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계속 강화의 길로, 사회에 대한 국가적 지도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역할 및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길로 걷고 있다。 공산

당들은 국가 정권 및 관리 기관들의 활동을 거쳐 바꾸어 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국가의 새로운 경제의 향상을 위한, 사회주의적 경제 토대를 창전하기 위한, 근로 대중의 물질 문화 수준의 제고를 위한 투쟁에 근로 대중들을 결합시키는 지도적 력량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은 인민민주주의 전선들의 활동에서도 중시되고 있다。

인민민주주의 전선들은 인민민주주의 제도의 강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정당들의 전국적 련합으로써 출현하고 있다。 이 구성에는 민주주의적 단체들, 직업동맹, 협동조합, 청년, 녀성, 및 기타 단체들이 포함되고 있다。 인민민주주의 제국가의 공산당들의 과업은 인민민주주의 전선에 의거하면서 착취자들의 타도를 보장하며, 정권을 확고히 한후에는 인민민주주의 전선들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의 도구로 될 것을 보장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인민민주주의적 전선들의 발전은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에서의 계급 투쟁과 가장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자연한 일이다。 인민민주주의 전선들을 마치 어떠한 고정된 불변의 것으로 본다는 것은 큰 착오인 것이다。 부분적인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인민 전선에 가입한 정당들은 그 구성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강령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변화가 발생되고 있다。

간혹 인민들에게 대해서 가상적인 호의의 가면으로써 은폐된 인민민주주의의 적들은 실지에 있어서는 인민 전선의 내부에서 부르죠아 민주주의에로의 복구를 위한 가혹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다만 공산당들과 광범한 인민 대중들의 경각성에 의해서만 많은 인민민주주의 제국가 내에서 이 적들이 폭로되며, 인민민주주의 전선으로부터 추방당하게 되었다。

불가리야에서는 인민의 해독 분자들이 조국 전선의 분렬을 달성하려는 발광적인 시도를 계획하였다。 一九四四년 十二월에 영 미의 주구인 박사 지미뜨로브·게메또가 이와 같은 첫 기도를 하였다。 그는, 농업동맹의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것을 공산당에 적대되는 것으로 만들려고 시도했다。 그는 농민들의 자립적 정권에 관한 표어, 조국 전선 및 국가 관리 기관 내에의 결정적인 참가로부터 공산당원들을 제거하는 데 관한 표어를 내세웠다。 이 시도는 완전한 분쇄를 당하였다。

조국 전선 파괴의 두번째의 시도는 니꼴라이·뻬뜨꼬브를 수반으로 하는 불가리야 농업인민동맹의 반동적 우익 도당들과 반동적 사회주의 정당이 계획하였다。 이 반대당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지지 하에 조국 전선과의 정면적 투쟁을 수행하였다。

강화 조약 조인과 국가의 경제적 부흥에 있어서 첫 성과의 이후、 반대당의 인민 정권을 반대하는 음모에로 넘어섰다。 그러나 뻬뜨꼬브와 그의 옹호자들의 음모 계획들은 폭로되었고 조국 전선을 분렬시키려던 두번째의 시도도 또한 실패를 당하게 되었다。

불가리야가 새로운 국가 건설의 길로 더 성과적으로 들어갈수록 조국 전선을 분렬시키려는 국내 및 국외 반동파들의 시도들은 더욱 가혹하여졌다。 그들의 붕괴는 즉、 근로 대중이 낡은 자본주의 제도에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인민민주주의적 불가리야 앞에는 사회주의적 경제 토대를 건설하는 긴급한 제과업이 제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선의 새 강령에는 불가리야는 반드시 사회주의의 길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이 설정되었다。

쏘베트 군대의 결정적인 지지 하에 국내의 파시스트 제도의 전복을 위한 불가리야 공산당원들의 영웅적 투쟁과 인민경제의 부흥 및 장래 발전을 위한 투쟁은 조국 전선 내에 있는 불가리야 로동당(공산당원들의)의 거대한 결정적 영향을 조건지어 주었다。

인민의 해독 분자들은 민족 해방 및 계급 투쟁의 도구로서 박생된 인민민주주의 전선을 인민민주주의의 제도、 특히 인민민주주의 국가가 사회주의의 경제 토대 창건에로 전환하는 데 관련해서 그것을 반대하며、 리용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반동들의 흉계를 반대한 광범한 인민 대중들의 결정적 투쟁은 인민민주주의 전선을 개편하는가、 혹은 새로이 조직된 인민민주주의 전선으로 교대하는가 하는 데에 이르게 하였다。

一九四七년 후반기와 一九四八년에 있어서 인민민주주의 제국가 내에서 반동들의 격멸과 인민민주주의 제도의 완전한 강화와 함께 인민민주주의 전선들은 근본적으로 개편되었다。 그 결과 인민민주주의 국가 발전의 현단계에 있어서 인민민주주의 전선들 내에서의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이 완전한 범위로 실현되고 있다。

× × ×

쏘베트 동맹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있어서 거대한 의의가 있다。 사회주의 사회 건설의 실제적 방법들을 완전히 해명하고 연구한 것은 레닌과 쓰딸린이다。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 및 법령의 창설、 국가의 공업화、 집단화、 계급으로서의 부농파、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의 숙청 등의 정책은 중앙 및 동남 구라파 국가들에 있어서 비상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물론 이 국가들의 사회주의 건설의 발전에 있어서 앞으로 자기의 특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특성들의 존재는 이 발전의 일반적 합법칙성、 특히 계급 투쟁의 합법칙성을 제거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인민민주주의 제국가에서 사회주의적 건설이 더 강력하게 발전할수록 자본주의적 분자들의 반항은 더욱 가혹하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와 제국주의 진영 간의 투쟁 전선은 점점 더 광범히 전세계에 전개되고 있다。 제一차 제국주의 전쟁의 결과 자본주의로부터 로씨야가 떨어져 나갔다면、 제二차 세계 대전의 결과 인민민주주의 제도가 확정된 중앙 및 동남 구라파의 많은 국가들이 자본주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탄생은 기타 국가들(중국)에 있어서의 강력한 승리적 인민민주주의 운동과 같이 제국주의 체계의 붕괴와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의 진영의 강화의 일반적 합법칙성을 바야흐로 확증하고 있다。 지금은 「모든 길이 ― 하고 몰로또브 동무는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 혁명 三十주년에 관한 보고에서 말하기를 ― 공산주의에로 걸고 있다」 (「쏘베트 국가와 법률」 一九四九년 六호)

경쟁은 사회주의 사회 발전의 위력한 힘이다

아·즈·보트낀

레닌이 ―― 볼쉐위끼당과 쏘베트 국가의 위대한 창조자 ―― 쏘베트 사회의 새로운 창조적 추진력인 사회주의 경쟁을 처음으로 개시하였다。 一九一七년 十二월 젊은 쏘베트 공화국이 사회주의 건설의 첫 걸음을 내어 밟을 때에, 레닌은 그의 유명한 론문 「어떻게 경쟁을 조직할 것인가」를 발표하였다。

사회주의 사회를 마치 경쟁을 거부하며 사람의 활동을 일반화(개성을 빼앗는――역자)하는 사회인 것처럼 묘사하려고 시도하는 사회주의의 적들의 중상을 레닌은 무자비하게 폭로하였다。 레닌은 오직 사회주의만이 수천만 근로자들을 열성적 창조적 협동에로 제고하며 진정으로 우의적인 대중적 경쟁을 위한 넓은 활동 무대를 창설한다고 가르치었다。

—사회주의는 경쟁을 없애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경쟁――역자) 진실로 광범하게, 진실로 대중적 범위에서 응용할 가능성을 처음으로 창조하며, 근로자들의 절대 다수를 인민 속에 파문히어 있던 원천인 개성을, 발휘시키며, 능력을 발전시키며, 천재를 표현할 수 있는 활무대에 인도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자본주의가 수천 수백만 대중에게 대하여 짓밟았고 압박하였고 질식시켰던 것이다。

우리들의 과업은 ―― 레닌은 가르치었다 ―― 사회주의 정부가 정권을 장악한 오늘날에 있어서 경쟁을 조직할 것이다」 (레닌전집 二二권 一五八페지)

레닌은 로동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에 있어서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기본적 요인들을 천재적으로 명시하였다。 이 요인들은 즉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에로의 전환, 기업소들에서 생산자들의 새로운 상태, 생산에 있어서 기술과 문화의 가장 새로운 성과들을 리용하는 가능성들이다。 레닌은 「수백년 동안의 다른 사람을, 위한 로동, 착취자들을 위한 예속적 로동은 비로소 처음으로 자기를 위한 로동, 더우기 새로운 기술과 문화의 모든 성과들에 립각한 로동의 가능성을 얻게 되었다」 (동상 一六一페지) 라고 썼다。

이 예언은 인류 발전의 새 계단에 대하여 말한 것이며,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의 새 인간 면모의 륜곽을 예견한 것이다。

레닌의 사상을 새로운 력사적 조건에서 쓰딸린이 천재적으로 발전시키었다。

一九二七년 첫번째 미국 로동자 대표들과의 회견에서 쓰딸린은 『로동자들이 자본가들을 위하여서 로동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국가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계급을 위하여 일한다는 바로 그 의식(意識)은 우리들의 산업을 발전시키며 개선하는 문제에 있어서 거대한 추동력으로 되는 것이다」(「레닌주의의 제문제」 로문판 一八五페지)라고 말하였다。

一九二九년에 「대중의 경쟁」이란 저서의 서문에서 쓰딸린은 자본주의적 경쟁의 원칙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주의적 경쟁의 원칙을 명시하였으며 사회주의 건설의 공산주의적 방법으로서의 경쟁에 대한 깊은 과학적 정의를 내리었다。 전동맹 공산당 제十六차 대회에서의 보고에서 쓰딸린은 사회주의 경쟁을 「우리들의 건설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도 가장 중요한 요인들의 하나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또 그는 「경쟁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것은 그것은 로동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에 대하여 근본적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경쟁은 로동을 종전에 생각하던 것과 같은 부끄러운, 무겁고 괴로운 고역으로 생각하던 것에서 명예로운 일, 영광스러운 일, 용감하고 영웅적인 일로 변화시키는 까닭이다」(「레닌주의의 제문제」 三九三페지) 라고 말하였다。

레닌과 쓰딸린의 교시에 기초하여 볼쉐위끼당은 쓰딸린적 五개년 계획의 시기에 사회주의 경쟁을 전개할 것을 조직하였다。 공장과 기업소의 로동자들과 전원(田園)의 꼴호즈 일군들 수백만명이 경쟁에 참가하였다。 쓰딸린적 五개년 계획의 실현은 기술에 정통하는 간부들의 교양, 새로운 기술적 창조에 의거하였던 것이다。 성공적인 사회주의 건설의 행정에서 근로자들의 복리가 급속히 장성되었다。 이 모든 것이 사회주의 경쟁의 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단계인 쓰타하노브 운동을 준비하였던 것이다。

一九三五년에 발생된 쓰타하노브 운동은 「기술에 정통하라」는 쓰딸린의 호소에 대한 대답이었다。 쓰딸린은 쓰타하노브 운동은 「현대의 가장 생명력있고 극복할 수 없는 운동이며」 거기에 「우리들의 공업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강조하면서 쓰타하노브 운동의 위대한 력사적 의의를 밝히었다。 (「레닌주의의 제문제」 四九六―四九八페지)

사회주의 건설의 실제는 위대한 레닌―쓰딸린

사상의 생명성과 극복할 수 없음을 확증적으로 표시하였다。

레닌이 돌아간 후 二十五년 동안 사회주의 경쟁은 볼쉐위끼당에 의하여 조직되며 지도되면서 쏘베트 조국의 모든 근로자들의 자산(資産)으로 되었다。사회주의 경쟁은 전쟁전 쓰딸린적 五개년 계획의 시기에 쏘베트 경제의 발전을 추진하였다。사회주의 경쟁은 조국전쟁 시기에 힘든 과업들을 해결하며, 또 히틀러 독일에 대한 훌륭한 경제적 승리를 전취함에 있어서 쏘베트 인민을 방조하였다。사회주의 경쟁의 기초 위에 쏘베트 국가는 전후 쓰딸린적 五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현재 쏘베트 나라가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 점차적으로 이행하는 궤도에 들어선 때에 와서 사회주의 경쟁은 희유의 규모를 가지게 되었으며, 새로운 높은 계단에로 제고되었다。여기에 대하여서는 자기들의 성과들을—전후 五개년 계획의 기한전 완수에 대한, 생산 원가의 저하에 대한, 초계획적 축적의 장성에 대한, 회전 자금 회수률의 축진에 대한— 보도(報道)한 쓰딸린에게 보내는 근로자들의 편지들과 보고들에 표시되어 있다。

맑쓰주의—레닌주의는 생산력의 결정적 요인으로서의 인간의 역할을 강조한다。「일정한 생산 경험과 로동 기능에 의하여 그 생산 도구를 움직이며, 물질적 부의 생산을 실현하는 인간들」(「전동맹 공산당(볼쉐위끼)략사」一一五페지)——로문판)——쓰딸린은 썼다——생산도구를 가진(인간이) 생산력의 기본적 요소로 되는 것이다。

모든 력사적 과정을 연구하며 물질적 부의 생산에 종사하는 인간의 결정적 역할로부터 출발하면서 쓰딸린은 사회발전의 력사는 「물질적 부(富)의 생산자 자체의 력사이며, 생산 과정의 기본적 력량으로 되는 사회의 생존에 필요한 물질적 부의 생산을 실현하는 근로 대중의 력사」(「전동맹 공산당(볼쉐위끼)략사」一一五페지)이라고 가르치었다。

낡은 제도의 조건 아래에서 인간은 생산에 종사하면서, 생산 행정을 개선하면서 「이 개선이 어떠한 사회적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하여서 자각하지 못하며, 리해하지 못하며, 깊이 고려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조건 아래에서 생산자들은 생산수단과 분리되어 있다。생산수단은 로동자들에게 그들의 착취와 노예화의 수단으로서 대립되어 있다。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생산의 정신적 요소이며, 자본주의 조건 하에서 부르죠아 인테리겐차가 그 독점자로 되어 있는 과학도 역시 생산자와 대립한다。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만성적 실업과 자본주의에 있어서의 로동의 략탈적 착취 형태를 고려한다면 자본주의는 생산력의 주요한 요소인 진정한 생산자들을 완전히 리용하지 않으며 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 기업소들의 소유자들이, 그들이 무자비하게 착취하는 로동자에게 대하여서보다 생산 수단에 대하여, 또 그 유지에 대하여, 효과적인 리윤에 대하여 더 깊은 주의를 돌리고 있다는 데 대한 진상(眞相)이다。

원칙적으로 이와 다른 조건이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 조성되어 있다。사회주의 경제 체계는 실업을 모르며, 모든 근로자들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유익한 로동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쓰딸린 헌법에는 로동에 대한 권리가 쏘베트 공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기록되어 있다。

사회주의 경제 체계의 조건 아래에서 근로자들은 생산수단과 대립되어 있지 않으며, 도리어 그 집합적 소유자로 되어 있다。자본주의 조건에서 생산자와 분리되어 있는 생산의 정신적 요소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자 자체의 손에 쥐어져 있으며, 생산력 발전의 위력한 요인으로 된다。인류 력사상에서 처음으로 근로자들이 의식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생산 행정을 지도하는 창조자로 되었다。물질적 부의 생산자들의 이 의식적 활동은 사회주의적 생산력 발전의 결정적 요인으로 되며, 온갖 생산의 위력을 가장 완전히 리용하며, 생산 수단과 모든 기술적 행정(行程)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완성하는 조건을 지어주는 것이다。

대중의 창조적 발의(發意)를 발전시키는 것은 쏘베트 사회 제도 내부의 고유한 특성이다。근로자들의 발의를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에 있어서 생명력을 가진 필연성으로 되었다。대중의 창조적 열성이 없이는 쏘베트 경제는 발전할 수 없는 것이다。수백만 대중의 리해 관계는 사회주의 경제 장성에 있어서 그 추동력으로 되는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의 조건 아래에서 로동에 대한 새로운 관계는, 레닌과 쓰딸린에 의하여 천재적으로 지시된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깊은 의의를 가진 사회주의 경쟁에 있어서 가장 완전하게 명시되었다。대중적 사회주의 경쟁, 인민의 발의와 자기 활동을 전개시키는 것은 쏘베트 인민의 성과의 력사적 원천인 쏘베트 애국주의의 명백한 표현으로 되는 것이다。

사회주의 경쟁에서 발현되는 근로자들의 창조적 열성은 그들의 의식 수준과 사회적 리익에 대한 그들의 관심에 의존한다。근로자들의 선두에서 나가고 있는 공산당원들은 근로자들의 일상적 사업

에 자각적 정신과 조직성을 주입한다。 쓰베트 사회 제도의 조건 아래에서 근로자들은 생산 사업에 가장 절실한 리해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로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질과 량에 의한 임금 지불제를 철저히 응용하는 것은 이것을 촉진한다。국가 계획을 완수하며、초과 완수하는 우수한 지수를 위한 상여금 제도에 고무되면서 사회주의 경쟁은 쓰타하노브적 로동의 각양 형태를 생활에 불러들이며、생산의 혁신자들과 초과 달성자들을 산출한다。

× × ×

사회주의 경쟁과 쓰타하노브 운동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로동 생산성의 높은 성과에 있어서 사회주의에 의하여 고무되는 선봉적 로도자들의 창발성의 표현은 여러가지로 된다。

『국가적 규모로』경쟁을 조직할 과업을 제기하면서 레닌은 사회주의 경쟁의 여러가지 형태를 예견하였다。『로동자와 농민들의 숙련자 조직자들이 서로 경쟁을 조직하여야 한다。온갖 정형화(定型化)와 위로부터의 단일(單一) 형태로 법균화하려는 시도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레닌전집 二七권 一六六페지) 이 레닌의 위대한 유훈은 쓰베트의 현실을 변형시킨 것이다。사회주의 경쟁은 쓰베트 동맹에 있어서 적인민적으로 해마다 광범하게 확대될 뿐 아니라 새로운 형태를 취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쓰베트 산업에 있어서의 실제적 형편을 보기로 하자。

전쟁 전 시기에 쓰타하노브적 작업 방식에 있어서 분공이 거대한 역할을 한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전후 시기에 쓰타하놉츠들은 성과적으로 이 실험된 방법을 응용하였다。그리하여 쓰타하노브적 분공은 더욱 새롭고、새로운 생산 부문을 정복하였다。

전후 五개년 계획에 있어서 쓰타하노브적 분공 원칙이 응용되었다。례를 들면 현재 광범하게 기계화에로 들어간 목재 벌채업 같은 부문에서 응용되고 있다。벌채업에 있어서 옛날의 작업 조직 형태는 초부(樵夫)적 작업반이었다。거기에서는 벌도(伐倒)하며 뿌리와 가지와 나무초리를 벌취하는 모든 작업이 수행되었다。전력(電力)도 형편을 변화시키지 못하였다。즉 전력을 응용한 작업반은 톱군과 그의 조수와 곁타기(助乘夫)와 두 사람의 가지따기(伐枝)로 구성되었다。톱군은 분공이 없음으로서 자기의 기본적 작업뿐만 아니라 다른 작업도 하였다。전력은 八시간이 아니라 선부 약 두시간을 리용하였다。쓰타하놉츠들과 전후 五개년 계획에서의 선진적 기사—기술 일군들의

창의에 의하여 벌채업에 있어서의 작업이 근본적으로 재조직되었다。모든 산림 작업 과정이 일정한 작업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었다。즉 톱군、벌지부(伐枝夫)、특설 운재 토장에 운재하는 것、선별기와 분류방법에 의한 분류、적재 작업 등으로 조직되었다。매개의 작업 계획은 분공된 로동자들에 의하여 수행된다。그리하여 매개 작업 계획에 있어서의 로동자들의 수량과 작업반의 형성과 성원은 로동일과 설비를 완전히 리용하도록 보장키 위하여 배치된다。산림 작업은 비로소 류동식으로 실행되었다。그리고 이 방법은 산림을 분구함에 있어서 특설 운재 토장에 따라서、또 직접 소림구(小林區)에 분구하는 것을 리용하였다。이리하여 작업반은 네명의 전기 톱군과、숙련된 한사람의 곁타기와 十二명의 벌지부와 소각부(消却夫) 및 한사람의 산림 검수 작업 계산 조수로써 구성된다。

옙쯉쓰크 운재장 초부 쎄몬·루폐렌끄와 기타의 쓰타하놉츠들은 분공의 결과로 두배 이상으로 로동 생산성을 제고하였다。임금 제도의 재조직도 작업 성과에 도움이 되었다。즉 목재 벌채업에 있어서의 숙련 로동과 미숙련 로동에 대한 평균 임금제가 청산되었다。

쓰타하노브적 작업 원칙으로서의 분공은 전후 五개년 계획에 있어서 다른 부문에、부분적으로 건설 부문에 적용되었다。명백한 실례로서 유명한 모쓰크바의 쓰타하놉츠인 석공(石工) 페도쓰·샤블류긴의 작업을 들 수 있다。그의 브리가드의 쓰타하노브조(組)는 다섯 사람으로써 구성되였다。그리하여 외부의 정면벽의 기초 공사에 두 사람의 숙련된 석공이 일하고 내부 공사에 덜 숙련된 갖된 로동자가 일한다。결과로 한 작업반에서 三천매의 벽돌을 쌓던 대신에 九천—一만매의 벽돌을 쌓게 되었으며、특히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작업 진행 과정에서 덜 숙련된 로동자 일군들로부터 숙련된 석공 일군들로 급속히 장성되는 사실이다。

분공의 새로운 형태와 함께 전후 시기에도 다기대(多機台) 봉사(奉仕)와 겸공(兼工)이 더욱 더욱 광범하게 전파되었다。다기대 운동(한사람이 여러대의 기계를 운전하는 운동—역자)은 쓰베트 몽맹 로동 계급의 생산—기술문화가 장성된 기초 위에서 가능하게 되었다。이 운동은 一九三九년에 발생하여 위대한 조국 전쟁 시기에 거대한 역할을 하였다。처음으로 다기대(多機台) 방법을 리용한 쓰타하놉츠들의 목표는 로동력의 부족으로 인한 설비의 운전 정지를 감소시키며、생산 『장소 협착』의 애로에서 숙련 로동자들을 보장하며、견습생과 학생 중에서 새 간부를 속히 준비함에 있었다。새로운 기술을 소유하는 부문에서의 성과는

전후 五개년 계획의 쓰타하노브 운동의 다른 중요한 형태, 즉 격공의 기초에 놓여 있었다. 격공은 다기대 봉사와 밀접히 관련된다. 아주 단순한 협조 작업의 보조로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에는, 례를 들면 석탄 산업에서 착암부와 발파부의 겸공, 돌 까는 인부와 권양부(捲揚夫)의 겸공, 콤베야의 운전과 선광 적하(積下) 작업의 겸공에 이르렀다. 로동자들의 숙련 정도가 제고되는 것에 역시 이 운동의 발생과 발전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 바로 기계들에서의 운전자들의 숙련화가 제고된 까닭에 다른 기계에 대하여 운전자가 그 기능을 수행할 시간을 얻게 되며, 또는 이전에는 다른 로동자에 의하여 수행되던 기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겸공은 쓰타하노브적 로동의 새로운 더 완성된 형태를 그 장래 발전에서 대표할 것이며, 로동자들의 숙련화를 더 제고시킬 거대한 전망을 열어 놓는다.

전쟁 전 쓰딸린적 五개년 계획의 쓰타하놉츠들은 쓰딸린이 말한 바와 같이 벌써 「자기 사업의 기술을 완전히 획득하였으며, 무장하였으며, 앞으로 추격하였다」(「레닌주의의 제문제」 四九八페지) 기술을 더 획득하며, 생산 진도를 강화하며, 기술 경제적 준량(準量)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은 전후 五개년 계획에 있어서 모든 산업 부문의 쓰타하놉츠들의 작업을 특징짓는다.

특히 이 관계에 있어서 광산 및 야금 산업의 쓰타하놉츠—쓰코로쓰트니크(가속도 작업 일꾼—역자)들의 작업은 특징적이다. 「까지예브우골리」트러쓰트「이르미노」四—二비쯔 수항(竪坑)의 굴진부(掘進夫) 이완, 쉐르시네브는 신속 굴진 작업 방법을 정착시켰다. 五개년 계획을 초과 완수하려는 열망은 돈바쓰 탄항의 부흥과 새로운 거대한 항도의 건설에 의하여 선진적 탄항부들로 하여금 굴진 작업반들의 낡은 로력 조직을 버리게 하였다. 「보통으로—쉐르스네브는 말한다—작업반 굴진부들은 한 순환에 대략 三주야를 소비하였다. 한 순환의 굴진 심도(深度)는 二메터를 넘지 못하였는데 우리는 그것을 三·五메터로 올렸다. 이러한 계산에 의하여 새 시간표가 편성되었다」 쉐르스네브의 전체 작업반원은 二〇〇% 이상의 수준을 달성하였다. 수평항도(水平坑道) 굴진 속도를 그들은 한 달에 七〇메터로 도달시켰다.

종전에 굴진 작업반의 매개 로동자들은 자기 본직에만 적응한 작업 계획을 실행하였다. 자기의 직업에 잘 숙련된 로동자들에 있어서는 본직에 의한 작업에 만족되지 않았다. 그렇게 한다면 로동

시간을 크게 허비하게 될 것이었다. 쓰타하놉츠 쉐르스네브는 자기의 작업반을 종합적 기준과 매개 로동자의 임금 지불에 의한 종합 굴진 작업반으로 만들었다. 로동자는 혼자서 몇개의 작업계획을 동시에 수행한다. 쉐르스네브 작업반 굴진부들은 성과적으로 굴착하며, 지주(支柱)를 세우며, 광층과 석탄을 정돈하며, 길을 깔며, 기계 운반을 관리한다. 일련의 작업 계획이 동시에 수행되며, 이것은 굴진 속도를 현저하게 촉진한다. 굴진 행정을 개선하면서 쉐르스네브의 작업반은 깊은 굴착 작업에로 전환하여 갔다.

끼로브 광산 굴진부 이완 꾸짜곱쓰키는 광산 굴진 설비의 기술에 탁월한 공헌을 하였다. 작업반의 로동을 재조직한 결과 한 도항(導坑)에서 二—三순환으로 일하게 되었다. 깊은 쓰텐드 착암법을 리용하면서 꾸짜곱쓰키 작업반의 굴진부들은 발파공(發破孔)의 굴진 속도를 三분의 一로 단축하여 五메터의 깊이를 착공하게 되었다. 광산 항도의 다순환 가속도 굴진 방법에 의하여 매개 착암부는 한교대에 四—四·五메터의 깊이를 착공한다. 종전에는 그들은, 같은 시간에 한메터를 착공하였던 것이다. 낡은 작업 협조 방법을 극복하기 위하여 항도 설비에 있어서 민속한 보항(補坑)과 민속한 항목 조립(組立)을 정착시켰다. 항목 조립을 하는데 종전에 二十四시간 걸리던 것이 체볼록크(滑車)로써 二—三분이 걸리게 되어 보항부(補坑夫)들의 작업 속도는 착암부보다 떨어지지 않는다. 기술—경제적 평균 수준을 초과 수행하며, 생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의 빛나는 실례를 쓰코로쓰트니크—쓰타하놉츠—용해공들이 보이였다.

제一드네쁘로뻬트로브 금속공장 마로친 작업자에서 일하는 용해공 이완 네브차스는 용광로의 한번 작업에서 三〇〇용해까지 한다. 그런데 동공장 공기로(空氣爐)는 두번 작업에서 겨우 三〇〇용해를 한다. 그러므로 이 공장에서는 이완 네브차스의 제의에 의하여 용해 방법을 심의하였다. 이 심의에는 드네쁘로뻬트로브 금속 전문학교의 과학일군 및 학생들 수十명이 참가하였다. 미래의 기사들은 선진적 쓰타하노브 운동 참가자들의 경험은 그들의 실제 사업에서의 가장 좋은 방조로 된다고 솔직히 말하였다.

마르친 용광로의 가속도 작업의 높은 지수(指數)를 계통적으로 내고 있는 것우[illegible] 노보따길리 금속공장 용해공 이완 샬리모브이다. 그에게 있어 용해의 소요 시간은 표준인 十二시간三十분인 것이 아니라, 평균 七시간二十분이다. 샬리모브에게 있어 강철의 용재(鎔滓)는 비상히 높다. 즉 용광로 밑바닥 一평방키로에서 七—八톤이 나온다.

사회주의 경쟁。 과정에서 발생된 로동 생산성 제고 형태는 전후 五개년 계획에 있어, 선진적 로동자들이 자기 사업을 五개년 계획과 매년 생산 계획을 기한 전에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 결부시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고 있다。

이 사회주의 경쟁의 특성과 쓰타하노브 운동의 특성을 브·므·몰로또브는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 혁명 三十주년에 제한 그의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전쟁 전에 있어서는 없었던 년도 계획과 五개년 계획 전체를 기한 전에 완수할 것을 개인적으로 맹세하는 개별적 로동자들을 묶어세우는 새로운 운동이 지금 광범히 전개되고 있다。 모쓰크바, 레닌그라드, 돈바쓰, 및 기타 전국 각지에서 남녀 로동자들이 사회주의적 의식을 증명하여 주는 이 운동이 성과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전후 五개년 계획에서의 쓰타하노브 운동 참가자들의 성과는 쓰타하노브 운동 참가자들이 생산 과정에 있어서 자기의 과업을 면밀히 생각하며, 또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로동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쟁 계획에 주의를 돌리고 있다는 것을 훌륭하게 말하여 주고 있다。

례를 들면 유명한 방직공 마리야·월꼬바는 한 기계에서 다른 기계로 넘어가는 순서를 타산할 뿐만 아니라 기계의 운전 정지를 최저한으로 축소하기 위하여 두 기계 중에 어느 기계가 운전에서 첫 차례로 정지된 것인가를 규정한다。

유명한 항부 레오니다 보리스킨의 기록도 생산 과정을 새로 조직한 결과이다。 즉, 그는 시초에 두개의 횡항도(橫坑道)에서 석탄을 채굴하는 것을 조직하였고 다음에 세개의, 그리고 다섯개의 횡항도에서 석탄 채굴을 조직하였다。

× × ×

사회주의의 조건 하에서 선진적 로동자들의 성과는 전체 근로자들의 재산으로 된다。 쓰타하놉츠들은 직장들과 모든 기업소들의 작업에 근본적 향상을 가져왔다。 모든 직장에서의 조직화된 기술 계획을 작정한 돌격대이며, 쓰타하노브적 경험을 모든 로동자에게 전파한 자로서의 와실리·마트롭쓰브를 온 나라에서 다 알고 있다。

작업장과 공장 기업소에 의거한 조직적—기술적 계획의 작성은 완전히 사회주의적 생산 조직의 기본적 고리로 되었다。 작업장의 쓰타하놉츠들은 생산 협의회에서 매개 로동자와 아그레가트와 기계의 작업을 심의하며, 손실을 제거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밝히며, 더 생산적으로 로동하며, 자기의 작업반을, 작업장을 쓰타하노브적 지수(指數)의 수준에 인입하며, 자기의 경험을 모든 로동자

들의 작업에 전하는 것은 전후 五개년 계획에 있어서 탁월한 쓰타하놉츠들의 특징적 면모이다。

모쓰크바의 쓰딸린자동차공장 첨공 우스칼로브는 매개 로동자들이 잘 리해하며,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작업 계획에 그들을 종속시키는 방법으로 자기의 브리가드를 재조직하였다。 一九四八년 말에 우스꼴로브 작업반은 클랑크·샤프트의 매일 생산을, 二〇〇개의 수준에서 四五〇개로 도달시켰다。 고르꼽쓰키 자동차공장 쓰타하놉츠들과의 사회주의 경쟁에서 우스꼴로브 작업반은 一九四八년 十一월 중에 一五七%로 계획을 초과 수행하였다。

석탄 산업에 있어서의 주요한 기술—경제적 지표의 하나인 착암기의 생산 능력은 착공 진도를 결정적으로 좌우한다。 착공 진도를 빠르게 하며 제고함으로써 모든 석탄 종업원의 채탄 계획을 초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탄항의 예비적 착공은 채탄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하여 의거하여야 할 고리로 된다。 이것을 돈바쓰와 다른 탄전 지대의 선봉적 기계기사들과 전후 五개년 계획의 쓰타하놉츠들이 잘 알고 있다。 굴착을 신속화하며,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으로서 그들은 모든 탄항의 전체 종업원들의 석탄 채굴량 계획을 초과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오레흡쓰크 방직공장의 찬양할만한 방직공 마리야·월꼬바, 안나·쟈샤예봐, 에까쩨리나·시바예봐, 안나·빼치까나는 수대의 방직기 사용에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계속적인 이행(移行) 운동을 六대, 十一대, 또는 十六대의 자유에로 광범한 전선에 전개하여 모든 작업장과 공장의 계획을 초과 실행하는 고상한 자기들의 과업으로 되게 하였다。

작업반과 쁘롤로뜨와 작업장의 집단적 쓰타하노브 운동의 발전 행정에서 제품 생산에 대한 로동 용량(뜨루도욤꼬쓰찌)의 저하를 위한 투쟁은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기계·건조 기업소에 있어서는 두가지 양태의 기준을 가지게 된다。 즉 제품 기준, 다시 말하면 일정한 단위의 시간에 매개 로동자들에게 상당한 생산의 수량, 또 시간의 기준, 다시 말하면 일정한 단위의 생산품에 소비된 시간의 량(제품에 대한 로동 용량)의 기준을 가지게 된다。

꾸이비쉐브의 프룬제공장 쓰타하놉츠—삭절공(削截工) 베·엔·메소쳐낀은 일련의 목적물에 대한 일정한 단위의 생산품에 소비되는 시간을 八——一〇분의 一로 축소하였다。 그는 이전에 평면 치륜을 원형 삭절 공구로써 쥐던 것을 이제는 동일한 시간에 몇개의 치륜을 깎을 수 있는 특별한 삭절 공구를 만들 것을 제작하였다。 「다면(多面)」 공구를 리용하면—— 메쏘처낀은 말하였다 —— 낡은 가공 방

법에 비하여 작업의 계획 생산성을 대개 十배로, 제고할 수 있다。 기계와 보조작업 시간을 단축한 결과로 단번에 十五개의 치륜을 깎아 내는 생산성의 제고를 달성하였다」

쓰타하노브 운동의 영향 아래에서 시간에 대한 규범—로동 소비 지수—은 시방 거대한 조직적 의의를 가지게 된다。 몇개의 공장에서 쓰타하놉츠들의 제의에 예견된 바에 의하여 로동 소비률을 저하시킬 발전된 계획을 작성하였다。 (홍수식 다량 생산—뽀또카—을 정착시키는 것, 공학기술을 개선하는 것 등등) 로동 소비를 저하시키기 위한 투쟁은 직장과 공장의 일반적 작업 지수를 향상시키려는 과업과 함께 자기의 작업 지수를 향상시키려는 개별적 로동자들의 갈망과 관련된다。 이것은 생산문화를 더욱 향상시키는 것, 기술 숙련의 제고, 공학적 기술의 개선, 새 기술의 정착, 합리화 일군들의 제의와, 창안을 요구한다。

우리들의 기업소에서 기술 규격화는 더 광범하게 응용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규격 수립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도리어 개별적 작업조(組)의 작업에 있어서 강한 면과 약한 면의 표현과 생산 과정을 연구하는 수단으로서 더욱더 전변되는 것이다。 로동 시간 측정표의 계시를 분석하면서, 쓰타하놉츠들은 기사 및 공학적 기술자들과 함께 생산 조직을 더 향상시키는 새로운 기술적—조직적 방법을 연구한다。

레닌은 자본주의에 있어서의 생산 조직은 땀을—착취하는 과학 체계라고 특징지었다。 자본주의의 조건 아래에서 모든 과학과 기술의 성과는 로동자의 착취를 위하여 리용된다。

사회주의적 생산 조직이 자본주의적 생산 조직과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다른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주의 조건에서 생산 조직의 새로운 방법은 로동계급의 근본적 리익을 완전히 대표하며, 로동을 경감시키며, 로동자들의 물질적 문화적 수준을 제고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은 기술 발전에 관심을 가진다。 혁신자들, 발명자들, 합리화 일군들은 로동자 자체 속에서 나온다。 쏘베트 인민들은 생산의 향상에서 인민 경제의 급속한 부흥과 조국의 위력한 공고화, 모든 근로자들의 행복이 제고되는 길을 발견한다。

× × ×

쓰타하노브 운동의 초기에 쓰딸린은 공학 기술적 일군들은 이 운동의 선두에 서라고 호소하였다。 직공장, 공학 기술가, 직장장, 설계가들이 쓰타하놉츠들을 방조하여 참가하였다。 이것은 쓰타하노브 운동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그러나 쓰타하놉츠들을 가장 많이 추진한 방조자는 언제든지 다만

부분적이었다。 쓰타하놉츠들의 기록 지수는 왕왕 대다수의 로동자들에 의하여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통례이였다。

선진적 로동자들이 락후한 분자들을 선진 분자의 수준에 제고시키는 전후 五개년 계획에 있어서 기업소들의 공학적 기술 일군들 앞에는 과업이—부분적 쓰타하놉츠들 뿐 아니라 전체로 모든 직장의 쓰타하노브적 작업을 지지하며, 그 선두에 서는 과업—나섰다。 모든 쓰타하노브적 직장의 선진 로동자들의 창의가 아무리 위대하다 할찌라도 그들이 만약 직공장, 공학기술가 직장장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실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진적 직공장들이 전개한 운동은 특별히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생산의 후방을 조직하면서 작업도표(作業圖表)를 견결히 준수하면서 기술 숙련화의 제고를 위하여 로동자들을 방조하면서 직공장이 집단적 쓰타하노브적 작업의 조직자가 될 수 있으며, 되어야 한다는 로동자들의 목소리를 심중히 들으라!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줄 수 있는 것은 직공장, 운동의 발의자의 실례—모쓰크바 「깔리브르」 공장 늙은 직공장 니꼴라이 로찌쓰키의 실례에서 명백하다。 최근 三개년에 걸쳐서 그의 쓰타하노브적 참가는 해마다 생산품의 산출을 배가하였다。 집단적 쓰타하노브적 작업, 새부에 공한 자동화는, 다량 생산에의 이행은 니꼴라이 로찌쓰키의 성공의 「비밀」이다。 마그니또고르쓰키의 쓰딸린종합공장의 용광로 직공장 니꼴라이•싸비체브, 「모쓰크보우골리」 착암기 종합공장 기계수 이완•필리모노브, 「붉은 부호」 공장 작업반장 클라브지야•제노바와 다른 많은 저명한 공업계의 인물들이 쓰타하노브적 로동 방법을 정착시키기 위한, 집단적 쓰타하노브적 작업의 조직을 위한 성공적 투쟁을 인도하였다。

모든 기술적 총인원들 앞에, 또 우선 공업기술자와 직장장들 앞에 새로운 과업이 제기된다。 공학기술적 행정의 모든 고리(環)를 검열하면서 선봉적 직공장은 집단적 쓰타하노브적 작업을 위한 모든 새것과 또 새로운 수단을 위하여 리용되는 견고한 물질적 기초를 창조한다。

생산에 대한 공학 기술자—혁신자들의 운동은 기사들, 직공장들과 발명자들의 합성된 작업반의 창설에 있어서 자기의 더 큰 발전을 가져왔다。 이 작업반들은 생산의 진실한 로력적 참가자들에 의하여 생산품 산출을 최대로 증가하는 과업을 총체적으로 해결한다。

모쓰크바 경합금(硬合金) 종합공장 (콤비나트) 크레쓰 주형(鑄型) 직공장 와실리•꾸즈네쪼브는 자동 프레쓰를 설계하였다。 매우 단축된 로동자의

수로써 이전에 비하여 몇배나 더 많은 생산품을 내며, 또 불합격품은 거의 청산되었다。八명의 로동자를 사용하여 생산에서 매년 五백만 루블을 절약할 수 있다。자동 프레쓰를 건조할 때에 와실리·꾸즈네쪼브는 여러번 모형(模型)을 바꾸며, 도면을 변경하며, 새로운 채산으로 생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그는 자동 프레쓰를 건조함에 몇해를 보내었다。「만약—꾸즈네쪼브는 말한다—년 이내에 프레쓰를 설계하였더라면, 또 만약 이 사업에 나 한사람만 참가하지 않았더라면 국가는 벌써 二천만 루블을 절약하였다고 말하여도, 잘못이 아닐 것이다」

우랄 기계공장의 기사, 공학적 기술가, 발명가들의 집단이 주강 직장에, 핵심적인 집단적 참가자로서 방조를 주었을 때에 결과는 곧 나타났다。핵심적 일군들의 작업 조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조직적·기술적 방법을 작성한 까닭에 주강 공장은 생산품 산출을 一三一%를 증가시키고 로동 생산성을 八三·五%를 제고하였다。

그러나 선봉적 기사들과 설계자들의 쓰타하놉츠들과의 공농 작업을 다만 기술자—기사 일군들의 방조나 지도로만 본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전후 五개년 계획은 쓰타하놉츠들이 공학기술에 대하여 자기들의 작업으로써 새로운 전망을 개척하며 자기들의 실천에서 과학을 풍부하게 하는 많은 실례를 보여 준다。금속을 신속히, 깎는 칭의자 레닌그라드 선반공 보르꼐비츠의 주동을 볼 수 있다。아주 최근에 기계 제조 공장들의 기사 및 공학적 기술가들은 강철 가공에 있어서 절단 속도를 三〇〇(M/M)의 정도로 만들었다。

절단 속도의 가일층의 제고와 온도의 적당한 제고는 구조로부터 날(刃)이 제외되고 대패밥을 첨착(粘着)케 하며 굴곡면을 만들게 한다。굴곡을 만드는 과정을 주의깊게 연구하며, 숫돌(砥石)에 의하여 주기적 수리 방법을 조절하면서 보르꼐비츠는 경강(硬鋼) 가공의 절단, 속도를 七〇〇(M/M)까지 단축하였다。一九四八년 十一월 七일에 쓰벨들로브 공장은 一분간에 二、〇〇〇회전을 하는 세계에서 가장 새롭고 가장 좋은 평면 연마기를 제조하였다。

이렇게 하여 기사와 설계가와 쓰타하놉츠들과의 창조적 협동은 五개년 계획의 기한전 완수를 위한 투쟁의 모든 행정을 추진하는 성과적 과업을 해결함에 인도한다。

× × × 、

내부적 재원을 총동원하기 위하며, 기업소의 수익성있는 작업을 위하며, 계획 초과적 축적을 위하여 광범히 전개된 운동은 一九四八년 사회주의 경쟁과 쓰타하노브 운동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특성이다。

기본적 경제 지표인 계획 원가는 모든 산업 일군들의 중심 목표로 되었다。경제를 운영하며 동시에 생산품 산출에 대한 계획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또 생산 원가를 저하시키며, 계획 초과의 축적을 창조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리를 운영하는 것과 같이, 생산 과정을 조직하는 것도 첫번째 계획에서 과업으로 제기된다。

애국적 운동은—수익성을 위한 투쟁—많은 새로운 형태를 가진 사회주의 경쟁의 모든 발전에서 준비되었다。만약 경쟁이 적인민적 규모로 전개되지 않았다면, 만약 선봉적 로동자—쓰타하놉츠들이 자기의 개인적 작업을 직장, 공장의 작업과 관련시키지 않았다면, 만약 공학 기술자, 설계가들이 쓰타하놉츠들 운동의 선두에 서지 않았다면, 만약 이 운동이 사회주의 기업소들의 령도에 의하여 지도되지 않았다면, 또 당단체들에 의하여 고무되지 않았다면 이 운동으로의 이행은 생각차도 못할 것이다。

사회주의 경쟁의 행정에서 매개 선진적 로동자들, 매개 쓰타하놉츠들은 아주 밀접하게 수익성의 문제에 당면하였다。「급행」공장 쓰타하노브적—재단자 올리가·무스뚜피봐는 「개별적 절약 계산」의 창시자로서 출현하였다。「개별적 절약 계산」은 또한 전체 쓰타하노브적·작업반들을 인입하였다。이리하여 모쓰크바 다이야 공장·알렉싼들 부로브의 작업반은 다만 一九四八년의 최근 四개월 간에 二五만 루블리 이상을 절약하였다。

쎄롭쓰크 공장 용광로 용광공 푸로깔로브는—브리가드 운동의 발의자의 한사람이며, 쓰벨들롭쓰크주에서의 개별적 절약 계산 방법을 개시하기 위한 운동의 참가자이며, 특출한 로동자들의 한사람—一九四八년도에 자기의 개별적 계산에서 四十三만五천루블리를 절약하였다。

모든 항도, 직장, 기업소들에서 높은 로동 생산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쓰타하놉츠들은 사회주의 경제체계의 조건에서 절약 정책의 국가적 의의를 잘 알고 있다。

전후 쓰딸린적 五개년 계획의 두해 남짓한 동안에 모쓰크바의 「마치와 낫」야금공장의 세二호 마르치놉츠크식 용광로 직장 용해공 니꼴라이·뽀제예브는 계획을 초과하여 강철을 一、五〇〇톤 이상을 정련하였으며 四〇〇톤의 중유를 절약하였다。

「내가 계획을 초과하여 용해정련한 강철로써—뽀제예브는 말한다—「뽀베다」호의 새 자동차 二천대 이상에 필요한 강철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

두번 훈장을 탄 「급행」 구두공장 로동자들은 자기의 년간 계획을 다만 一%를 초과 수행하면서 수만명이 살고 있는 큰 도시의 주민에게 새로운 장화、우미한 단화와 편상화들을 보급(補給)한다。「급행」 공장에서의 단一%의 생산 원가 저하가 一〇만족의 구두 생산에 필요한 완전한 비용으로 된다고 전문가들은 계산하였다。

수익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그 의식은 커다란 인민 경제적 효과를 주며、모든 새롭고 새로운 예비를 총동원하며、로동과 생산 조직에 대한 더 완전한 형태를 탐구하면서 기계화와 새 기술을 리용하며、제품에 대한 로동 소비를 저하하며 쓰타하놉츠들、경쟁 참가자들을 고무하고 있다。이 투쟁은 기본적 직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예비적 또는 협력적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 직장에 파급되어、있다。

이러한 거대한 가능성은 새로운 기술을 위한 투쟁을 창시하였으며 「붉은 쏘르모브」 공장의 실례에서 증시되었다。얼마 전에 공장에서 로력적 작업의 기계화 문제에 대한 당기술 협의회가 개최되었다。이 회의는 사회주의 경쟁에 기초하여 짧은 기간에、공장 쓰타하놉츠들이 얻은 업적에 대한 검열로 되었다。여기에 모든 작업、질적 지표를 결정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소들에 있어서 발생되는 진실한 행정이 거울처럼 반영되었다。당과 정부는 「붉은 쏘르모브」 공장 앞에 새 기관차와 내하(內河) 항행선 생산을 습득할 전투적 과업을 제기하였다。짧은 기간에、증기 예선(曳船)、화물 발동선、휘발유 종선의 새로운 설계를 만들어야 하였다。

이전에는 장기간을 요하였던 이 과업과 결정들은 이제는、전후 五개년 계획의 조건에서는 매우 빨리 수행된다。

전쟁 전에는 선가(船架)를 만드는 작업이 선체를 만드는 작업의 八〇%의 용적을 차지하였었다。이제는 설계가들이 선체를 각부분품 별로 구별하여 그것을 기중기와 운반기에 의하여 작업장으로 스탠드와 작업대에 보아다가 부분품을 급속히 조립하기 위하여 선가(船架)로 운반한다。선체에 대한 선가 작업의 비중이 五〇%로 축소되었다。이렇게 함으로써 一九四七년에 휘발유 종선 · 건조를 위하여 공장은 전쟁 전에 대비하여 건조 회률을 三분의 一로 축소하였다。一九四八년에는 종선은 一九四七년보다 더 빨리 건조되었다。「붉은 쏘르모브」의 재 예선 건조 회률은 전쟁 전에 비하여 四분의 一로 축소되었다。「까로보그라드」 발동기 예선 건조 로동 소비량은 새 로동 조직과 공학적 기술의 개선에 의하여 一만五천명의 로동을 축소하였으며、생산 원가에 있어서는 一九四八년 상반기에 비하여 十五만 루블을 저하시켰다。그러나 이 성과가 아무리 크다 할찌라도 그들은 공장에 있는 예비력을 있는대로 모두 리용하지는 못하였다。당기술 협의회는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예비를 리용하며 발양하는데 주의를 집중하였다。

더 새로운 기술적 진보는 생산 및 로동 생산률의 장성과 기업소의 수익성、축적의 증가를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수익성있는 작업을 위한 투쟁은 一九四九년 첫달에 새로운 형태에 의하여 풍부하여졌다。모쓰크바와 모쓰크바주의 一〇三개의 공장 기업소의 집단이 쓰딸린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그들은 금년에 국가에 四억루블의 도움을 주는 자금 류통을 촉진하는 대책에 대한 약속을 리행하였다。이 새로운 창의는 국가 전체에 열렬한 지지를 환기하였다。만약 공업 로동자들이 모든 방법으로 내부적 가능성을 리용한다면 쏘베트 국가의 인민경제는 몇억만루블의 류통 자금을 더 잘 리용할 데 대하여 보충 받게 될 것이다。

자금 회전률의 제고는 생산 회률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자재 공급 조직과 계획에 있어서의 엄격한 규률과 자재 지출 규칙의 엄격한 준수、생산에 있어서의 문화성의 일층 향상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선진적 공장들 — 끌로멘쓰크 꾸이븨쉐브 공장과 「붉은 쏘르모브」 공장은 금속과 연료 및 전기 에네르기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제품의 계획 초과 생산 경쟁을 전개할 것을 제기하였다。끌로멘쓰크 일꾼들과 쏘르모브 일꾼들은 이해에 三천八백톤의 금속과 五천톤의 연료와 四백五十만키로와트의 전력을 절약하며、국가 회계에 자재 절약과 기관차 및 발동선의 초과 생산을 줄 것을 맹세하였다。

동시에 새로운 쓰타하노브적 발의 — 생산품의 우수한 질을 위한 경쟁이 뚜렷하게 개시되었다。

크라스노홀름쓰크 모직물 종합공장에서 직공장 조수 알렉싼들 츄뜨끼흐는 자기의 부리가드와 함께 오직 최상등의 직물을 생산할 것을 맹세하고 우수품 작업반의 이름으로써 사회주의적 경쟁을 조직할 것을 제의하였다。알렉싼들 츄뜨끼흐의 제의는 경공업 기업소의 집단들 속에 광범한 반향을 환기하였다。우수품 작업반들은 벌써 많은 공장과 작업장에서 조직되고 있다。

× × ×

사회주의 경쟁과 쓰타하노브 운동은 전후에 있어서 사회주의 기업소들의 작업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며、쏘베트 국가의 학자들에게 새롭고 새로

운 파업들을 제기한다。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과학적 업적들은 다만 그들이 새로운 리윤을 독점자본가들에게 약속하게 되는 그때에만 생산에 정착된다。 자본주의 독점가들은 기술적 진보를 정지시킨다。 이것은 부르조아 사회의 대표자들도 역시 인정한다。 그리하여 쩨네랄·모터쓰 회사 부사장 께테링은 강조하였다。 「생산에 임의의 새로운 기술적 사상을 적용하는 것을 제기하는 것보다 더、큰 랭혹한 투쟁은 세상에 없다。 다만 아주 순진한、생산을 보지 못하는 탁상 공론자만이 이러한 확상적 계산에 잠길 수 있다。 순전한 연구자들을 생산 기관과 대치시키는 것은 굶은 사자들에게 사람을 던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어떠한 새로운 기술적 리념이든지 생산에 제기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주 반대하며 혁신을 거부한다。 생산은 변천을 용허치 않는다」

사회주의 조건에서 경제 발전에 있어서의 과학의 역할은 원칙적으로 변하였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과학 활동가는 생산인들과 밀접한 조화를 가지고 일한다。 과학적 자료는 새 기업소의 계획과 건설에만 리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에 있어서의 당면한、또는 계속적인 개선 수리 행정에 리용한다。

생산에 대한 당면 문제를 제때에 해결함에 과학자들을 개척자로서、광범하게 이끌어 넣는 사업은、쓰딸린자동차공장에서 실현되었다。 자동차 엔진을、개선하면서 공장 로동자들은 엔진의 중요한 부분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금속의 경도(硬度)를 높이게 하는 필요성에 도달하였다。 부분품의 열학적(熱學的) 수선을 위한 보통 방법들은 벌써 새 엔진、특히 디젤 엔진이 요구하는 경도에 대한 지표를 주지 못한다。 첫째로 이것은 크랑크·샤프트 쪼인트(軸頸)의 경도(耐久性)에 관련되었다 공장에서 열학적 수선의 각종 방법 리용이 성과없었다。 마침내 공장은 고주파 전류에 대한 권위있는 전문가인 과학 아까데미-통신원 브·뻬·볼로그찌에게 보고하였다。 이 학자의 지도 아래에서 필요한 연구가 진행되고 크랑크·샤프트 쪼인트를 고주파 단조할 자동 운전 장치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고주파 단조는 다른 부분품의 표면을 견고케 하는 데 리용된다。 공장은 많은 부분품에 대한 탄소 합금 금속 리용법을 버리고 그 제조 방법을 공학 기술에 의하여 변화시켰다。 켬·샤프트(偏心突子軸)의 열학적 가공을 위한 회률은 몇분의 일로 단축되었다。 현재 볼로그찌의 지도 하에 이러한 고주파에 의하여 공장에서 강철의 표면 가공뿐만 아니라 주철 제품까지도 강철 제품의 견고함에、필적하게 견고하게 가공된다。

쓰딸린자동차공장의 중요한 성과는 역시 공장을 정지시키지 않으면서 새 자동차의 모델로 이행함에 표현된 그것에 의하여 참말로 직장의 부득이한 정지에 대한 관념을 부시어버렸으며、그것을 위하여 새 모델에 대하여 적당하게 재계획화하며、재제하였다。

「압축기(콤푸렛싸)」공장의 경험은 생산 과업을 해결함에 있어서 학자가 참가한 명백한 실례이다。 강철 단조 샤프트 제조에 있어서 「압축기」공장에서 七五시간이 걸렸는데 一〇푸드의 단조품을 六七키로의 중량을 가진 샤프트로 만들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이 기계의 가공에는 약 一〇〇키로의 좋은 강철이 대패밥으로 다 허비되고 만다。 생산의 리해는 크랑크·샤프트 제조에 새 공학 기술을 요구하다。 모쓰크바 고급 기술학교와、화학 기계건조과학연구소의 학자들은 기사—생산자 및 설계자들과 협력하여 막대한 방조를 공장에 주었다。 쓰타하놉츠들의 풍부한 생산적 경험을 일반화하며 리용하면서 그들은 콤푸렛싸에 주철제의 크랑크·샤프트로써 단조 강철 샤프트에 대용하는 것을 해결하였다。

모형 공장의 설계가들은、설계하고 쓰타하놉츠들은 특별한 크랑크·샤프트의 모델을 만들고 좋은 주형사들은 그 주형을 만들고 용광공은 특별한 우수한 주철을 만들어 내었다。 선방공—쓰타하놉츠들은 처음으로 一〇〇키로로써 샤프트를 만들어 내었는데 이전에는 一백六〇키로로써 단조품을 처리하였던 것이다。 기계적 가공은 이전에 七五시간이 걸린 대신에 四四시간이 걸리었으며、대패밥으로 버리는 것이 이저에 一〇〇키로의 강철이었던 것이 도합 三〇키로로 되었다。 금속을 절약한 것은 새 샤프트 제조에 필요한 금속의 수량에 필적한다。 「콤푸렛싸」공장의 주철제 샤프트 작업에로의 이행은 공학기술적 회률을 절반으로 단축하였다。 이미 제조된 제품을 리용하면서 로동력을 반감(半減)하며、또 샤프트 생산 원가를 四분의 一로 저하시키었다。

학자들과 브란쓰키 지방 대기업소들의 쓰타하놉츠들과의 창조적 협동은 베제쯔키 운수기계건조연구소에서 실현되었다。 연구소의 과학적 협조자들의 방조에 대한 연구와 브란쓰키 기관차 건조 공장에서의 생산에 있어서 새로운 절삭공구 설계를 정착시키는 것은 금속 제조 부분품을 튼튼히 정제할 것을 보장하며、설비의 생산률을 六〇%로 제고하였다。

류[illegible]쓰크 이동기관차공장에서는 주조 제품의 많은、불합격품이 나왔다。 불합격품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서 생산자들은 학자들의 방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베제쯔크연구소의 단접(鍛接)까지

도로 조수들과 생산 일꾼들과의 작업은 특별한 전극을 얻게 하였으며, 결함처를 단절하는 방법 등을 설정하였다。공장에서의 불합격품은 점차적으로 매우 감소되었다。

브란쓰키 기관차 공장에서 습변(摺瓣) 배아링그의 불합격품은 八〇%에 미쳤다。베제쓰키연구소 과학 일꾼들의 방조에 의하여 여기에서 금속 주형에 새로운 제품 주조 방법을 응용하였다。이렇게 하여 이전보다 높은 질의 베아링그(環)를 생산하게 되었으며, 불합격품을 감소시키었으며 배아링그의 채산 가치를 매우 제고하였다。

한편 이번에는 쓰타하놉츠들 측에서는 자기들의 혁신 작업에 과학과 기술을 풍부히 한다。과학 연구자들의 회의에서, 공장 과학—기술 회의에서 새로운 선진적 작업 방법과 생산기술 개선에 대한 보고가 광범히 실시된다。

일찌기 一九三五년에 쓰딸린은 쏘베트 동맹 로동계급의 문화—기술 수준의 장성을 지적하고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과의 대립의 청산은 로동자들의 문화—기술 수준이 기사—기술 일꾼들의 수준에 도달하는 정도에 따라 진행되며 진행될 것이다 라고 지적하였다。쓰타하노브 운동이 더 광범히 더 깊이 전개되면 될수록 쏘베트 국가에서의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과의 대립의 청산이 더 빨리 진행될 것이다。

벌써 최근에 우수한 쓰타하놉츠들의 작업 실천 과정에서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과의 경계가 씻기워 버리고 있다。쓰타하놉츠들이야말로 생산 기술과 생산 조직을 안출하며, 합리화하며, 보동 기술과 로동 조직을 개선한다。그는 학자와 기사들과 합께 새로운 기술—공산주의적 기술에 기초를 두었다。

쓰딸린 계관상 수명자들 중에 우리는 일련의 과학가, 기술자 및 발명가들, 우리들의 영예스러운 쓰타하놉츠들의 이름을 본다。

× × ×

전후 五개년 계획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경쟁과 쓰타하노브 운동의 새로운 면모는 무엇인가?

쏘베트 기업소들에서 로동자들의 생산적 창발성의 중요한 요인은 대중의 사회주의 의식의 장성에 표현된다。공산주의를 위한 성과적 투쟁을 위한 그 의의는 레닌과 쓰딸린이 누차 강조하였다。

볼쉐위끼 당은 쏘베트 국가의 로동계급 모든 근로자들을 레닌—쓰딸린 학설로 무장시켰으며, 위대한 창조적 로동의 의의를 인민 대중에게 공개하였으며, 로동에 대한 새로운 공산주의적 관계와 공산주의 사업의 승리를 위한 헌신적 투쟁에 준비할 것을 교양하며 하고 있다。

쓰딸린의 지시를 실행하면서 볼쉐위끼당은 전후

에 수천만 인간의 로동의 발흥을 조직하였다。당의 호소에 대답하면서 선진적 생산인들, 기사—기술적 일군들 전후 五개년 계획의 쓰타하놉츠들은 더 광범한 과업을 수행하였다。사회주의 기업소의 진정한 주인인 공장, 탄광, 꼴호즈 전원의 선진적 인간들은 직장과 지방과 기업소와 꼴호즈의 작업에 혈연적 관계를 표시하며, 쏘베트 경제를 새로운 향상의 길로 이끄는 집합적 쓰타하노브적 성과를 달성한다。

사회주의 경쟁에 대한 레닌적 사상의 위대한 승리는 전후 쓰딸린적 五개년 계획을 기한 전에 완수하기 위한 쏘베트 인민의 성과적 투쟁에 표현된다。

쏘베트 동맹은 벌써 새로운 애국적 운동의 첫 결실을 따고 있다。계획 초과 축적을 위하며 기업소의 수익성있는 작업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모쓰크바 사람들의 발의는 전체 산업에 급속히 파급되었으며, 一九四八년에 국가에 六여루블의 계획 초과 축적을 주었다。

「사회주의 경쟁은 진실로 전인민적 규모를 획득하였다。현대의 당면한 사회주의 경쟁을 분석하면서 브·므·몰로또프는 말하였다。「사회주의의 경쟁의 규모와 심도는 쏘베트 인민을 민족적 차별과 신앙의 차이를 모르는 근로자들의 친근한 가족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하기를 쏘베트 인간은 사회주의 경쟁에 참가하면서 「쏘베트 인민의 도덕적—정치적 통일의 강화하는 힘과 그의 사회주의적 의식을 시위한다」

경쟁에 대한 레닌의 사상은 살아 있으며, 승리한다。사회주의 경쟁의 감격을 품은 쏘베트 사람들은 레닌—쓰딸린 당에 의하여 지도되면서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위대한 승리를 달성한다。

(「경제 제문제」一九四九년 一호에서)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력사연구자료

이·브·쓰딸린의 저서『十월혁명과 로씨야공산주의자들의 전술』(二十八)

박 태 화

「十월혁명과 로씨야 공산주의자들의 전술」이란 이·브·쓰딸린의 저서는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 혁명의 경험에 대한 천재적인 리론적 총화로서 사회주의 혁명과 한나라에서 사회주의 혁명 승리에 대한 레닌적 리론을 한층더 높이 발전시킨 고귀한 저술이다.

이 저서에서 쓰딸린은 사회주의 十월혁명 시기의 국제 국내 정세에 대한 심오한 분석을 내리었고 十월혁명의 특성, 十월혁명 준비시기에 있어서의 볼쉐위크들의 전술, 그리고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혁명의 세계적 의의에 대하여 해명하였다。

이 저서에서의 쓰딸린의 모든 규정들은 력사적 실제적 자료에 기초하여 가지고 맑쓰-레닌적 리론으로써 명백히 밝히어 놓은 것이다。

이 저서는 맑쓰-레닌주의 발전에서 한개의 위대한 보물로서 현재에 있어서도 그가 가지는 바의 생능성은 전세계 공산주의자들의 사회주의 혁명 승리를 위한,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위력한 무기로 되어 있다。

이 저서가 오늘 민주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침략정책을 반대하는 거족적 투쟁 즉 조국통일을 위한 전인민적 투쟁의 선두에 선 우리 당과 당원들을 맑쓰-레닌주의적으로 무장시키는데서 절칠적 의의를 가짐은 물론이다。

이 저서가 저술된 것은 一九二四년 十二월인—

바 위대한 十월혁명의 경험을 깊이 리론적으로 총화함과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레닌적 학설을 앞으로 더 발전시킨 것이 이 저서의 기본으로 된다。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 혁명을 평가하면서 쓰딸린은 이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레닌적 학리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에 관한 맑쓰-레닌주의의 기본적 리론을 실천화시킨 모범을 주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十월혁명의 위대한 특성 또는 그 시기의 국제 국내 조건에 대한 분석은 력사적으로나 리론적으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위대한 十월혁명의 기본특성은 어데에 있는가? 즉 로씨야 프로레타리아트 혁명을 비교적 쉽게 수행케 한 외적 내적 특성은 어데에 있는가?

十월혁명은 아주 특수한 력사적 정세 속에서 수행되었던 것이다。

레닌은 자기의 저서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 소아병」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구체적 또한 력사적으로 비상히 독특한 一九一七년의 정세에서 로씨야가 사회주의 혁명을 개시하기는 용이하였으나 그러나 그 혁명을 지속하며 또는 끝까지 끌어나가기는 구라파의 모든 나라들에서보다 로씨야에서 더 어려울 것이다。

나는 이미 一九一八년 초에 이 사태에 대하여 지적하였거니와 그후 두해 동안의 경험은 그러한 사고(思考)가 옳음을 충분히 증명하였다。" 이러한 여러가지 특수 조건이란 즉

ㄱ, 쏘베트적 변혁과 그 변혁으로 말미암아 된 바의 로동자 및 농민들을 형언할 수 없이 괴로케 한 제국주의 전쟁의 종말과 련결시킬 수 있었던 것,

ㄴ, 전세계적으로 유력한 제국주의적 략탈자들의 두 그루빠가 쏘베트라는 적을 반대하며 련합할 수 없게 한 바의 그 두 그루빠의 결사적 투쟁을 얼마동안 리용할 수 있었던 것,

ㄷ, 부분적으로는 령토의 광대한 령역과 민활치 못한 교통기관으로 말미암아 꽤 장구한 국내전쟁을 견디어 갈 수 있었던 것,

ㄹ, 프로레타리아트의 당이 농민당으로부터 (그 다수가 볼쉐위즘에 극히 적대되는 에쓰·엘당으로부터) 그의 혁명적 요구를 취하여 가지고 프로레타리아트가 정치주권을 전취함에 의하여 그 요구를 즉시 실현하게 될만큼 그러한 심각한 부르죠아 민주주의적 혁명운동이 농민 가운데 있는 것 파 같은—이러한 여러가지 특수 조건은 지금 서구라파에는 없으며, 또한 이러한 혹은 아와 류사한 조건들의 출현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중—다른 여러가지 원인 이외에도—

서구라파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을 개시하기가 우리나라에서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이상과 같이 벌써 레닌이 지적한 바 즉 十월혁명에서 로씨야 프로레타리아트의 위대한 승리를 비교적 쉽게 한 조건들을 쓰딸린은 더욱 발전적으로 분석하였다。

「十월혁명과 로씨야 공산주의자들의 전술」이란 이 저서의 첫 제목에서 쓰딸린은 十월혁명 시기의 국제 국내 정세를 해명하였다。그는 로씨야에서 자본주의 지배를 비교적 쉽게 전복한 세개의 외적 조건을 해명하였다。

첫째 조건은 제국주의의 렬강 내에서의 두개의 기본적 그루빠가 즉 영·불진영과 독·오(墺)진영 간에 결사전이 진행되었던 관계로 제국주의의 침략자들이 十월혁명에 대한 주의를 돌릴 시간과 수단을 가지지 못한 그러한 때에 十월혁명이 시작된 그것이다。이 첫째는 혁명의 자체의 실력을 튼튼케 하며 조직하는데 있어서 제국주의 내부의 가혹한 충돌을 리용하여 준 까닭이다。

一九一七년은 제국주의 전쟁이 두개의 진영 즉 영국、불란서、로씨야、북미합중국、일본、이태리、벨기야、루마니야、쎄르비야、체르노고리야、불또가리야、기타 국가들을 한편으로 하고 독일 압스트리야—웬그리야、로이기、불가리야를 다른 한편으로 하는 량진영 간에 치렬히 전개되는 때였다。이 략탈적—전쟁은 이미 三년을 경과하였으나 아직 종결될 가망이 보이지 않았다。

이 두개의 제국주의 렬강 간의 투쟁은 제국주의의 철쇄를 끊어버리기 위한 十월혁명의 힘을 튼튼케 하며 조직하는데서 제국주의 내부의 충돌을 리용할 가능성을 주었다。이 형편은 十월혁명의 승리를 훨씬 쉽게 하였던 것이다。

둘째 조건은 十월혁명이 시작된 것은 로력대중이 전쟁에 피로하여 평화를 갈망하던 끝에 사물 자체의 론리에 의하여 평화에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프로레타리아트 혁명의 승리에 있다는 것을 리해하게 된 그러한 제국주의전쟁·행정인데 있다。이 사실은 十월혁명을 승리케 하는 데 거대한 의의를 부여한다。

그것은 이 형편에 十월혁명의 수중에 유력한 평화의 무기를 주었으며 그에게 쏘베트적 변혁을 가증한 전쟁을 끝내는 것과 련락할 수 있는 것을 쉽게 하였으며 또 그로 말미암아 그 혁명을 서구라파 로동자들과 동양의 피압박민족들 사이에서 대중적 동정을 얻게 하여 준 데 있다。

전쟁으로 인한 파괴 기근 등등의 불안에서의 유열한 출구는 오직 혁명뿐이라는 것을 인민들에게 자각시켰으며 사회주의 혁명에 참가하려 하지 않

면 농민들도 평화를 갈망하던 끝에 자연히 이 혁명에 가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셋째 조건은 구라파에 유력한 로동운동이 있은 것과 오래 계속되는 제국주의전쟁 때문에 동양과 서양에서 혁명적 위기가 성숙된 사태에서 十월혁명이 진행된 데 있다。이 사태는 十월혁명을 방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손을 붙잡는 十월혁명의 국외의 유력한 동맹자를 만들었던 것이다。

十월혁명은 세계 광범한 로동계급에게 거대한 혁명적 영향을 주었다。독일、영국、불란서、이태리에서 시작된 위력한 로동운동은 十월혁명 수행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이 나라 인민들 특히 군인들의 제국주의 전쟁을 반대하는 기풍과 혁명적 사상은 국외의 혁명적 로씨야의 동맹자로 되었다。

이 혁명적 력량은 로씨야의 프로레타리아트 혁명에 국제 제국주의와의 투쟁에 있어서 거대한 방조를 주었다。

국내전쟁 첫 시기에 련합국 진영이 많은 자기 군대를 흑해를 경유하여 남우크라이나 등 독일군이 퇴각한 지역에 진주시켰으나 그 군인부대의 혁명적 진출로 말미암아 급속히 철거시키고 말았다。해군 마르찌의 지도 하에서 불란서 해병들의 혁명적 폭동과 불란서 녀자 안나라부르그의 군대 내에서의 혁명적 활동은 이에 대한 현저한 례로 된다。

로씨야에서 十월 사회주의 혁명이 비교적 쉽게 승리하게 된 국제적 조건은 이상과 같다。

쓰딸린은 자기의 저서에서 十월혁명의 승리를 비교적 쉽게 한 국내적 조건을 역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로 十월혁명은 로씨야 로동계급이、최대 다수의 적극적 지지를 받았던 것이요、

둘째로 十월혁명은 평화와 토지를 갈망하는 빈농민과 다수의 병사들의 의심없는 지지를 받았던 것이요、

셋째로 十월혁명은 그의 선두에 지도력으로서 불쉐위끼당과 같은 시련된 당을 가졌던 것이요、

넷째로 十월혁명이 로씨야 지주와 자본가들이 비교적 약한 조건 하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十월혁명은 정세가 요구하는 때에는 자유로 출몰하며、퇴각하며、후퇴하며、또한 힘을 모을 수 있는 등의 그러한 넓은 지역을 자체의 관할 하에 가지고 있었던 [illegible]

여섯째로 반혁명파의 [illegible] 식로 연모 [illegible] 등의 [illegible] 있는 것을 타산할 수 있었던 까닭이다。

이상과 같은 국제 [illegible] 전의 결합이 十월혁명의 수행을 비교적 쉽게 하였다는 것을 지적한

면서 동시에 쓰딸린은 十월혁명이 처하였던 불리한 몇가지 적을 지적하였다。

이것은 十월혁명의 어느 정도의 고립 즉 十월혁명을 진행하는 로씨야의 결이나、또 그와 린접하여 十월혁명을 진행하는 로씨야가 방조를 얻을만한 그러한 쏘베트국가가 없었다는 것이다。 쓰딸린은 이러한 의미에서 쏘련과 같은 그러한 국가를 린접국으로 하는 독일의 장래 혁명은 매우、유리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다른 한가지 불리한 점은 十월혁명이 프로레타리아트가 나라에서 다수가 되지 못하는 조건 하에서 진행된 데 있다。

비록 이러한 결점들이 있었지만 쓰딸린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결점들은 이미 지적한 국내외적 유리한 조건들의 거대한 의의를 강조할 따름으로서 결코 혁명의 성공을 좌우하는 그러한 것으로는 되지 못하였다。

쓰딸린은 이 자기의 저서에서 구체적 력사적 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귀중한 교훈을 얻어 내는 훌륭한 모범을 보이었던 것이다。

이 十월혁명 수행에서의 국제 국내 사태를 더욱 구체화시킨 다섯가지 근본조건을 쓰딸린은 쏘련공산당(볼쉐위끼)력사 간략독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로 十월혁명은 비교적 약하고 잘 조직되어 있지 않으며 정치적으로 그다지 경험을 쌓지 못한 적、로씨야 부르죠아지를 상대로 하였다。……

둘째로 十월혁명의 선두에는 전투에서 단련되고 단기간에 두 혁명을 경험했으며 제三혁명의 전야에는 평화、토지、자유 및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인민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획득한 로씨야의 로동계급과 같은 혁명적 계급이 서 있었다。……

셋째로 로씨야 로동계급은 농민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 빈농과 같은 혁명에 있어 중요한 동맹자를 가졌었다。……

넷째로 볼쉐위끼당과、같은 정치투쟁에서 경험을 쌓은 당이 로동계급의 선두에 서 있었다。……

다섯째로 十월혁명은 실로 제국주의 전쟁이 아직 치렬했으며 주요한 부르죠아 국가들이 두개의 적대 진영으로 분렬되어 있어 서로 전쟁에 전념하고 서로 상대를 약화시키느라고「로씨야 문제」에 진심으로 간섭하며 十월혁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을 가지지 못한 때에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이、사회주의 十월혁명의 승리를 현저히 용이하게 만든 것은 의심할 바 없는 것이다。

十월혁명、시기의 국제 국내 정세에 대한 문제가 쓰딸린에 의하여 더욱 완전하게 분석되어진 것은 과학적 력사적 의의만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다。다른 방면으로 맑쓰—레닌주의는 변증법적 유물론의 법칙을 사회생활에、사회현상 연구에 적용하면서 여러가지 현상의 특징들을 인식하며 타산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 × ×

쓰딸린은 十월혁명의 기본적 특성을 해명하면서 쏘베트 로씨야 뿐만 아니라 동남구라파 인민들과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아세아 인민들에게도 실제적 의의가 있는 여러가지 중대한 문제들을 해명하여 놓았다。

레닌과 쓰딸린은 항상 해석하시기를 진정한 민주주의로 향하여 나가기를 소원하거나、또는 자본주의를 전복하기를 소원하는 자는 반드시 그의 투쟁에서 동맹자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혁명적 프로레타리아트 투쟁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가장 신임있는 동맹자는 농민과 도시 및 농촌의 로력인민이다。 볼쉐위크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가장 결정적인 중대성을 가진다는 것은 항상 명백하였다。 그러나 제二국제당의 기회주의자들은 로씨야 멘쉐위크들 및 뜨로쯔끼배들과 함께 프로레타리아트와 농민과의 동맹의 불피성을 부정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사회주의 혁명을 거부하였으며 두려워 하였기 때문이다。

十월혁명의 특성을 쓰딸린은 지적하기를 첫째로는 로씨야에서「프로레타리아 독재는 근로 농민대중에게 대한 프로레타리아트의 지도 하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와 근로 농민대중과의 동맹의 기초에서 성립된 그런 주권으로써 생긴 사실」이라고 하였다。

쓰딸린은 지적하기를 도시、농촌 소부르죠아 근로대중들에 대한 문제는 이 대중들을 프로레타리아트 편으로 전취하는 데 대한 문제는 프로레타리아트 혁명에서 중대한 문제라고 하였다。

쓰딸린은「주권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의 근로대중이 누구를 즉 부르죠아지를 지지하는가、그렇지 않으면 프로레타리아트를 지지하는가、또한 그가 누구의 후비군 즉 부르죠아지의 후비군으로 되는가、프로레타리아트의 후비군으로 되는가 하는데 혁명의 운명과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강고성이 달려있는 것이다」(「레닌주의의 제문제」一권 조선판 一五二페지)라고 하였다。

쓰딸린의 이 지시는 전세계 로동계급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의의를 갖게 되는 것이다。 력사는、우리에게 一八四八년 구라파혁명과 一八七一년 불란서 혁명 등이 실패한 것은 가본적으로 농민후비군이 부르죠아 편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그와 반대로「十월혁명이 승리한 것은 그

가 부르죠아지에게서 그들의 농민후비군을 떼어 내였고 그 후비군을 프로레타리아트편으로 전취하여 겠으며 또한 프로레타리아트가 이 혁명에 있어서 도시 및 농촌의 수백만 로력대중의 유일한 지도적 력량으로 되었던 까닭이다」(「레닌주의의 제문제」 一권 一五三페지)

프로레타리아트의 동맹자들에 대한 레닌—쓰딸린적 학설의 위대한 실천적 의의는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의 경험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즉 광범한 도시 및 농촌 로력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주권이 수립된 불가리야、 루마니야、 파란 및 기타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의 력사적 사변의 행정은 여기에 대하여 잘 말하여 준다。

一九四八년 二월 체코슬로바키야에서의 정변은 끝이것을 증명하여 준다。 인민민주주의를 전복하려던 반동들의 시도는 로동계급이 광범한 도시 및 농촌 로력 후비를 자기편에 전취함으로써 고립되고 말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의 공고화와 조국통일의 급속한 성취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즉 조선의 로동계급과 도시 및 농촌 로력대중과의 견고한 동맹에 달며 있음은 더 말할 여지도 없다。

쏘련군대의 위대한 역할로 일본 군국주의 세력이 조선에서 구축된 후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조선 로동계급의 주위에 결속된、 남북조선 인민들의 결속된 민주력량 앞에 매국역도들은 고립되고 있다。 이것은 조선 민주력량의 승리이며 조선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위하는 길이며 승리의 길인 것이다。

프로레타리아트 주권의 성격과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기본에 대하여 쓰딸린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는「경험있는 전략가」의 용의 주도한 수완으로써「교묘하게」「선택」되었고 또한 주민의 이러한 층과 저러한 층에「현명하게 의거하는」단순한 정부적 수뇌부가 아니다。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는 프로레타리아트가 동맹의 지도적 력량으로 되는 그런 조건 하에서 자본의 전복과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프로레타리아트와 근로 농민대중과의 계급적 동맹인 것이다」(「레닌주의의 제문제」一권 一五三페지)

레닌주의에 대하여 증오심을 가진「리론가」들이나 람쓰주의에 대한 암매성으로 인한 다른「리론가」들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에 대한 레닌적 리론은 로씨야 실정에만 관계되는 순전한「로씨야적」 리론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다。

이와 류사하게 현재에 있어서는 미 영 제국주의자들과、 그들의 주구들인 부륨、 애트리、 슈마헬 기타 구라파、 우익 사회주의자들은 인민민주주의나 공산주의는 다만 동구라파、 근본적으로 스라비얀

국가들에만 있을 수 있는 특이한 것이라고 목이 마르게 려설하고 있다。 그들은 서구라파 즉 안그로삭손과 라텐 인민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말하는「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거기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이 요구하는「사회주의」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런「리론」은 부르죠아 지배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며、 대중을 혁명운동으로부터 리탈시키기 위한 것이다。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레닌적 리론으로부터 출발하여 쓰딸린은 이 저서에서 특히 강조한 것은 로동자와 농민 간의 동맹에 대한 것이였다。

이것은 로씨야 농민만 볼 것이 아니라 식민지적 처지에 있는 쏘련변강의 각 약소민족의 로력대중까지 포함시켜 말한 것이다。

선진국가들의 프로레타리아트와 억압당한 식민지 인민들 간의 혁명적 동맹이 없이는 비프로레타리아트계급의 근로대중을 금융자본의 억압 착취로부터、 또한 미 영 기타 제국주의 국가로부터 해방시킬 수 없으며、 진정한 민주주의 승리와 전세계에서의 사회주의 승리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로동자와 근로농민 대중과의 동맹에 관한 레닌—쓰딸린적 리론、(로동계급이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조건에서의 동맹)이 순전한「로씨야적」리론이 아니고 그와는 반대로 전세계 각국에서 불피코 적용되는 국제적 리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때문에 쓰딸린은「불쉐위즘」은「전세계를 위한 전술의 정형(定型)」이란 레닌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은 로씨야에서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불쉐위즘은 인민민주주의가 승리하고 있는 나라에서나、 인민민주주의를 수립하는 것을 당면과업으로 삼는 나라에서나、 또는 어떠한 장애물이라도 극복하면서 이 길을 거쳐서 사회주의에로 갈 나라들에서나、 어느 경우를 물론하고 적용되는 것이다。

이 저서에서 쓰딸린의 로동계급과 농민대중과의 동맹에 대한 견해는 뜨로쯔끼의「영구혁명」의 멘쉐위끼적 반동적 내용을 폭로하였다。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에 대한 레닌적 리론과「영구혁명」론에 대한 뜨로쯔끼의 리론 간에는 심오한 대립성이 있음을 해명하면서 쓰딸린은 쓰기를「「영구혁명」은 농민운동의 혁명적 가능성에 대한 단순한 과소평가인 것이다。「영구혁명」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에 대한 레닌적 리론을 확정하는 데로 나아가는 바의 농민운동에 대한 과소평가인 것이다。 뜨로쯔끼의「영구혁명」은 멘쉐위끼의 이형동체이다」라고 하였다。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의 기본에 대하여 그의 각

면(面)과 성격에 대한 문제를 충분하고 심오하게 과학적으로 완성시킴으로써 투항주의적 뜨로쯔끼 환상을 격파시켰을 뿐, 아니라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에 대한 맑쓰—레닌적 리론의 기본적 규정들을 일보 전진시킨 것이다。 十월혁명의 이 첫째 특성은 무엇보다도 가장 실천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十월혁명의 둘째 특성은 한나라에서 사회주의 승리 가능에 대한 레닌적 리론을 실천에 적용하는 모형인 거기에 있다。 한나라에서 사회주의 승리에 관한 레닌적 테제를 주장하면서 쓰딸린은 자기의 저서에 제국주의 시대에 있어서 자본주의 불균형·발전법칙에 대한 리론과 여기로부터 나오는 한나라에서 사회주의 승리에 관한 결론을 천재적으로 해명하면서 이 리론의 출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ㄱ, 「자본주의는 지구상의 거대한 부분의 지역을 소수의 「선진」 나라들이 식민지적으로 압박하며, 금융적으로 질식시키는 전세계적 체계로 변성(變成)한 것이다」(「레닌전집」 一九권 七四페지)

ㄴ, 「그 「략탈물」의 분배는 자기들의 략탈물의 분배 때문에 되는 그들의 전쟁에로 전세계를 휩쓸어 몰아넣는· 즉 머리로부터 발톱까지 무장한 전세계적으로 유력한 二—三개의 략탈자들(미국, 영국, 일본) 사이에서 진행되는 것이다」(동상)

ㄷ, 금융적 압박의 세계적 체계의 내부에 없는 여러가지 모순의 장성과 군사적 충돌의 불가피성은 제국주의의 세계적 전선이 혁명으로 말미암아 쉽게 깨어지게 하며 그 전선의 파쇄는 각개의 나라에 있어서 확연한 것으로 되게 한다。

ㄹ, 이 파쇄는 무엇보다도 확실히 제국주의적 전선의 련쇄가 비교적 약한, 다시말하면 제국주의가 약하게서 있고 혁명이 일층 더 쉽게 전개될 수 있는 그러한 지점과 나라들 안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이다。

ㅁ,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들 안에—비록 이 나라들이 자본주의적으로 더 발전되었을찌라도—자본주의가 지속되고 있는 환경에서 심지어 자본주의적으로 덜 발전된 나라일찌라도 그 한나라 안에서 사회주의의 승리는 전연 가능한 것이며 또 확연한 일이다。

이러한 것이 간단히 말하면 프로레타리아트 혁명에 대한 레닌적 리론의 기본들이다」

프로레타리아트 혁명에 대한 레닌적 리론의 정확성은 十월혁명이 전적으로 증명하여 준다。 十월혁명은 이 리론을 실천화하는 모형으로 되었던 것이다。 이 특성을 리해 못한다면 十월혁명의 국제적 성질을 리해못할 것이며 그의 거대한 국제적 위력과 그의 독특한 대외관계를 리해못할 것이라고 쓰

딸린은 지적하였다。 프로레타리아트 혁명의 레닌적 리론의 정확성은 동남구라파 국가들의 경험이 또 다시 증명하여 준다。

이 나라들은 제국주의 철쇄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되어있다가 二차대전의 결과 제국주의 체계로부터 떨어져서 인민민주주의 길에 섰으며 사회주의 길로 가고 있다。

「사회주의 十월혁명에 대한 레닌적 리론의 절대한 의의는 그것이 새 리론을 가지고 맑쓰주의를 풍부하게 하며 맑쓰주의를 전진시켰다는 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즉 그 리론은 개개의 국가의 프로레타리아트에게 혁명적 전망을 주었으며, 자유부르죠아지에, 대한 공격에 그들의 창의를 발휘시켰으며, 이 공격을 조직하기 위해서 전시 상태를 리용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으며, 프로레타리아트 혁명의 승리에 대한 신념을 강화시킨 점에 있다」(「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략사」 二九四페지)

二차대전 후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이 창발적으로 제국주의 대렬에서 리탈되어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는 사실, 중국인민들이 제국주의의 주구들을 섬멸하여 가는 대성과, 조선인민들이 제국주의의 침략정책과 그의 주구들을 반대하는 창발적 투쟁——이 모든 사실은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레닌의 리론을 또다시 확연히 증명하여 준다。

국제 제국주의자들과 그에 복무하는 우익 사회주의자들의 발악에 대치하여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력량의 장성은 점점 더 강화되어 가며, 이 력량의 승리에 대한 희망은 견고하여 간다。 쓰딸린의 위대한 력사적 공로는 이 저서에서 뜨로쯔끼주의자들파 기타 투항주의자들파의 투쟁에서 한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승리 가능에 대한 레닌의 법칙을 더 앞으로 발전시킨 데 있다。 이것은 맑쓰—레닌주의에서 귀중한 부원으로 된다。 그런데 한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승리는 두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쓰딸린은 지적하였다。 즉 국내적 면과 국제적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문제의 국내적 국면 즉 국내에서의 계급의 상호관계에 관해서는 쏘련의 로동계급과 농민은 자국의 부르죠아지를 경제적으로 극복하고, 또 완전한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충분히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가지 문제의 국제적 국면 즉, 국외관계의 령역, 쏘베트 국가와 자본주의 제국과의 관계, 쏘베트 인민과 국제부르죠아지와의 사이의 령역에 있어서의 국제 부르죠아지는 쏘베트 제도를 미워하며, 쏘베트 국가에 대한 새 무력간섭을 수행할 기회를 엿보며, 쏘련에 자본주의를 부활시키려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쏘

면은 현재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이고 다른 제국은 자본주의 국가로 남아있음으로 쏘련의 주위는 자본주의 제국으로 포위되어 있으며, 자본주의 무력간섭의 위험을 일으키는 상태는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 제국에 둘러싸여 있는 동안은 자본주의 무력간섭의 위험에 있는 것은 명백하였다。 쏘련의 인민은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 국외적 위험, 쏘련에 대한 자본주의 무력간섭의 위험을 타파할 수가 있을까? 아니다。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안되는 리유는 자본주의 무력간섭의 위험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제국의 포위를 타파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리고 자본주의 제국의 포위를 타파하자면 적어도 수개국에 있어 프로레타리아 혁명이 승리한 결과로서만 가능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이러하다。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폐절과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건설로써 표현된 쏘련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는 외국의 무력간섭의 위험과, 자본주의의 부활의 기도의 위험이 의연히 존재하는한, 사회주의 국가가 이 위험으로부터 안전히 보장되어 있지 않는한, 아직도 최후적 승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외국 자본주의의 무력간섭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 자본주의 제국의 포위를 타파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전동맹 공산당(볼쉐위끼) 략사」 조선판 四七五—四七六폐지)

이 레닌—쓰딸린적 규정은 十四차 볼쉐위끼당 대표회의 결정서에 표시되어 있다。

쓰딸린은 한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승리 불가능에 대한 뜨로쯔끼의 리론에 결정적 타격을 주면서 「뜨로쯔끼의 「영구혁명」의 리론은 프로레타리아트 혁명에 대한 레닌적 리론을 부정한 것이요, 그와 반대로 프로레타리아트 혁명에 대한 레닌적 리론은 「영구혁명」의 리론을 부정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우리 혁명의 실력과 능력을 믿지 않으며 로씨야 프로레타리아트의 실력과 능력을 믿지 않는 그것이 곧 「영구혁명」 리론의 근거인 것이다。

이상에서 말한 바는 즉 농민운동의 혁명성을 믿지 않는 것은 「영구혁명」 리론의 한방면 뿐이다。 「영구혁명」 리론의 다른 방면은 로씨야 프로레타리아트의 실력과 능력을 믿지 않는 그 점에 있다。 이 점까지 해명하지 않는다면 「영구혁명」 리론을 완전하게 분석한 것으로 못될 것이다。 여기에 관하여 쓰딸린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서구라파의 주요한 여러 나라에서」의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예비적 승리가 없이는 한나라에서의 더우기 뒤떨어진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는 불가능하다는 멘쉐위즘의 보통 리론과 뜨로쯔끼의 리론이 어떻게 다른가?

본질상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다。

여기에는 아무 의심도 있을 수 없다。뜨로쯔끼의 「영구혁명」의 리론은 멘쉐위즘의 이형동체인 것이다」(『레닌주의의 제문제』 一권 조선판 一七二폐지)

이와 같이 레닌—쓰딸린적 리론의 지도 하에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한 쏘련 인민의 투쟁경험은 인민들의 앞길을 명백히 가르쳐 주고 있다。

× × ×

「十월혁명 준비기에 있어서의 볼쉐위크들의 전술의 몇가지 특성에 대하여」라는 이 저서의 세번째 제목도 역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十월혁명 시기의 볼쉐위크들의 전술의 경험은 오늘 세계 인민들의 혁명적 실천에 있어서, 리론적으로나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十월혁명 시기의 볼쉐위크들의 경험은 국제 공산주의자들에게 제국주의 반동의 힘을 반대하며 인민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정당한 전술을 작성함에서 용이하게 한다。

레닌이 四월테제에서 표명한 전략적 과업을 즉 혁명의 제一계단으로부터 혁명의 제二계단으로 다시말하면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에서 사회주의 혁명에로 이행하는 과업을 실천시키기 위해서는 자기편으로 도시와 농촌의 광범한 인민대중을 끌어들여야 할 것이었으며 혁명의 정치적 군대를 편성하여야 할 것이었다。 二월혁명 시기에는 볼쉐위끼에게 이러한 군대가 없었으며 있을 수도 없었던 것이다。

「정치적 군대는 보통 군대와는 다른 것이다。 만일 군사령부는 기성(旣成)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한다면 당은 투쟁의 행정에서 계급충돌의 행정에서 대중 자체가 자기들의 체험에 의하여 당의 구호들이 옳음과 당의 정책이 옳음을 확신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그의 군대를 편성하게 되는 것이다」(「레닌주의의 제문제」 一권 一七六폐지)

볼쉐위즘은 혁명의 정치적 군대를 계급의 투쟁과 충돌의 행정에서 편성하였으며 四월, 六월 및 七월의 시위운동, 각구역 및 시쏘베트의 선거, 꼬르닐로브파와의 투쟁, 쏘베트 전취—이 모든 것을 통하여 편성하여 놓았다。

十월폭동을 위한 정치적 군대의 편성이 군대에 대한 교양사업에 있어서의 결정적 역할을 레닌과 쓰딸린을 수위로 한 볼쉐위끼당이 놀았다。

볼쉐위크들의 전술은 인민대중 자신이 자체의 경험에서 볼쉐위크들의 표어의 정확성을 리해하기 전까지는, 즉 혁명의 정치적 군대가 편성되지 않았을 때에는,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반대하였다。 꼬르닐로브장군 음모 분쇄 전까지는 볼쉐위크들이 절대 다수의 대중을 전취못했다。 그것은 그 시기에

쏘베트에 멘쉐위끼와 에쓰•엘들이 다수 차지하였고 많은 농민들은 아직 이 멘쉐위끼 에쓰•엘을 믿고 불쉐위끼를 신임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대중의 절대 다수를 아직 전취못한 이런 때에 불쉐위끼들이 폭동을 시작한다는 것은 시기 상조였던 것이다。

十월에 이르러서는 사태가 전혀 달라졌다。 어 시기에 와서는 로동자 병사 대중들은 정치적 투쟁의 위대한 학교를 벌써 경과하고 있었다。 볼쉐위끼당은 대중적 혁명운동의 자연발생적 앙양에 의거하여 가지고 대중의 운동을 볼쉐위끼당 한당의 지도 하에서 진행시켰다。 이러므로 혁명적 진출을 위하여 볼쉐위끼당이 대중적 정치적 군대를 편성하는 것을 용이케 하였으며、 폭동의 전체 준비가 다만 볼쉐위끼당 한당의 지도로서만 진행되었다。

이 력사적 사실 즉 十월혁명 준비의 기본조건으로서 볼쉐위끼당 한당이 지도하였다는 사실은 十월혁명 준비시기에 있어서 볼쉐위끼들의 전술의 한가지 특징으로서 지적되는 것이다。

이 특징은 결국 十월혁명 결과에 얻은 주권이, 볼쉐위끼당 한당 손에 들어가게 하였다。 이 사실은 쏘베트 혁명의 성과의 결정적 조건으로 되었다。 十월혁명 준비기에 혁명적 대중이 볼쉐위끼당 한당으로•서만 지도된 것은 대중들이 실생활을 통하여 볼쉐위끼당 정책이 옳다는 것을 리해케 하였으며 동시에 타협적 당으로부터 떨어지게 하였다。

그러면 이와 같이 대중을 전취하는 당의 투쟁의 기본로선은 어떻게 수행되었으며 어떠한 계선으로 진행되었던가? 이 지도는 혁명의 전시기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그루빠들이었던 타협적 당드을 고립시키는 즉 에쓰•엘과 멘쉐위크드을 고립시키는 계선에서 진행되었다。

만일 짜리즘과 투쟁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一九〇五—一九一六년) 짜리즘과 농민 전체와의 사이를 타협시킴으로써 농민의 혁명적 기세를 와해시키려던 타협적 당 까제트와의 투쟁이 볼쉐위끼당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十월혁명을 준비하던 시기에 있어서는 투쟁력량의 중심은 새 지점(支點)에로 옮기어졌던 것이다。

「황제가 없어졌다。 립헌민주당은 타협적 력량으로부터 제국주의의 통치적 및 지배적 력량으로 변화되었다。 투쟁은 벌써 짜리즘과 인민 사이에 진행된 것이 아니라 부르죠아지와 프로레타리아트와의 사이에서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 있어서 제국주의의 사회적 지주(支柱)로서 가장 위험한 것은 소부르죠아적 민주당들인 에쓰•엘당과 멘쉐위끼당이었다。 왜 그러한가? 그 때에 그 당들은 타협적 당 즉 제국주의와 근로대중과의 사이의 타협을 위하는 당이었던 까닭이다。 그 당들을 고립시키지 않고서는 제국주의와 근로대중과의 분렬을 타산할 수 없었던 것이요、 그 분렬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쏘베트 혁명의 승리를 타산할 수 없었던 것임으로 그때에 볼쉐위크들의 주요한 공격이 그 당들을 반대하는 데로 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때에 여러 사람들은 볼쉐위크들이 에쓰•엘들과 멘쉐위크들을「너무 미워하며」주되는 목적을「잊어버린다」고 볼쉐위크들을 비난하면서 볼쉐위끼적 전술의 이 특성을 리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十월혁명을 준비하던 그 전시기는 볼쉐위크들이 다만 이러한 전술로써만이 十월혁명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웅변으로 말하여 준다」(「레닌주의의 제문제」一권 조선판 一八〇—一八一페지)

이와 같이 볼쉐위끼당이 대중을 전취하기 위한 투쟁은 타협적 당을 꾸준히 고립시키는 그 길이었다。 타협적 당을 대중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방향에서 대중을 지도하는 이 특성은 十월혁명 준비시기에서 당의 전술의 다른 한가지 특성으로 된다고 쓰딸린은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정당한 레닌—쓰딸린적 전술이 없이는 로동계급과 근로농민 대중의 동맹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쓰딸린은 레닌주의의 기본적 전략적 법칙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ㄱ、 덕쳐오는 혁명의 전개기에 있어서 혁명의 적들의 사회적 지주(支柱)로서 가장 위험한 것은 타협당들이라는 것과、

ㄴ、 그 당들을 고립시킴이 없이는 적을(짜리즘 또한 부르죠아지를) 전복할 수 없다는 것과、

ㄷ、 그러므로 혁명 준비의 시기에 있어서 그 당들을 고립시키며 그 당들로부터 광범한 근로대중을 분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주요한 공격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레닌주의의 제문제」一권 조선판 一七九페지)

쓰딸린의 이 지시는 오늘 소위「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제국주의 도배들과 타협하는 우익사회주의자들을 고립시키는 투쟁에서 세계 공산주의자들의 귀중한 무기로 되는 것이다。

쓰딸린의 이 지시가 오늘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조선 인민에게 귀중한 교훈으로 됨은 물론이다。

해방 후 일본제국주의의 대신에 다른 제국주의침략세력 즉 미제국주의 세력이 교체되지 않았더라면 조선인민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방해하는 리승만 매국도당들이 지금까지 자기 주권을 공화국 남반부에서 유지할만한 그러한 지반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제국주의 침략세력은 공화국 남반부에서 반동세력을 계속 유지하고 괴뢰「정권」까지 조작

합으로써 그것을 지주로 삼아 조선 침략을 합법화하려고 한다。 때문에 조선 인민아 제국주의 침략세력을 반대하며 민주주의적 조국통일을 전취하는 투쟁을 성과있게 진행하려면 침략자들의 주구로서 조선 인민을 제국주의 침략정책에 타협시키며는 리승만괴뢰「정권」도배들을 완전히 고립시켜야 하며 이 투쟁은 성과있게 수행되고 있다。

十월혁명 준비기에 있어서 소부르죠아당들을 고립시키는 볼쉐위크들의 전술과 밀접히 련결된 것은 종래 대중을 집결시키는 기관으로 되고 있던 쏘베트를 폭동의 기관으로、주권의 기관으로、새 프로레타리아트의 국가기구로 전환시키기 위한 투쟁이었다。 볼쉐위크들의 이 시기의 전술의 세번째 특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타협당들의 고립화와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서의 쏘베트를 국가 주권의 기관으로 변환시키는 정책 ― 이러한 것이、十월혁명 준비기에 있어서의 볼쉐위크들의 전술의 셋째 특성이다』(『레닌주의의 제문제』 一권 조선판 一八六페지)

쓰딸린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볼쉐위크들은 멘쉐위크들과 에쓰·엘들을 고립시키는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는、또한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사업을 전진시킬 능력을 가진 또한 수백만 근로대중을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의 승리에로 인도할 사명을 띤 기본적이며 조직적인 근간으로서 다름아닌 쏘베트를 잡아 쥐었는가?

쏘베트란 무엇인가?」

레닌은 이미 一九一七년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쏘베트는 첫째로 로동자와 농민들에게 무력을 주는 새 국가기관이다。 그런데 그 무력은 낡은 상비군의 무력과 같이 인민과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가장 밀접하게 련락된 것이요、또 군사상 관계에 있어서는 이 무력이 재래의 무력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한층 위력있는 것이요、혁명적 관계에 있어서는 이 무력이 다른 어떠한 것과도 바꾸어낼 수 없는 것이다。 둘째로 이 기관은 밀접하며 분리할 수 없으며 용이하게 검열할 수 있으며 또 쉽게 경신할 수 있는 그러한 련락을 대중과 즉 민중 대다수와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니 과거의 국가기관에는 이와 비슷한 련락것 조차 전혀 없었다。 셋째로 이 기관은 관료주의적 형식주의가 없이 인민의 의사에 의하여 그의 성원이 선거되고 또한 경질됨으로 말미암아 재래의 기관들보다는 훨씬 더 민주주의적인 것이다。 넷째로 이 기관은 온갖 종류의 직업들과 튼튼한 련락을 가지게 한다。 그리함으로써 관료제도가 없이 가장 참각한 성질을 가진 어려가지 개혁들을、쉽게 하여준다。 다섯째로 이 기관은 전위대의 즉 압박받는 계급들인 로동자와 농민들의 가장 자각적이며、가장 정력있는 선전적 부분의 조직형태를 준다。 그리함으로써 그는 압박받는 계급들의 전위대가 그를 통하여 지금까지 전연 정치생활 밖에、력사 밖에 처하여 있은 그 계급들의 거대한 대중 전체를 향상시키며、교양하며、훈련하며、자기의 뒤에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관으로 되는 것이다。 여섯째로 이 기관은 의회제(議會制)의 우점을 직접적이며 정면적인 민주주의의 우점과 결합시킬 수 있는 가능성 즉 선거를 받는 인민의 대표자들을 거쳐서 립법과 행정의 기능을 결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것이다。 이것은 부르죠아적 의회제에 비하여 민주제도의 발전상에 있어서 전세계사적 의의를 가지는 그러한 일보전진인 것이다。……만일 혁명적 계급들의 인민적 창조력이 쏘베트를 만들어 내지 않았다면 프로레타리아 혁명은 로씨야에 있어서 희망없는 일로 되었었을 것이다。 왜냐 하면 프로레타리아트가 이전의 기관으로서는 의심할 것 없이 주권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며、그러나 새로운 기관은 즉시에 조직할 수 없는 까닭이다」(『레닌주의의 제문제』 一권 조선판 一八三―一八四페지)

十월혁명 준비기에 있어서 볼쉐위크들은 「모든 주권은 쏘베트에로!」라는 구호를 변천되는 국내 정치정세에 적응시켜서 아주 교묘하게 적용하였다。一

즉 二월혁명 후로부터 十월까지의 기간에 「모든 주권은 쏘베트에로!」라는 구호는 그 내적 발전에서 두 계단으로 발전했던 것이다。첫 계단은 七월사변이 있은 때까지다。이 기간은 멘쉐위끼 에쓰·엘들과 까제트의 블럭을 타파하며、멘쉐위끼 에쓰·엘적 쏘베트를 수립하여 놓고(당시 쏘베트에 멘쉐위끼 에쓰·엘이 다수였기 때문에)、볼쉐위크들이 자유선동의 방법과 또 쏘베트 내부에서 자유투쟁의 방법으로써 쏘베트들을 볼쉐위끼화하는 방법 즉 혁명의 평화적 발전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계획의 내용은 곧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만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보장에 필요한 여러가지 조건의 준비를 쉽게 한다。그것은 집권자들인 멘쉐위끼 에쓰·엘의 반혁명적 정책을 부단히 폭로시키면서 대중으로부터 그들을 고립시키기 때문이다。七월사변으로 군벌적―까제트들이 우세하게 됨으로써 이 평화적 발전의 길은 중단되고「모든 주권은 쏘베트에로!」라는 구호는 림시 철회되게 되었다。

둘째 계단은 꼬르닐로브장군 음모의 실패 후에 시작되었다。여기에서 이 표어의 등장은 내용상 근본적 변경을 가져오고 있었다。

쏘베트에 볼쉐위끼가 다수 차지하였던 조건 하에

에서 이 표어는 제국주의와의 완전한 결렬과 불쉐위크들에게로의 주권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었다。이 표어는 폭동의 방법으로서 혁명이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에로 직접 접근하는 것을 의미하였다。이 표어는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조직과 및 그 국가적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당시 이 표어는 레닌—쓰딸린적 전술의 기본적 조직적 고리로 되었다。때문에 불쉐위크들이 十월 폭동을 조직하면서 제때에 이 표어를 내놓았다。쓰딸린은「수백만의 근로자들을 당의 편으로 전취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서 혁명적 진영에로 그 대중을 인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당적 구호들의 정당성을 대중으로 하여금 그 자체의 경험으로 확진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그 능력—이러한 것이 十월 준비기에 있어서의 불쉐위크들의 전술의 넷째 특성이다」(「레닌주의의 제문제」一권 조선판 一九三페지)라고 지적하였다。

대중과 밀접히 련결된 진정한 혁명적 당은 대중이 아직 당의 구호의 정당성을 리해못한 때에 대중에게 그 구호의 실천을 결코 강제로 요구치 않는다。반드시 충분한 해석공작을 전개하고 대중이 그 구호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실천에로 이행시키는 것이다。二월혁명 직후 불쉐위크들이 림시정부를 즉시 타도하라는 구호를 내세우지 않았던 것도 아직 그때 대중이 타협적인 멘쉐위크, 에쓰·엘들의 선전에 포로되어 림시정부의 존재는, 또 그 정부에 주권을 주는 것은 혁명에 해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 수립의 필연성을 리해하는 데까지 충분히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레닌은 四월테제에서 견인성있게 해석공작을 하라고 지시하였던 것이다。쓰딸린은 가르치기를 대중의 지도자로 교양자로 수령으로 되려면「당의 정책의 옳음을 대중에게 설복시킬 줄 알며, 또한 대중을 당의 진영에로 끌어들이며, 대중으로 하여금 자체의 경험에 의하여 당의 정책이 옳음을 쉽게 깨닫게 하는 그러한 구호들을 내세우며, 실행할 줄 알며, 대중을 당의 의식수준에까지 올려 새울 줄 알며, 그리하여 대중의 지지와 결정적 투쟁에 대한 대중의 준비성을 보장할 줄 안다함을 의미한다」(「레닌주의의 제문제」一권 조선판 二四九페지)

이 교시는 전세계 로동당들에게 자기 해방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거대한 교훈으로 된다。여기에 관하여 쓰딸린은 헌법제정회의에 대한 불쉐위끼의 전술을 들어 명백한 설명을 내리었다。헌법제정회의가 기본적으로 쏘베트 공화국과는 적대되는 부르죠아적 국회임에도 불구하고 불쉐위크들이 쏘베트 공화국을 요구하는 구호를 내놓으면서 다른 편으로 급속한 시일내로 헌법제정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까제트, 멘쉐위까, 에쓰·엘들이 지어 헌법제정회의 소집까지 보장치 못하며 그를 지연시킨다는 것을 대중에게 폭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이렇게 되어 공장과 군대내에서 불쉐위크들이 헌법제정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수다한 결정서들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불쉐위크들은 헌법제정회의 선거에 참가했고 쏘베트 주권이 수립된 후에는 불쉐위끼 자신의 손으로 헌법제정회의를 소집하였다。쏘베트 주권이 수립된 후에 와서 이와 같이 한 리유는 헌법제정회의가 쏘베트 주권보다 더 많은 것을 인민에게 해결해 준다고 아직 생각하고 있는 인민들의 환상을 실천적 경험으로써 인민들 자신이 분쇄하게끔 하는데 있었다。이럼으로써 쏘베트의 인민성을 인민 속에 침투시킬 수 있었다。

오늘 리승만 도배들이 조국통일의 평화적 방책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강령 실시를 거부하며 동족상쟁을 은폐하려는 그들의 매국정책을 대중 앞에 더욱 명확히 폭로시켰다。이럼으로써 조선 인민들은 자기들의 실천적 체험으로서 공화국 정부 주위에 더욱 결속케 된 것이다。十월혁명 준비기에 있어서 천재적으로 실천된 이 모든 레닌—쓰딸린적 전술은 세계 로동계급의 혁명적 당들에게 모범으로 되는 것이다。

× × ×

이 저서의 마지막 제목에서는 十월혁명의 국제적 의의에 대하여 백방으로 강조되고 있다。맑쓰—레닌적 변증법을 아주 충분히 무용하여 가지고 쓰딸린은 이 저서에서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레닌적 학설을 앞으로 더 발전시켰으며, 한나라에서 사회주의 승리 문제가 세계혁명 발전 간에 호상 제약되고 호상 련결된 데 관한 명백한 계통적 표현을 주었다。즉 로찌야 한나라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한 조건과 이후 발전되는 세계혁명 간의 호상관계를 명백히 하여 놓았던 것이다。

새 시기 즉 제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트 혁명시기이며, 세계 六분지一 지역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한 시기에 있어서 쓰딸린은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레닌적 리론을 풍부케 하면서 그 혁명의 국제적 성질과 위대한 국제적 위력을 보이어 주었다。쓰딸린은 쓰기를「구라파의 주요한 나라들에서 혁명이 동시적으로 승리한다는 일반적 리론과 한나라 안에서 사회주의의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리론은 인공적이며, 또한 실용성없는 리론으로 되어버린 것은 의심할 것도 없는 것이다。로씨야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 혁명의 七년간의 력사는 이 리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반대하여 말

한다。이 리론은 확연한 사실들에 모순되는 까닭에 세계혁명 발전의 도안(圖案)으로서 채용되지 못할 것 뿐만 아니라 그는 더우기 구호로서 채용될 수 없다。왜냐 하면 구는 일정한 력사적 조건들에 기인하여 자본 전선을 독립적으로 격파할 가능성이 있는 각개 나라들의 창의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도리어 그것을 속박하는 까닭이며, 또한 그는 각개 나라들이 자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습격할 것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전반적 총출동」의 순간을 소극적으로 기대하게 하는 까닭이며, 그는 각개 나라들의 프로레타리아트 속에 혁명적 결단성을 배양하는 것이 아니라「별안간 다른 나라들이 후원하지 않으면 어찌할까」하는 하물레트적인 회의정신을 배양하는 까닭이다」(「레닌주의의 제문제」一권 조선판 一九三—一九四페지)라고 하였다。

쏘련에 있어서 사회주의 승리의 가능성에 대한 레닌적 학설은 역시 세계혁명 발전에 대한 학설로써 되는 것이다. 쓰딸린은 이 두 문제를 변증법적으로 련결시켰다。그는 한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승리는 그 나라의 자기만족적 과업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일국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는 자기만족적 과업이 아니다。승리한 나라의 혁명은 자기만족적인 존재(存在)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전세계 프로레타리아트의 승리를 촉진하기 위한 보조로 보며 수단으로 간주하여야 한다。왜냐 하면 일국에 있어서의 혁명의 승리 즉 이 경우에 있어서는 로씨야에서의 혁명의 승리는 제국주의의 불균형적 발전과 루진적 조락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세계혁명의 시초이며 전제조건인 까닭이다。

세계혁명의 발전의 길들은 이 일국에서 혁명이 승리되기 전에「사회주의 혁명의 전야」인 발달된 제국주의가 출현되기 전에 생각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님을 의심할 것도 없다。왜냐 하면 군사적 충돌의 불가피성과 자본의 국제적 전선의 전반적 쇠약과 각개의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의 가능성을 말하는 발달된 제국주의의 환경에서 작용하는 자본주의 나라들의 불균형적 발전의 법칙과 같은 그러한 새 동인(動因)이 나타난 까닭이요, 또 동양과 서양 사이에 놓여 있으며 세계의 금융적 착취의 중심과 식민지적 압박의 무대와의 사이에 놓여 있는 거대한 쏘베트 국가와 같이 한갓 그 자체의 존재만으로서도 전세계를 혁명화하는 그러한 새 동인이 나타난 까닭이다」(「레닌주의의 제문제」一권 조선판 一九五페지)

세계 근로대중들은 쏘련이 세계평화의 성채이며

세계인민의 진정한 옹호자라는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十월혁명 후 三十년 간의 모든 사변은 —인류력사에 있어서의 근본적 전환을, 세계 자본주의의 력사적 운명에 있어서의 근본적 전환을, 세계 프로레타리아트의 해방운동에 있어서의 근본적 전환을, 전세계의 피착취자 대중의 투쟁방법과 조직형태, 생활상태와 인습, 문화와 사상에 있어서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 十월혁명은 국제적 세계적 혁명이라는 근거가 있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 전세계의 피압박계급들이 그들의 해방에 대한 보장을 十월혁명에서 보면서 十월혁명에 대하여 그 심각한 동정을 표하는 원인이 있는 것이다」(「레닌주의의 제문제」一권 조선판 三三六페지)

쓰딸린은 지적하기를「아마도 세계혁명은 제국주의적 여러 나라들의 프로레타리아트가 이 나라들의 프로레타리아트를 지지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제국주의 국가들의 체계로부터 새로이 여러 나라들이 혁명적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 방법으로써 발전되리라는 것이 보다더 있음직한 일이다」(「레닌주의의 제문제」一권 조선판 一九七페지)라고 하였다。

이 천재적 예언은 꼭 들어 맞았던 것이다。二차 대전의 결과에 동남구라파 국가들 즉 불가리야, 루마니야, 파란, 체코슬로바키야 기타 국가들이 제국주의 체계로부터 리탈되어 인민민주주의 새 형태의 체제를 수립함으로써 사회주의 발전의 길로 넘어갈 토대를 세워놓았다。

우리 조선에서는 공화국 북반부의 민주개혁과 경제건설의 토대 위에서 전조선인민의 진정한 정권인 조선최고인민회의가 선거되었고 김일성 장군을 수반으로 하는 공화국 중앙정부가 조직된지 이미 一년이 경과하였다。조선인민은 공화국 중앙정부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되어 북반부에서 실시된 모든 민주개혁과 시책들을 전조선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거족적인 조국통일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 조선 인민들의 지난 기간의 성과는 사회주의 국가 쏘련의 결정적 역할에 의한 해방과 해방 후 쏘련의 아낌없는 방조로써 보장되었다。앞으로의 성과적 투쟁도 물론 이런 조건 하에서만 보장됨은 의심할 바 아니다。

× × ×

「十월혁명과 로써야 공산주의자들의 전술」이란 쓰딸린의 이 저서는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혁명의 경험을 총화지은 것이며 자본주의 포위의 조건 하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첫 경험을 총화지은 것이다。이 저서는 한나라에서 사회주의 승리에 대한 레닌적 학설을 앞으로 더욱 발전시킨 것이며, 세계 로동계급의 혁명적 당들에게 귀중한 승리적 맑쓰—레닌주의 학설을 무장시킨다。

독자들의 질문에 대한 해답

로씨야 사회민주로동당 제二차대회

독자 김준상 동지(황해도 안악군 대원면 엄광동리)는 로씨야 사회민주로동당 제二차대회에서 어떤 문제들이 토의되었으며, 당은 왜 볼쉐위끼와 멘쉐위끼로 분렬되었는가고 물어왔다. 이에 대하여 잡지편집국은 다음과 같이 해답한다.

一九〇三년 七월 三十일—八월 二十三일에 개최된 로씨야 사회민주로동당 제二차대회는 로씨야 및 국제적 로동운동사에 있어서 특히 거대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당 제二차대회는 一八九八년 三월에 열렸던 제一차대회와는 달리 로씨야 로동계급의 조직부대를 실지로 대표하였던 것이다. 동대회에는 페쩨르부르그, 모쓰크바, 하리꼬브, 바꾸, 바뚬 및 기타 도시와 같은 로씨야의 대산업 중심지의 사회민주주의적 위원회들과 동맹들의 대표자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 총수는 二十六개 단체 대표자 四十명이였다. 그들은 五十一표의 결의권을 가진 대의원들이었다.

당 대회의 일체 준비는 로씨야 사회민주로동당 내의 혁명적 요소들을 사상적 및 조직적으로 묶어 세운다는 기발 밑에서 진행되었다. 즉 대회는 당의 분산된 력량을 반드시 통일적인 강력한 것으로 만들어야 할 대회이었다.

그러나 실상 대회는 통일적 당을 줄 수 없었고 다만 이러한 당의 기초를 쌓아 주었을 뿐이었다. 그 대신에 대회는 당 내에 두가지 조류, 즉 「이쓰크라」의 조류와 그 반대파의 조류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회는 「다수」와 「소수」의 두개 부분으로 분렬되었던 것이다. 전자는 「이쓰크라」의 조류에 립각하여 그 주위에 결속되었고, 후자는 「이쓰크라」의 반대자로서 그와는 대립되는 립장을 취하였다. 이와 같이 「이쓰크라」는 당의 「다수」의 기치로 전환되었으며 「이쓰크라」의 립장은 곧 「다수」의 립장으로 되었다.

× ×

「로씨야 사회민주로동당 제二차대회는 분렬로써 끝마치었다. 물론 이것은 우연한 사실이 아니다. 분렬의 원인은 대회에 여러가지 색채의 정치적 그루빠들이 참가하였음에 기인되었던 것이다. 대회에서 다수표는 「이쓰크라」 지지자들에게 있었는바, 즉 그들이 五十一표 중에서 三十三표를 얻었다. 그러나 「이쓰크라」파 전체가 레닌을 지지한 것은 아니다. 레닌의 지지자들은 대회에서 확고한 「이쓰크라」파라고 칭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二十四표를 얻었다. 마르또브 지지자들은 불확고한 「이쓰크라」파라고 칭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九표였다. 일부 대표는 「이쓰크라」와 그 반대자의 중간에서 동요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사람이 대회에서 十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중간파이었다. 「이쓰크라」의 공공연한 반대자는 모두 八표(「경제주의자」의 三표와 「분드파」의 五표)를 가지었다. 이때에 만약 「이쓰크라」파가 분렬한다면 「이쓰크라」의 적이 우세를 차지하였을 것은 두말할 것도 없었다. 이러한 복잡한 환경에서 대회는 진행되었다.

로씨야 사회민주로동당 제二차대회의 중요한 임무는 「이쓰크라」가 제안하고 작성한 원칙적 및 조직적 기초 위에서 진정한 당을 창립하는데 있었다. 「이쓰크라의 강령과 방향으로 되어야 하며, 이쓰크라의 조직적 계획은 반드시 당의 조직적 규약에 고착되어야 된다」라고 레닌은 말하였다. 이 중대한 과업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대회에서 가장 첨예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이것은 「이쓰크라」의 지도와 「이쓰크라」의 전술과 「이쓰크라」의 강령과 「이쓰크라」의 원칙의 승리를 위한 투쟁이며, 당을 볼쉐위끼와 멘쉐위끼로 분렬에 이르게 한 투쟁이었다.

강령 작성의 필요성과 과업은 벌써 一八九五년에 레닌이 페쩨르부르그에서 조직한 「로동계급 해방투쟁동맹」 시기부터 시작하였다. 「이쓰크라」 편집부는 로씨야 사회민주로동당 강령 초안을 작성할 필요로 一九〇一년 여름에 회의를 소집하였고, 이 사업을 근본적으로 一九〇二년 초에 완필하였다. 그를 로의할 목적으로 一九〇二년 一월 二十一일에 뮨헨에 「이쓰크라」 편집부위원들의 협의회가 소집되었다. 초안은 쁠레하노브가 작성하였다. 레닌은 이 강령 초안이 사회운동이 요구하는 조건에 적합치 못하였기 때문에 무자비한 비판을 내리었다.

때문에 레닌이 강령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하였다。쁠레하노브는 레닌적 강령을 부인하였고, 또 다시 새 강령초안을 작성하게 되었다。편집부 협의회에서 사쑬리츠의 의견에 의하여 두 강령초안을 기본으로 잡아 유일한 강령 작성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레닌적 「이쓰크라」는 투쟁에서 단련되었고 경험있는 직업적 혁명운동자들을 양성하였으며, 조직적 문제를 완성하고, 사상적 통일을 만든 이후 一九○二년 十一월 十五일 스쁘꼬브에서 협의회를 소집하였다。

이 협의회에서 제二차 당 대회를 소집할 결정을 접수하였다。

당 대회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당 강령을 채택하는 문제이였다。

당 강령 초안을 작성함에 있어 이미 대회·전 「이쓰크라」 편집부 내부에 있어서 레닌을 일방으로 하고 쁠레하노브를 상대방으로 하는 심각한 의견차이가 나타났었다。강령 문제에 관한 레닌과 쁠레하노브와의 론쟁은 볼쉐위끼와 멘쉐위끼간의 미래의 의견 차이를 결정하였다。

레닌은 쁠레하노브의 강령 초안을 비판하면서 「이것은 실지로 투쟁하는 당의 강령은 아니다……이것은 다만 학생들을 위한 강령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대회에서 기회주의자들이 이 강령을 반대하여 출현하였다。대회에서 기회주의적 분자의 반대를 야기시킨 중심 문제는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에 관한 문제였다。

레닌이 주장한 것은 당 강령 초안에는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에 관한 가장 중요한 조목이 들어갈 것과 혁명에 있어서의 로동계급의 지도적 역할이 뚜렷이 지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로씨야 및 국제로동운동의 그 후의 전력사는 오직 프로레타리아트만이 현사회에 있어서 끝까지 혁명적인 계급으로서 완전한 민주주의적 전환을 위한 전인민의 투쟁과 압제자와 착취자를 반대하는 전근로자들의 투쟁에 있어서 명도자가 될 수 있다는 맑쓰-레닌주의의 근본 명제의 힘과 생기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이 명제를 망각하는 것은 커다란 오유를 범하게 한다。

기회주의자들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에 관한 조몬을 당 강령에 포함시킬 것을 대회에서 맹렬히 반대하였다。

「경제주의자」 아끼모브는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를 「비정의적 표현」이라 칭하고 레닌의 강령 초안을 채택하는, 것도 반대하였다。

강령을 전적으로 채택하기 위하여 거수할 때에 중립한 대표는 아끼모브 한사람 뿐이었다。아끼모보는 거수할 때에 왜 「중립하였는가에 대하여

그는 특별 성명으로써 대회에서 설명하였다。그는 두개의 원칙적 조항을 지적하였다 즉 서구라파의 모형으로부터 퇴각이 되기 때문에, 그가 그 강령을 접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그것은 첫째로 사회주의 혁명과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에 관한 조항이며, 둘째로는 빈궁화에 대한 리론이다。

아끼모브는 우리의 강령에 빈궁화에 관한 문제는 서구라파 사회주의적 서적의 새 저술의 반대로써 해결되었다」고 성명하였다。이 방면에서의 아끼모브의 성명은 정당하다。진실로 서구라파 수정파들의 「새 전술」 들은 빈궁화의 리론을 반대하는 부르죠아적 론증으로써 충만되었다。빈궁화의 리론을 거부하는 것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위찬 계급투쟁의 정책을 반대하고 계급간의 타협과 자본주의를 평화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리론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위한 계급투쟁의 정책은 빈궁화에 관한 리론과 전반적 자본축적 법칙과 떨어질 수 없는 관련을 가지었다。다시 말하면 자본주의사회는 두개의 대립적 극으로, 즉 하나는 사회의 일체 부(富)를 자기의 수중에 장악하는 부르죠아와 다른 하나는 점점 살 수 없게 되며 실업과 착취와 압박과 천대로써 시달리는 프로레타리아트로 더욱 분화되는 사실과 관련되었다。대중을 빈궁화시키며 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죠아 간의 계급투쟁을 강화시키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 발전에 관한 당 강령의 명제는 사회주의 혁명과 그의 불피적 조건인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에 관한 결론에 반드시 이르게 한다。대중의 빈궁화와 부르죠아사회의 계급적 모순 첨예화를 거부하는 아끼모브의 수정주의적 견해는 사회주의 혁명과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불가능성에 관한 결론에 이르렀다。

아끼모브는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반대하여 당 명칭을 가지고 론증하려 하였다。당은 자기의 명칭으로써 다만 사회주의만 위하여 투쟁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하여서도 투쟁하여야 된다고 성명하였다。아끼모브의 견해에 의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소수의 정권으로 인정하는 독재와의 융합할 수 없는 다수의 정권이다。아끼모브는 독재와 민주주의의 변증법적 상대적 대립성을 파렬하였으며, 독재와 민주주의를 고립시키였으며, 대립시키면서 문제의 계급적 맑쓰주의의 해석을 다수와 소수에 관한 부르죠아 자유주의적 론의로써 슬그머니 교체하였다。아끼모브도 다른 기회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혹은, 혹은」 하는 공식에 의하여 론의하였다。즉 혹은 독재이면 그때에는 민주주의가 없을 것이요, 혹은 민주주의면 그때에는 독재가 없을 것이다。

기회주의자들은 보편적 진리를 의곡하였다。독재는 지배계급을 위한 민주주의를 반드시 숙청하는 것은 의미하지 않으나 그러나 그는 압박계급을 위한 민주주의는 반드시 숙청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한한다。부르죠아의 독재는 프로레타리아트와 전로력자들에 대한 민주주의는 숙청하거나 엄중히 제한하지만 부르죠아에 대한 민주주의의 숙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는 부르죠아와 착취자들에 대한 민주주의는 숙청하거나 엄중히 제한하지만 로력자들에 대한 민주주의의 숙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더우기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는 권리와 자유를 형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로력대중이 그를 실천하기 위한 물질적 보장을 조성한다。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는 민주주의의 최고 형태이다。

대회에서 아끼모브를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와 「화해」시키는 의무를 뜨로쯔끼가 부담하였다。그는 말하기를 아끼모브는 소수의 독재로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를 공공연히 겁내 한다고 하였다。왜나 하면 뜨로쯔끼의 견해로는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에 관한 말은 프로레타리아트가 민족의 다수를 차지하여 그의 의식이 사회민주당의 의식과 합류될 때에만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뜨로쯔끼는 아끼모브를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와 「화해」시키는 것을 달성하였다。

대회는 반「이쓰크라」파들의 시도를 반대하고 혁명적 강령을 채택하였다。이 관계에서 대회는 높은 지위를 차지하였다。

대회에서 채택된 강령은 두 부분으로 된 것이었다。「최고 강령」은 당의 주요 과업을 사회주의 혁명, 자본가들의 정권의 전복,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설정으로 규정지었다。

「최저 강령」에는 자본주의의 제도가 전복되기 전, 프로레타리아트 독재가 수립되기 전에 수행하지 않으면 안될 당의 당면 임무, 즉 짜리 전제제도의 전복, 민주공화국의 수립, 로동자들을 위한 八시간 로동제의 실시, 농촌에 있어서 농노제의 모든 잔재의 숙청, 지주가 농민에게서 빼앗아간 토지(베운땅)의 농민에의 반환에 관해서 지적되어 있다。

대회에서 조직 문제의 토의는, 전혀 다른 형편에 있었다。

조직 문제는 대회의 중심이었다。레닌은 로씨야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외국련맹 제一차 대회에서, 전대회의 기본 방향은 네개의 대(大)모멘트에 귀착된다고 지적하였다。첫째, 조직위원회와의 충돌, 둘째, 언어평등권에 대한 토의, 셋째, 규약 一조에 대한 토의, 넷째, 당 중앙 선거시의 투쟁이었다。

조직위원회와의 충돌은 대회의 초기에, 즉 네번째 회의에서 발생되었다。조직위원회는 파리에 망명하여 있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적은 그루빠인 「두쟁」그루빠를 대회에 초대하지 않았다。이 그루빠는 당내에서 어떠한 영향이든지 없었으며, 또 확고한 견해도 가지지 못하였다。조직위원회의 이 결정을 대회의 대표자 자격 심사 위원회에서 승인하였다。이 후에 조직위원회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대회에 참가한 그의 위원들이 결의권을 가진 「투쟁」의 대표들을 대회에 초대하자는 이전과는 정반대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조직위원회 위원 중 한 사람인 크라씨꼬브(빠블로웨츠)는 조직위원회의 이 새 결정을 반대하였다。그러므로 조직위원회는 이 문제에 있어서, 크라씨꼬브에게 참석을 금지한다는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조직위원회의 새 결정은 대회의 다수에 적지 않은 분개를 일으키었다。그러나 기회주의자들은 그를 지지 찬동하였다。크라씨꼬브는 조직위원회의 새 결정의 비법성에 관하여 론박하였다。크라씨꼬브의 참석은 파란을 일으켰다。예끄로브는 크라씨꼬브가 당 규률을 위반하였다고 론죄하였다。당 규률을 크라씨꼬브가 위반하였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직위원회가 위반하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론쟁이 벌어졌다。대회와 낡은 크루쇼크와 대표들의 권리에 대한 문제가 생기었다。대회의 의장 쁠레하노브는 할 수 없이 「대회는 당의 최고 기관이다」라고 상기시켰다。

이에 대하여 레닌은 「대회는 당의 최고, 기관이다。그러므로 당 생활의 어떠한 문제를 물론하고 어떠한 대표든지 직접 대회에 상신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억압하는 그 자가 당의 규률과 규약을 위반한다」(레닌전집 제六권 一七〇페지)라고 말하였다。

조직위원회와의 사이에 발생된 사건의 정치적 의의는 무엇인가?

사건의 원칙적 중대성은 조직문제에 있어서 두개의 기본적 로선이 발로된 것이다。즉 이전 크루쇼크주의적 로선과 창건되는 당성의 로선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이렇게 되어 론쟁의 문제는 듸렘마에 빠지었다。즉 크루쇼크주의냐 그렇지 않으면 당성이냐? 대회에서 각종 위원회와 소조들의 상상해낸 권리와 규약으로써 대표들의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만 말로만 아니라 실지에서 대회를 앞두고 진실한 당의 책임적 기관들을 창설하기 전에 각급 하부 조직들과 이전 그루빠들을 완전히 해산하든지 하는 것이다。벌써 여기에서 독

자신이 당을 실지적으로 창건하려는 목적을 가진 대회(제三차회의)시초에 생긴 이 론쟁이 어떠한 원칙적 중대성을 가지었는가를 볼 것이다。이 론쟁에서 이전 크루쇼크와 창건되는 당그루빠 간에의 소위 론쟁이 집중된 것이다」(레닌전집 제六권 一七〇페지)

대회는 조직위원회의 새 결정을 거부하였다。여기에서 청소한 아직 견고치 못한 당성이 이전 크루쇼크주의를 승리하였다。

대회의 제十七차회의에서 「신앙, 언론, 출판, 집회, 파업 및 결사」의 무제한적 자유의 요구에 관한 강령의 정치적 부문 제五항을 토의할 때에 분드파 리베르는 「언어」를 척부하자고 제의하였다。언어의 무제한적 자유……이러한 요구는 희극적 성질을 가진 것만큼 그 의견을 조롱하고 거부하였다。그렇기 때문에 분드파들은 「언론의 자유」대신에 「언어의 평등권」의 요구를 제의하였다。

대회에서 누구든지 물론 언어의 평등권, 즉 어떠한 민족이든지 모국어를 리용하는 권리를 반대하지 아니하였다。「이쓰크라」파는 다만 이 권리를 강력에 기입하는 것을 반대하였다。왜 그리하였는가 하면 강력에 민족 평등권의 요구를 쓴 것만큼 각민족의 모국어 리용권 즉 「언어 평등권」이 그 자체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이 외에 민족적 불평등을 언어의 분야에 전치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끝으로 「이쓰크라」파는 강력을 세목으로써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다。더우기 이러한 세목은 가장 광범하고 완전한 공식으로써 벌써 강력에 표시되었던 것이다。

강령에 언어 평등권에 관한 요구의 기입을 반대하는 것은 가장 정당한 리유임에도 불구하고 「이쓰크라」반대자와 동요 분자들은 그것을 강요하였다。그리하여, 론쟁은 격화되었다。

언어 평등권으로부터 생긴 사건의 정치적 의의는 무엇인가?

「이쓰크라」파의 융일이 없다는 것이 폭로되었으며 그리고 이 사정은 즉 「이쓰크라」파를 배반하는 사람의 수가 많지 못하다 할찌라도 반「이쓰크라」방면의 승리를 보장하여 주는 것이다。「이쓰크라」파의 총표 중에서 (「이쓰크라」는 모두 三十三표이었다) 八표가 떨어졌다는 것은 반(反)「이쓰크라」파와 동요 분자들의 련합에 우세를 주었다。이러한 사실은 대회에서 규약 제一조를 채택할 때와 선거시에 반복되었다」(레닌전집 제六권 一八一페지)

「이쓰크라」다수로부터 불확고한 「이쓰크라」부분이 분리되어 나간 것은 반「이쓰크라」방면의 승리를 보장하여 주었으며, 때문에 대회에서 「열광적」

투쟁이 환기되었다。

「대회의 전기간에 「이쓰크라」다수로부터 얼마되지 않는 부분이 떨어져 나간 세개의 가장 큰 사변이 있었다。즉 언어 평등권, 규약 제一조, 선거가 곧 그것이다。이 세가지 사변시에 격렬한 투쟁이 벌어졌으며, 결국 이 투쟁은 당내에 오늘과 같은 공황을 끌어왔다」(레닌전집 제六권 一七九—一八〇페지) 라고 레닌은 썼다。

대회의 제十三차 회의에서 당 규약을 토의하기 시작하였다。

규약은 당의 내부 생활과 일상 활동의 파괴할 수 없는 기본인 것이다。이 규약은 당단체들의 실지 사업의 방법과 당의 건설 형태와 당 내부 생활의 규칙을 규정하는 것이다。당 규약에 관한 문제는 제二차 당대회에서 맹렬한 론쟁과 「이쓰크라」파 자체의 진영 내에 근본적 분렬을 일으켰다。레닌은 당 규약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그가 제출한 규약 초안은 전투적이고 중앙집권화된 규률이 있는 당의 조직적 원칙들을 뚜렷하게 표현하였다。

레닌은 당을 로동계급의 전위적, 맑쓰주의적, 조직적 부대로 간주하였다。당은 로동계급의 최고 조직형태이며, 일체 다른 프로레타리아트 단체를 지도할 의무가 있다。당은 로동계급의 전위대와 수백만 근로대중과의 관계를 가장 명백하게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레닌은 동대회에서 「우리의 파열은 우리 당의 견고성과 인내성과 순결성을 지키는 것이다。우리들은 반드시 당원의 칭호와 의의를 높이 높이 또 높이 올리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하였다。

레닌적 「이쓰크라」에서 작성한 조직적 중심 사상은 중앙집권주의 사상이다。「이쓰크라」는 어 사상을 당 조직의 기초로 만들려고 기도하였다。즉 이 사상이 조직문제의 모든 세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을 원칙적으로 규정하며, 즉 이 사상이 유일한 원칙으로서 반드시 전(全)규약에 시종 일관하여야 된다。

부분적 또는 림시적 성질을 가진 「이쓰크라」의 다른, 조직적 사상은 당의 사상적 기관인 정치적 신문의 특별한 역할에 관한 사상이다。

「이쓰크라」의 조직 계획의 두개의 기본사상은 레닌의 여러 저서에서 특별히 「무엇으로부터 시작할까?」「무엇을 할까?」란 그의 저서에서 론술하였다。이 사상은、레닌이 「우리의 조직적 파업에 관하여 동지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세밀히 해석하였다。

「이쓰크라」파는 중앙집권주의 사상이 대회에서 반「이쓰크라」파의 반대를 환기시킨 것을 예측하

였다。사실 그렇게 되었으며、또 그렇게 진행되었다。

그런데「이쓰크라」파 자체 가운데에서도 중앙집권주의 사상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다。규약 제一조에 대하여 반대하여 마르또브와 기타 불확고한「이쓰크라」파들이 반대하여 출현하였으며、특별히 대회 후에 조직문제에 있어서 중앙집권주의의 사상을 반대하여、투쟁을 일으켰다。그들은 규약 제一조에 관한 레닌의 정의를 반대하였다。레닌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즉「당의 강령을 승인하며、물질적으로 원조하며、어느 한 당단체에 참가하는 자가 로써야 사회민주로동당의 당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정의는 보는 바와 같이 전적으로 당은 개개인의 집합이 아니라 중앙집권적 조직체라는 견해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레닌의 정의를「협소」하고「불편」한 것으로 보아 제쳐놓고 마르또브는「협소」하지도 않고「불편」하지도 않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자기들의 정의를 제기하였다。마르또브의 정의에 의하면「로써야 사회민주로동당의 당원으로는 그의 강령을 승인하며、당을 물질적으로 지지하며、그 어느 한 단체의 지도하에서 상시적으로 당에 직접 협력해 주는 자는 누구나 다 인정된다」

마르또브는 규약 제一조 당원 자격에 관한 규정에 세개의 특징을 지적하였다。즉 당의 강령을 승인하는 것이며、물질상으로 당을 지지하는 것이며、당의 어느 한 조직의 지도 하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그를 협력하는 것이다。당원 자격에 관한 첫째 둘째 특징은 레닌의 것이나 마르또브의 것이나 일치한다。다만 셋째 특징에서만 차이가 있다。레닌의 것은 당의 어느 한 조직의 성원이 되는 것이며、마르또브의 것은 당의 어느 한 당단체의 지도 하에서의 상시적으로 직접 협력이라는 것이다。「하고 보니 어느 한 당단체에 가입하지 않고도(이것이 소위「당」이다!)、자기가 당의 의사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부인하면서도(이것이 소위「당 규률」이다!) 당원이 될 수 있단 말이다。하지만 어떻게 당이 어느 한 당단체에도 참가치 않으며、자기가 무조건적으로 당 규률에 복종해야 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을「상시적」으로 지도할 수 있단 말인가?」(쓰딸린전집 제一권 당출판사판 七七페지)

레닌과 마르또브와의 정의상 차이에 있어서는 그리 크지 않는 것 같다。대회의 한 대표는 레닌과 마르또브의 정의 간의 특별한 차이를 볼 수 없다고 까지 하면서「레닌의 말을 들으면 그것이 옳은 것 같고、마르또브의 말을 들으면 그것이 옳은 것 같기도 하다」라고 말하였다。

당 규약 제一조에 관한 외형상 크지 아니한 이 차이는 조직 규률 및 중앙집권제에 있어서 전

혀 다른 두 견해에 섰으며、어떻게 당을 창건하여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에 두가지의 다른 대답을 준 것이다。

마르또브의 지지자들은 그의 정의가 당원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문을 널리 개방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

규약 제一조에 관한 레닌적 정의는 당을 로동계급의 조직적 부대로 조직의 체계로 인식시킬 것을 예정한 것이다。이러한 조직적 부대와 체계가 없이는 정권을 위한 투쟁에서 프로레타리아트가 승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규약 제一조에 관한 마르또브의 정의는 당을 전혀 다르게 인식시키려는 것을 예정한 것이다。마르또브는 당을 분산적이며 조직상 어떠한 무정형한 것으로 구명하고、그 성원은 자기 마음대로 당에 입당할 것을 용허하였다。마르또브의 정의는 물확실한 비프로레타리아트 분자에게(당의 문호를 널리 개방한 것이다。마르또브의 지지자들은 투쟁적 조직으로 될 수 없는 잡다한 당을 원하였던 것이다。

레닌과 레닌주의자들은 대회에서 일련적이며、투쟁적이며、명확하게 조직화되었으며、유일한 의지를 가진 당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대회는 기권一표、二十二표 대 二十八표의 다수는 규약 제一조를 마르또브의 정의대로 채택하였다。이와 같이 대회는 마르또브의 편에 렵각하면서 중앙집권제의 사상으로부터 퇴각하였다。

조직문제에 관한 의견 차이는 본질적으로는「이쓰크라」파 진영 내의 분렬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대회의 제二十七차 회의에서 분드파들이 탈퇴하였다。그들은 당내에 있어서의 특수한 지위를 요구하였다。즉 로써야 사회민주로동당 내에 있어서 분드의 련방적 가입에 관한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자、분드파들은 중앙집권주의를 반대하여 대회에서 탈퇴하였다。

대회의 二十八차 회의에서 두 사람의 경제주의자 아끼모브와 마르띠노브도 대회에서 탈퇴하였다。그들도 역시 중앙집권주의를 반대하여 탈퇴하였다。당 규약은 국외의 당 사업을 집중화시키었다。즉 국외에 있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국외 로써야 혁명적 사회민주주의 련맹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된다。(규약 제十三조) 이리하여 아끼모브와 마르띠노브가 지도하던 국외「경제주의자들」의 단체를 해산시키었다。

七명의 기회주의자가 대회를 탈퇴한 것은 대회의 세력 관계를 레닌과에 유리하게 변경하였다。「이쓰크라」파가 볼세위끼 멘쉐위끼로 형식적으로、또는 최종적으로 분리한 것은 당지도기관인「이쓰

크라」 편집부 및 중앙위원회를 선거하는 때였었다。 중앙위원회는 레닌의 지지자들이 선거되었다。 레닌의 제의에 의하여「이쓰크라」편집부에는 레닌, 마르또브, 플레하노브가 피선되었다。 악셀로드, 스따로웨르 및 사쑬리츠에 대해서는 대회는 그들을 다른 직무에 배치하였다。 마르또브는 다수가 자기 찬동자들로 성립되었던「이쓰크라」구편집부원 六명(레닌, 플레하노브, 악셀로드, 마르또브, 사쑬리츠 및 스따로웨르) 전부를「이쓰크라」편집 위원으로 선거하기를 대회에 요구하였으나 대회는 이 제안을 거부하였다。

당 중앙기관 문제에 대한 투표에 의해서 대회는 마르또브 지지자의 패배와 레닌 지지자의 승리를 확정하였다。 이때부터 대회에서 선거 때에 다수표를 얻은 레닌 지지자들을 볼쉐위끼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소수표를 얻은 레닌 반대자들을 멘쉐위끼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와 같이 대회에서 진행된 투쟁은 당을 볼쉐위끼와 멘쉐위끼의 두 부분으로 분열시켰다。 그래서 볼쉐위끼는 혁명적이며, 멘쉐위끼는 로씨야 사회민주로동당의 기회주의적 우익이라는 것을 확증하였다。

로씨야 사회민주로동당 제二차대회 후 멘쉐위크들은 대회의 결정을 파괴시키며, 당 중앙부를 탈취하며 로 결렬을 더하였다。

대회의 결정을 무시한 구편집부원들은 자기들을 편집부원으로 선거하지 않았다는 것을 탓으로「당의 의사, 당적 규률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말또브를 옹인하여 가지고 반대파를 구성하였다。 그들은 당 앞에 보이꼬트를 선언하고 당 사업을 거부하였으며, 당을 위협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우리를 편집부 중앙위원회 당 합의위원회에 선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분열을 일으키겠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요구조건은

ㄱ, 「이쓰크라」의 구편집부가 회복될 것, (곧 편접부 내에서 우리에게 자리 셋을 달라)

ㄴ, 중앙위원회 성원에 일정한 수의 반대파 곧「소수」의 당원들을 편입할 것,

ㄷ, 당 합의위원회에 두 자리를 반대파 당원들에게 제공할 것 등……

우리는 이 조건들을 당의 존재를 위협하고 있는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당에 보장하여 주는 유일한 조건들로서 제기한다。 (즉 우리의 요구를 만족시키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당내에 대분열을 일으키리라」(쓰딸린전집 一권 一三九페지 참조)라고 떠들어 대었다。 멘쉐위끼는 당을 속이고 마르또브, 뜨로쯔끼, 악셀로드가 선두로 되어 그들의 반당적 분파 조직을 비밀로 창립하고 마르또브가 쓴 바와 같이「레닌주의를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플레

하노브가 변절한 결과에 멘쉐위크들은「이쓰크라」편집부를 탈취하였으며, 그리고 두명의 부패한 볼쉐위끼——크라씬과 노쓰꼬브가 변절한 결과에 중앙위원회의 다수를 멘쉐위끼가 차지하였다。 멘쉐위크들의 분열행위는 당을 어두운 공황에 빠지게 하였다。

× × ×

당 제二차 대회를 준비하는 시기와 대회 당시에 있어서「경제주의자들」,「분드동맹원들」, 멘쉐위끼들, 유다와 같은 뜨로쯔끼파를 반대하는 레닌의 모든 투쟁은 새로운 형태의 당을 위한 투쟁, 로씨야에 진정한 혁명적 맑쓰주의당을 창설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전동맹 공산당(볼쉐위끼) 력사에 있어서 제二차 당대회의 의의는 막대하다。 四十六년전 이 대회에서 처음으로 볼쉐위끼란 말이 나왔다。 동대회는 로골적인 기회주의자들에 대한 맑쓰주의의 승리를 공고히 하였다。 동대회는 강령과 규약을 채택하였고 사회민주로동당을 창설함으로써 통일적 볼쉐위끼당의 기초를 닦아 놓았다。

이때의 볼쉐위끼란 말은 오늘날 전세계가 다 알고 있는 말이며, 또 누구도 이 말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말이다。 전세계의 착취자들은 증오심을 가지고 볼쉐위즘에 대하고 있으며, 모든 나라의 수천만 근로자들은 볼쉐위즘에 대하여 열렬한 사랑을 가슴깊이 품고 있다。 볼쉐위끼당은 그 발생의 순간부터 전제제도와 부르죠아제도를 반대하는 인민의 영웅적 투쟁의 선두에 서서 그의 해방투쟁을 꾸준히 령도하여 왔고, 쏘베트동맹 내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의 세계사적 승리를 획득하였다。 볼쉐위끼당은 쏘베트 동맹의 위대한 조국전쟁 시에 독일파시스트 강점자들을 분쇄하는데 있어서 조직자가 되었으며, 고무자가 되였다。

철석같이 굳세고, 그리고 위대한 쓰딸린에게 령도되는 볼쉐위끼당은 확신을 가지고서 쏘베트 인민을 완전한 공산주의의 승리에로 이끌어 가고 있다。

박 정 호

一九四九년 十一월 二十五일 인쇄
一九四九년 十一월 三十일 발행
「근로자」 제二十二호
【정가 三十원】
책임주필 기 석 복
인 쇄 인 오 기 익
평양특별시문수리三〇〇번지
발 행 소 로 동 신 문 사
인 쇄 소 로동신문출판인쇄소
잡지편집국 전화 국장실 二五七六번
편집실 三八〇一一五번
제ㄱ—15267